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전략 연구

Export Strategy of Landscaping Tree and Bonsai to China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 출 문

## 산림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 전략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1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민 경 택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변 승 연 (연구원)

연구참여자: 은 중 호 (연구원)



## 요 약 문

---

### I. 제 목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 전략 연구”

### I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수요가 부진하여 조경수 생산도 함께 위축되고 있다. 분재 역시 수요 부진에 더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수요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중국) 수출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조경수와 분재는 관리에 따라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되며, 문화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출이 가지는 효과가 매우 크다. 중국은 조경수와 분재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목 수입이 많은 나라이다. 아름답고 멋진 수형을 가진 나무들을 많이 수입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 산업이 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조경수와 분재 시장의 현황과 여건을 조사하여 수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 III. 연구의 구성

이 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6개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조경수·분재 산업의 현황, 수출사례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중국의 조경수 및 분재시장 현황을 정리하였다. 생산과 유통, 가격, 수출입 동향, 식물 통관제도, 관련 업체 조사결과를 포함하였다. 4장에서는 일본과 네덜란드의 식물 수출 사례와 지원제도를 정리하였다. 일본은 중국으로 나한송을 비롯한 수목 수출이 많은 나라이다. 5장에서는 조경수와 분재 수출의 여건(SWOT)을 분석하고 대중국 수출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6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

#### IV. 주요 연구결과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 산업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영세한 재배규모의 부업 생산자가 많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 공들여 다듬어 고급 조경수 또는 분재를 생산하는 여력을 갖지 못하였다. 게다가 국내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조경수와 분재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생산과 유통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도시개발에 따른 녹화, 국제행사 개최, 대기오염 정화의 필요성 등에 따라 조경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리조트와 호텔 개발, 부유층 정원 조성 등 조경수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에서 선호하는 것은 꽃이 화려하고(붉은 색 또는 노란색) 크고 수형이 멋진 나무, 중국에 없는 수종, 뛰어난 기술로 잘 다듬은 나무들이다. 한편,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삶의 여유를 추구하게 되고 분재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건물 안팎을 장식하는 대형 분재, 실내 인테리어에 사용하는 소형 분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 나한송, 스페인 올리브 등 외국에서 다양한 수목을 수입하고 있다. 옛날에는 큰 나무를 선호하였지만 최근에는 다양하고 특이한 품종의 나무를 원하는 추세이다. 최근 부정부패 방지 정책 때문에 큰 나무 구입이 용이하지 않은 분위기도 있지만 외국산 조경수와 분재 수요는 여전히 매우 크다.

재배용 식물류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먼저 중국 정부(중국 입업국, 검역기관)의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CITES 해당 수종이라면 관련 당국의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까다로운 식물검역 조건이다. 소나무, 흙, 모래, 점토 및 피트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수출하기 전에 흙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수입실적이 없는 수종은 병해충위험도 해석이 필요하다. 수출할 때 뿌리를 감싸는 재배매질(피트모스, 마사, 수태 등)을 미리 중국 검역국에 보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수목 수출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는 참고가 된다. 일본은 나한송을 비롯하여 조경수와 분재 수출이 많은 나라이다. 농림수산성의 “농림수산물 수출확대방안”에서도 수목을 중요 품목으로 다루며, 중국을 안정시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치바현에서 나한송 수출이 활발한데, 폐업 생산자의 조경수 또는 폐농가의 정원수 등을 구입하여 수출 상품으로 가꾸어 수출한다. 일본에서 수출하는 나한송은 흙의 부착을 인정받는데 예비검역에서 합격해야 한다. 수출 전에 CCIC Japan(중국검험인증)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포장(圃場)

검사를 하며, 때때로 중국 검역당국의 담당자가 방문하기도 한다. 일본은 분재 수출도 많다. 정교하게 다듬은 분재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일본산 분재의 소비자 평가는 높지만 일본의 분재 공급 여건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러한 틈새를 한국산 분재가 파고들 수 있다.

네덜란드는 꽃과 수목의 생산과 유통에서 선진화된 나라이다. 수목 생산을 규모화·기계화하여 생산성이 높다. 마케팅에서 네덜란드산 식물을 내세우기보다 식물의 효용을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정부는 식물과 식물제품 수출에서 부딪히는 무역장벽 해결에 나선다. 수목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와 대학의 연구개발 노력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조경수와 분재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여건(SWOT)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조경수·분재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 산업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회 요인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산업의 성쇠가 달려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조경수·분재 생산업계의 성장, 일본산과의 경쟁 등은 위협 요인이다. 차별화하여 경쟁을 회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의 수출 잠재력은 적지 않다. 중국 바이어들은 우리나라 배롱나무, 단풍나무, 주목 대형 특수목에 관심을 보인다. 분재에서는 모과나무, 배롱나무, 피라칸사, 낙상홍 등에 관심이 높다. 이러한 규격의 수종이 대량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생산자들이 수출가능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점이 된다.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는 데 장애요인도 있다. 생산기반이 영세하다는 점, 홍보가 미흡하여 중국에 잘 알려지지 않다는 점, 까다로운 검역 조건에 대응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 등은 약점이다.

여건 분석에 기초하여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략은 “조경수와 분재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수출산업화”를 비전으로 하고 “조경수·분재의 중국 수출”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생산·유통체제 정비, 홍보, 기술개발, 문화구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생산·유통 체제 정비이다. 안정 생산체제 확립, 수출특화단지 조성, 유통구조 개선, 검역대응체제 구축이 과제이다. 수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투자해야 하며 중국의 검역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수 생산자들이 가진 수출가능 자원을 모으고 검역에 집단 대응할 수 있는 수목 수출특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홍보 강화이다. 중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수종과 규격에 따라 수출할 수 있는 자원을 조사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바이어 접촉을 위해 국제박람회에 참여하고, 바이어 초청도 필요하다. 기존 바이어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의 분재잡지 또는 여행잡지 등에 한국 분재의 매력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매우 큰

시장이지만 홍콩, 베트남, 대만, 동남아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지속적인 탐색도 필요하다. 셋째, 기술개발이다. 중국의 검역조건에 대응하면서 원활히 수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노하우 개발이 중요하다. 수출식물의 재배매질, 수출식물의 뿌리세척과 포장·적재 기술, 살충제, 뿌리 양생 등 다양한 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고유 수종을 조경수 또는 분재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문화 구축이다. 한국 조경수·분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원을 조성하고 한국의 정원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외국인과의 접촉이 높은 공항 주변에 중국인이 좋아하는 조경수를 심고 공항 내부 또는 국제행사장에 고급 분재를 진열하는 것이 방안이다. 중국에 한국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다.

## 차 례

---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범위와 방법 ..... 3

### 제2장 우리나라 조경수 및 분재산업 현황

1. 조경수 생산과 유통 ..... 5
2. 분재 생산과 유통 ..... 15
3. 조경수와 분재의 수출입 동향 ..... 24
4. 조경수와 분재 수출 사례 ..... 27

### 제3장 중국의 조경수·분재 시장 현황

1. 조경수 시장동향과 유통 ..... 35
2. 분재 생산과 유통 ..... 51
3. 조경수·분재의 수출입 ..... 65
4. 중국의 식물 통관 관련 제도 ..... 71
5. 중국의 조경수 및 분재 업체 조사 ..... 80
6. 대중국 조경수·분재 수출 가능성 ..... 95

### 제4장 외국의 수목 수출 관련 사례

1. 일본의 수목 수출사례와 지원제도 ..... 107
2. 네덜란드의 수목 수출입과 지원제도 ..... 129

### 제5장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 전략과 실천과제

1. 조경수·분재 수출의 여건분석(SWOT) ..... 135
2.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 전략 ..... 139
3.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 전략의 실천과제 ..... 142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1. 조정수·분재 대중국 수출 매뉴얼 .....	153
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	164
3. 입경재배매개물검역관리방법 .....	176
4. 국제적 멸종위기종(식물) 목록 .....	180
참고문헌 .....	193

## 표 차 례

---

### 제2장

표 2-1. 연도별 조경수 생산 및 생산 현황 .....	7
표 2-2. 연도별 조경수 재배 임가 및 재배면적 .....	7
표 2-3. 조경수 재배 임가의 재배규모 분포 .....	8
표 2-4. 조경수의 판매처 비율 .....	11
표 2-5. 수종에 의한 분재의 종류 .....	16
표 2-6. 연도별 분재 생산 및 생산 현황 .....	18
표 2-7. 분재 재배 수종의 분포 .....	20
표 2-8. 분재의 판매처 비율 .....	21
표 2-9. 분재의 가격 동향 .....	22
표 2-10. 수목의 HS 분류 코드 .....	25
표 2-11. 주요 대상국별 수목 수출입 현황 .....	26
표 2-12. 제이디산업의 수목 수출 경과 .....	27

### 제3장

표 3-1. 베이징시 녹지자원 현황 .....	36
표 3-2. 베이징시 2020년까지의 녹지화 목표 지수 .....	37
표 3-3. 다롄 조경수 종류와 적응현황 .....	37
표 3-4. 중국의 주요 조경수 수종 및 분포 지역 .....	41
표 3-5. 중국 조경수 및 분재 주요 온라인 몰 .....	42
표 3-6. 상하이 지역 조경수 및 분재 가격 .....	45
표 3-7. 베이징 지역 조경수 및 분재 가격 .....	46
표 3-8. 톈진 지역 분재 가격 .....	47
표 3-9. 다롄의 조경수 거래 가격 .....	48
표 3-10. 중국 분재의 다양한 형식 .....	53
표 3-11. 중국 수목분경 8대 유과 .....	54
표 3-12. 중국 화훼통계(2012년) .....	56
표 3-13. 중국의 지역별 분재 재배면적(2012년) .....	57

표 3-14.	중국의 주요 분재 수종 .....	58
표 3-15.	베이징의 주요 화훼시장 .....	59
표 3-16.	인터넷 유통의 분재 가격동향 .....	63
표 3-17.	분재의 가격 동향 .....	63
표 3-18.	산지별 분재의 장단점 .....	64
표 3-19.	한중 FTA 체결에 의한 관세율 변화 .....	65
표 3-20.	중국의 수목류 수출입 현황, 2001-2015 .....	66
표 3-21.	중국의 주요 대상국별 수목류 수출입 현황 .....	67
표 3-22.	중국 성별 최근 5년 수입동향 .....	67
표 3-23.	중국 성별 최근 5년 수출동향 .....	69
표 3-24.	수목 수입 지정 해관 및 항구 .....	71
표 3-25.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한 수입 금지 물품 .....	74
표 3-26.	식물수입의 매질 검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	76
표 3-27.	식물격리장 임대료 .....	78
표 3-28.	중국 조경수 및 분재 업체 .....	88

#### 제4장

표 4-1.	녹화수종 공급가능량의 추이 .....	108
표 4-2.	일본의 수목류 생산현황 .....	109
표 4-3.	수목 수출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	112
표 4-4.	EU의 수목 수출입 .....	130

#### 제5장

표 5-1.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의 여건(SWOT 분석) .....	136
표 5-2.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략과제(안) .....	140
표 5-3.	조경수·분재 수출을 위한 주체별 역할 .....	141
표 5-4.	조경수·분재 수출을 위한 과제 .....	144

## 그림 차례

---

###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 흐름도 .....	4
------------------------	---

### 제2장

그림 2-1. 조경수(느티나무) 생산의 작업공정 .....	6
그림 2-2. 주요 조경수의 재배수종 비율 .....	9
그림 2-3. 조경수 유통경로 .....	11
그림 2-4. 조경공사 실적 현황 .....	12
그림 2-5. 조경수 거래가격 .....	13
그림 2-6. 수형에 따른 분재의 종류 .....	16
그림 2-7. 분재의 생산 공정 .....	17
그림 2-8. 분재생산자의 재배분수 분포 .....	19
그림 2-9. 분재·분재소재의 주요 유통경로 .....	20
그림 2-10. 분재 재배자의 수령별 분재 판매가격 .....	23
그림 2-11. 산림수목의 수출입 동향 .....	25
그림 2-12. 대신원예의 수출 진행 과정 .....	32
그림 2-13. 수출용 주목생산 시험 단계별 흐름도 및 시뮬레이션 .....	33

### 제3장

그림 3-1. 다렌 공원 경관 .....	38
그림 3-2. 다렌 아파트단지 경관 .....	38
그림 3-3. 다렌 도시도로 경관 .....	39
그림 3-4. 항저우 소산 조경수시장 .....	43
그림 3-5. 중국에서 인기 높은 조경수 수종 .....	49
그림 3-6. 다양한 수형의 수입 조경수 .....	50
그림 3-7. 옛 중국의 분재 문화 .....	51
그림 3-8. 중국의 분재 잡지 .....	52
그림 3-9. 분재 재배 면적 및 매출액 변화 추이, 2001-2012 .....	56

그림 3-10.	중국의 대 한국 및 일본 수목류 수출동향 .....	70
그림 3-11.	임목종자경영허가증(좌)과 임목종자생산허가증(우) .....	73
그림 3-12.	중국 식물검역허가증 심사 흐름도 .....	75
그림 3-13.	수입 조경수의 격리재배 표식 .....	78
그림 3-14.	진화 우이현 보화생물원 .....	80
그림 3-15.	가화생태과기유한공사 .....	81
그림 3-16.	홍유에(HONGYUE) .....	82
그림 3-17.	육통원예유한공사 .....	84
그림 3-18.	닝보 녹야산장백사원 .....	86
그림 3-19.	닝보 연봉전설원예유한공사 .....	86
그림 3-20.	북경 화목분경원 .....	87

#### 제4장

그림 4-1.	일본의 조경수 수출액 추이 .....	111
그림 4-2.	치바현 수목 생산지 .....	113
그림 4-3.	조경수 수출 전문 생산자(일본 카와시게엔) .....	117
그림 4-4.	카쿠타 그린의 대형 분재 생산지 .....	118
그림 4-5.	수출 수목의 전처리 방법 .....	120
그림 4-6.	수출 수목의 적재 방법 .....	121

#### 제5장

그림 5-1.	분재에 관심높은 지역 .....	147
---------	-------------------	-----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5년 우리나라 조경재(조경수, 분재, 야생화) 생산액은 7,360억 원인데, 여기에서 조경수는 6,769억 원, 분재는 213억 원이다. 조경재 생산액은 2008년 8,503억 원에 이르기 도 하였으나 국내 건설 경기의 침체와 함께 점차 위축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고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조경수 생산도 함께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갑작스레 조경수 수요가 부진하면서 조경수 재고가 해소되지 않으며 운영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재투자도 이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밀식한 나무들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나무들을 이식하거나 사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키운 나무들을 판매할 곳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동안의 기다림과 투자가 헛되고 만다. 분재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분재에 대한 국내 수요의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용 고급 분재 소비 감소 등 분재업계는 소비 시장 위축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조경수와 분재의 국내 수요 부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해외 수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조경수와 분재 산업은 내수시장의 성장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술발전에서도 뒤처졌다. 수출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남과 동시에 국제 시장을 겨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조경수·분재 산업의 기술발전 나아가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조경수와 분재는 관리에 따라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된다. 게다가 정원문화 또는 예술성을 융복합하는 문화상품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 즉, 잘 가꾸고 다듬어진 조경수 또는 예술성이 뛰어난 분재를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정신문화와 품격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 수출의 효과가 매우 크다.

중국은 조경수와 분재 시장이 성장하는 나라이다. 중국의 전반적 경제성장은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급 주택 시장에서 조경수 수요는 증가 추세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개발 수요가 많고 그에 따라 도시녹화 수종에 대한 수요가 많다. 가로수, 도시공원, 리조트, 호텔, 빌딩, 주택단지의 조경에 쓰이는 수목에 대한 수요가 높다. 뿐만 아니라 부유층의 주택 또는 민간건물의 정원용 조경수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일본산 나한송과 스페인산 올리브나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을 수입한다. 또, 중국은 분재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중국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차(茶), 예술과 함께 분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조경수와 분재 수출에도 적극적인데, 이미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수목들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여 특이한 수종이 많다. 중국의 대형 조경수 업체들이 현재는 내수를 목표로 외국 수종을 수입하고 있지만 내수가 충족되면 수출을 진행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국내 조경수와 분재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한-중 FTA 등 시장개방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 영토 확장에 대응하여 국내 조경수와 분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산림청은 '2016년 임산물 수출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출목표를 5억 달러로 제시하고,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조경수 및 분재 시장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조경수 및 분재를 수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살아있는 식물을 수출하는 데 나타나는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이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조경수와 분재 등 조경재 산업이 임산물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관련 산업에 대한 기초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한국조경수협회(2007)와 한국농

촌경제연구원(2014)의 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조경수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유통센터 건립을 제안한 것이다. 조경수 업계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조경수 수출 관련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산림청(2007)은 조경수와 분재의 생산·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은 산림청 임업경영실태조사에서 5년 주기로 조경수와 분재 생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민경택 등(2014)은 중국의 분재를 대상으로 생산·수출입·유통·소비·가격 동향을 심층 분석하였다. 통계자료와 문헌분석에 한정되고 있지만, 분재를 임산물 수출의 품목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석현덕 등(2015)은 산림·임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써 조경수의 대중국 수출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는 산림청의 임산물 수출확대 계획에 조경수와 분재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건국대학교(2016)는 난류와 분재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기술과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미니 분재를 수출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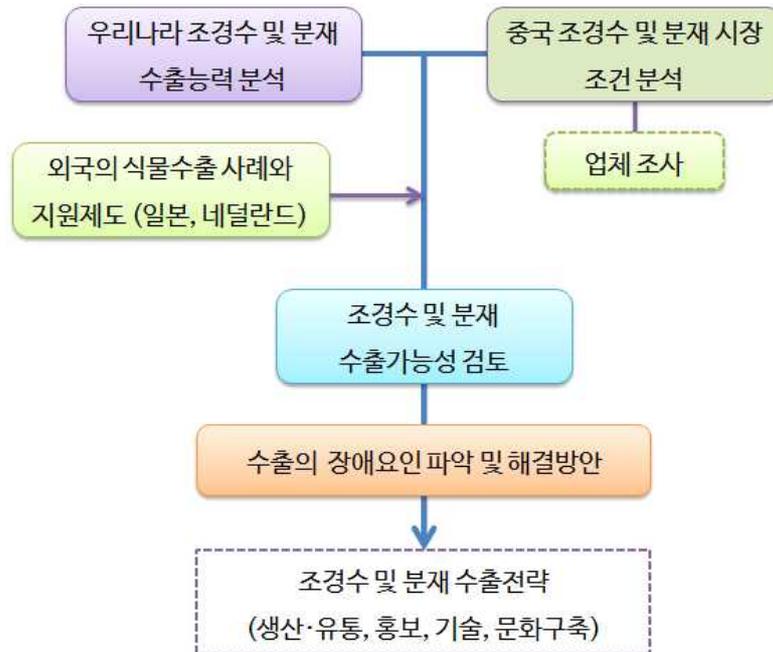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조경수와 분재의 중국 수출을 위한 방안을 심층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수출 가능성과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범위와 방법

우리 제품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려면 국내 생산과 수출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상대국 시장의 조건을 분석한다. 이러한 조건이 맞을 때 우리 제품의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기초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의 수출 잠재력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조경수와 분재를 중국에 수출한 사례들이 있다. 기존 경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는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경수와 분재의 잠재 수출대상국은 중국이다. 수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중국의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경수 및 분재는 수출경험이 많지 않으므로 충실한 시장조사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KOTRA 해외지사(다롄, 상하이, 베이징, 천진)에 기초자료 조사를 의뢰하였고 출장 조사에서 업계 관계자 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업체 리스트를 포함하여 앞으로 조경수와 분재 생산자들의 수출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 연구추진 흐름도



외국의 식물 수출 경험과 관련 지원제도를 조사하였다. 특히 일본은 중국으로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은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의 꽃나무 수출액에서 조경수와 분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 수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문헌과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조경수 수출자와 관계자 면담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식물 유통의 중심지로서 역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진국 사례를 참조한다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식물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조사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조경수 및 분재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생산·유통, 홍보, 기술개발, 문화구축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제 2 장

---

### 우리나라 조경수 및 분재산업 현황

#### 1. 조경수 생산과 유통

##### 1.1. 특징

조경수는 조경에 이용되는 모든 나무를 가리킨다. 근대 이전에 조경의 대상은 주로 정원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조경은 정원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개선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한다. 근래에는 도시에서 녹지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도시 조경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졌다. 이 때문에 조경수는 도시계획과 주택건설에서 필수요소로 쓰인다. 따라서 조경수는 정원에 심은 나무뿐만 아니라 가로수나 주택단지, 공원, 관광지 등 생활공간의 환경정화와 미화, 환경보전을 위해 심는 나무를 모두를 가리킨다.

조경수는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산림청, 2007). 첫째, 조경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상품이 균일할 수 없고 장소와 생육여건에 따라 성상이 다양하다. 이 때문에 시장의 수요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날씨와 같은 환경조건에 따라 공급도 달라진다. 둘째, 가격책정의 근거 자료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수령과 수형 그리고 수목의 이동거리와 작업여건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 셋째, 산업용품의 성격을 지닌다. 일반 소비자보다 정부 또는 건설사의 도급을 받는 조경업체들이 주요 구

그림 2-1. 조경수(느티나무) 생산의 작업공정

묘목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생 느티나무 묘목을 구입</li> <li>• 5년간 무육·관리하여 판매</li> </ul>			
묘목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당 1본 식재(1,000본/1,000평)</li> </ul>		
약제살포	약제살포	약제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제살포 매년 7회 실시</li> </ul>	
전 정	전 정	전 정	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정 매년 1회 실시</li> </ul>
		이 식	약제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째 1회 이식</li> <li>• 5년째(7년생) 판매</li> </ul>
1년 (초기년도)	2년	3년	4년	5년 (판매년도)

자료: 산림청

매자이다. 넷째, 조경수 생산에서 자본 회수기간이 길다. 파종에서 판매까지 5~10년이 소요된다.

조경수 생산공정은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교목류의 대표 수종인 느티나무를 예로 하여 일반적인 조경수 생산 작업공정은 <그림 2-1>과 같다. 생산 공정은 유묘이식→약제살포→이식→전정 관리→굴취→운반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종과 용도에 따라 생산 공정은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 1.2. 생산

### 1.2.1. 생산액 추이

우리나라 조경수 생산은 1970년대 크게 성장하였는데, 경제개발에 따른 건설공사가 활발하고 유적지 복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경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조경에 대한 도시민 관심 증가 등으로 조경수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조경수 생산은 아직 70년 수준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조경

표 2-1. 연도별 조경수 생산 및 생산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산량 (천본)	47,127	48,948	53,455	52,789	82,563	79,434	81,847	80,453	86,724	50,319	78,462
생산액 (억 원)	7,257	7,835	7,239	7,886	7,675	6,976	7,105	6,120	7,157	5,920	6,769

자료: 산림청(2015). 임업통계연보.

수는 전문 생산업체와 부업으로 하는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새로운 품종 개발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고 주로 인기있는 수종을 위주로 재배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컨테이너 재배 등의 기술은 아직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고 정식 전정과 병해충 방제 등 재배기술도 미흡한 상태이다.

조경수 생산 업체의 정확한 수와 수종별 보유량 등 자세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조경수의 연도별 생산량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2015년 조경재(조경수, 분재, 야생화) 생산액은 7,360억 원으로 임산물 생산액 8조 3,378억 원에서 순임목생장액(2조 1,405억 원) 및 토석류(2조 7,370억 원)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비중(8.8%)을 차지한다. 2002년부터 조경수 생산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42,661천 본에서 2009년 82,563천 본으로 약 1.9배 증가하였다. 2009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생산액은 7,676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조경수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조경수 생산량과 생산액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조경수 생산은 건설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4대강 사업과 혁신도시 건설이 거의 완료되었고 새로운 건설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경수 생산도 과거와 같이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기준 지역별 조경수 생산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 26,591천 본으로 전국 생산량의 33.9%를 차지하여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경기 31.1%, 전북 21.0%, 세종 5.6%의 순이다. 전북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에 비하면 전남의 조경수 생산은 연평균 21.5% 성장률을 보인다.

## 1.2.2. 재배임가수와 재배규모

‘농림어업총조사’에서 공표하는 조경수 재배임가수와 재배면적은 <표 2-2>와 같다.

표 2-2. 연도별 조경수 재배 임가 및 재배면적

구분	연도		
	2005	2010	2015
재배임가(호)	7,696	12,002	9,070
전업 (비중,%)	119 (14.5)	1,137 (9.5)	994 (11.0)
겸업 (비중,%)	6,577 (85.5)	10,865 (90.5)	8,076 (89.0)
재배면적(ha)	n.a.	12,399	9,670
1인당 재배면적(ha)	n.a.	1.03	1.07

자료: 임업통계연보(2016). 농림어업총조사(공표주기 5년).

연도별 조경수 재배임가수와 재배면적은 2010년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으며, 1인당 재배면적은 1ha 정도에 머물고 있다. 소규모 재배 임가가 여전히 많으며 겸업으로 조경수를 재배하는 임가의 비중이 90%에 이른다.

임업경영실태조사(2016)에서 나타난 조경수 재배임가의 평균 재배면적은 14,180㎡인데, 이는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보다 약간 높다<표 2-3>. 재배면적의 분포를 보면 3,310㎡ 미만 재배자가 42.1%에 이르고, 73,550㎡ 이상의 대규모 재배자는 3.9%에 불과하다. 지목 구성은 밭이 58.7%로 나타났다. 토지의 소유 구성에서는 소유토지 71.6%, 임차토지 28.4%로 나타났다. 재배자의 연령분포에서 70세 이상이 24.8%로 나타나 고령화에 따른 감소도 예상된다. 조경수 재배임가의 평균 수입은 6,930만 원으로 나타났지만 자가공사를 제외한 조경수 재배업 수입은 2,906만 원이다. 조경수 재배업 수입은 2010년 조사(4,085만 원)과 비교하여 28.9% 감소하였다. 조경수 재배업 수입이 높지 않아 재배자의 83.3%가 겸업을 하고 있다. 재배면적이 영세하여 조경수 재배의 소득창출이 낮아 겸업

표 2-3. 조경수 재배 임가의 재배규모 분포

단위: %

구분	사례수	3,310㎡	3,310~ 16,550㎡	16,550~ 73,550㎡	73,550㎡ 이상	계	평균 (백㎡)	
전체	8,444	42.1	37.0	17.1	3.9	100.0	141.8	
연령별	40대 이하	890	36.8	38.3	19.5	5.4	100.0	185.2
	50대	2,298	40.1	41.9	14.3	3.8	100.0	132.9
	60대	3,162	39.7	36.5	19.9	3.9	100.0	152.9
	70세 이상	2,093	50.0	31.8	14.9	3.2	100.0	116.2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2016)

그림 2-2. 주요 조경수의 재배수종 비율

2010년 재배수종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상록교목류	소나무(49.1%)	주목(24.0%)	향나무(12.2%)	잣나무(6.5%)	반송(5.0%)
낙엽교목류	단풍나무(31.3%)	벚나무(19.5%)	느티나무(17.0%)	이팝나무(10.1%)	은행나무(5.8%)
관목만경류	철쭉(21.1%)	조팝나무(3.0%)	개나리(2.6%)	참빗살나무(2.2%)	병꽃나무(2.1%)

2015년 재배수종(노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상록교목류	소나무(68.4%)	주목(25.7%)	향나무(8.1%)	동백나무(6.4%)	잣나무(5.3%)
낙엽교목류	느티나무(26.6%)	이팝나무(24.5%)	배롱나무(22.6%)	벚나무(22.3%)	산수유(12.8%)
관목만경류	철쭉(49.2%)	회양목(19.6%)	영산홍(12.8%)	목서류(6.9%)	조팝나무(6.9%)

2015년 재배수종(시설)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상록교목류	소나무(41.0%)	주목(29.8%)	잣나무(27.0%)	동백나무(19.5%)	황칠나무(15.2%)
낙엽교목류	벚나무(37.9%)	단풍나무(31.0%)	목련(12.4%)	백목련(12.4%)	왕버들(12.4%)
관목만경류	철쭉(74.2%)	산철(7.7%)	회양목(7.4%)	미스김라일락(8.0%)	목서류(7.0%)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2016)

농가가 많다. 또, 임차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오랜 기간 정지 전정을 해서 고급 조경수를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재배규모가 영세하여 기계화가 어렵고 농산촌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생산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임업경영실태조사(2016)는 조경수 재배임가에게 장래 계획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57.1%로 가장 높고, ‘늘릴 것이다’ 9.5%, ‘줄일 것이다’ 23.0%, ‘중단할 것이다’ 10.3%로 나타났다. 경영규모를 줄이려는 이유로는 ‘판로의 불확실’ 48.7%, ‘가격하락 또는 낮은 수익률’ 22.3%, ‘노임상승 또는 노동력 부족’ 22.2%로 나타났다. 조경수 재배업이 업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판로의 개척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1.2.3. 수종별 재배현황

임업경영실태조사(2016)에서 나타난 조경수 재배자의 수종별 재배 비율은 <그림 2-2>와 같다. 상록 교목류에서는 소나무, 주목, 향나무, 동백나무, 잣나무를 주로 재배하고, 낙엽교목류에서는 느티나무, 이팝나무, 배롱나무, 벚나무, 산수유 등을 많이 재배한다.

소나무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관목류에서는 철쭉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외에 회양목, 영산홍, 목서류, 조팝나무가 있다. 2010년 재배수종과 비교해 보면 큰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철쭉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임업통계연보(2015)의 관상수 생산실적을 보면 철쭉류가 30,229천 본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회양목 13,718천 본(10.4%), 동백나무류 13,662천 본(10.3%)이며 기타 다수의 수종이 생산된다. 철쭉을 비롯하여 성장이 빠른 관목류 생산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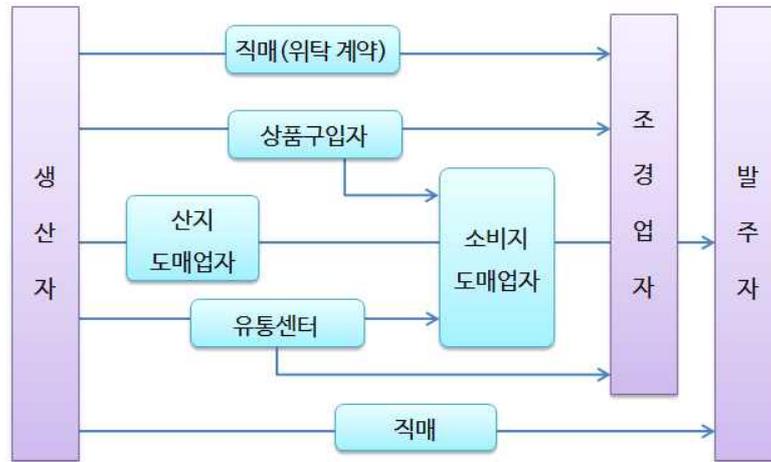
조경수의 중국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출할 수 있는 수종은 주목,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의 대형 특수목인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상록교목류에서 비중이 높은 수종은 소나무인데 소나무는 중국에서 수입금지 품목이다. 낙엽교목류에서 비중이 높은 뱃나무도 중국에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위 통계는 본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묘목과 성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대중국 수출을 위한 대형 특수목 자원의 통계가 없어 수출 잠재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 1.3. 유통

조경수 유통은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조경수 유통의 참여자는 생산자, 산지 도매업자, 소비지 도매업자, 조경업자, 발주자이다.

조경수 유통의 일반 경로는 <그림 2-3>과 같다. 조경수 최종 수요자는 물론 건축주가 되겠지만 조경에 쓰이는 수종과 규격 등은 조경설계에 나타난다. 유통은 조경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주문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지 도매업자가 조경업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 확보에 나선다. 소비지 도매업자도 대부분 생산을 겸업하기 때문에 자가생산품을 우선 조달하겠지만 수량이 부족하면 산지도매업자(생산겸업)와 생산자에게 조달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주문자에게 보고한다. 조달이 어렵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도 조사를 의뢰하고, 부족한 만큼 전국 각지에서 수배한다. 수집 비용을 반영하여 견적가격을 제시하고 조경업자가 수용하면 발주한다. 수집한 조경수를 검수하여 조경업자에게 납품한다. 중간 도매업자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생산자가 조경업자 또는 발주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있으며, 유통센터를 거쳐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방식도 있다.

그림 2-3. 조경수 유통경로



자료: 산림청(2007)

임업경영실태조사(2016)에서 나타난 조경수 생산자의 판매처 비율은 <표 2-4>와 같다. 주요 판매처는 중간상인(58.5%), 다른 조경회사(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상인(산지도매인) 판매 비율이 2005년 52.7%에서 2010년 49.9%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2015년 조사에서 다시 58.5%로 상승하였다. 중간상인 유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경수 유통 구조 개선이 여전히 진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조경수 유통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는데, 중간상인이 유통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생산자가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하여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

표 2-4. 조경수의 판매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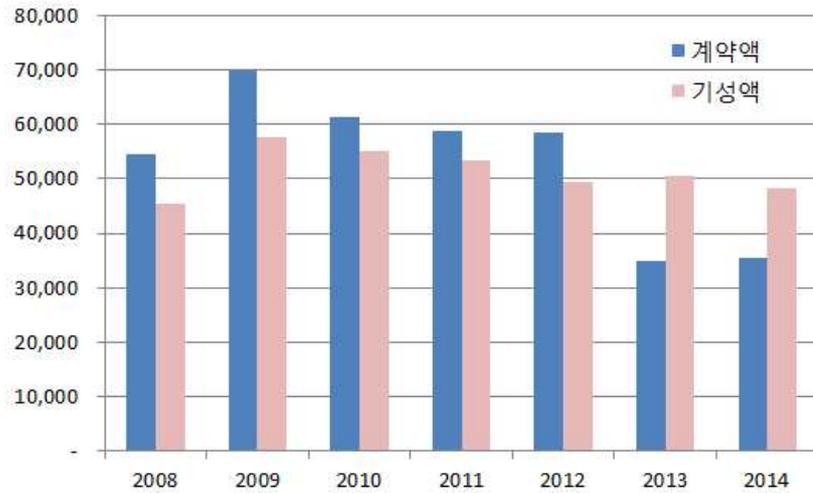
단위: %

판 매 처	연 도		
	2005	2010	2015
자가공사	19.3	8.7	5.4
다른 조경회사	22.4	23.6	18.3
중간상인	52.7	49.9	58.5
직거래	시장판매	-	6.9
	시장외 직거래	-	8.5
기 타	5.6	2.4	1.0
계	100.0	100.0	100.0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2016).

그림 2-4. 조경공사 실적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통계청 건설업조사

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조경수 유통에서 직거래 비중은 약 17% 정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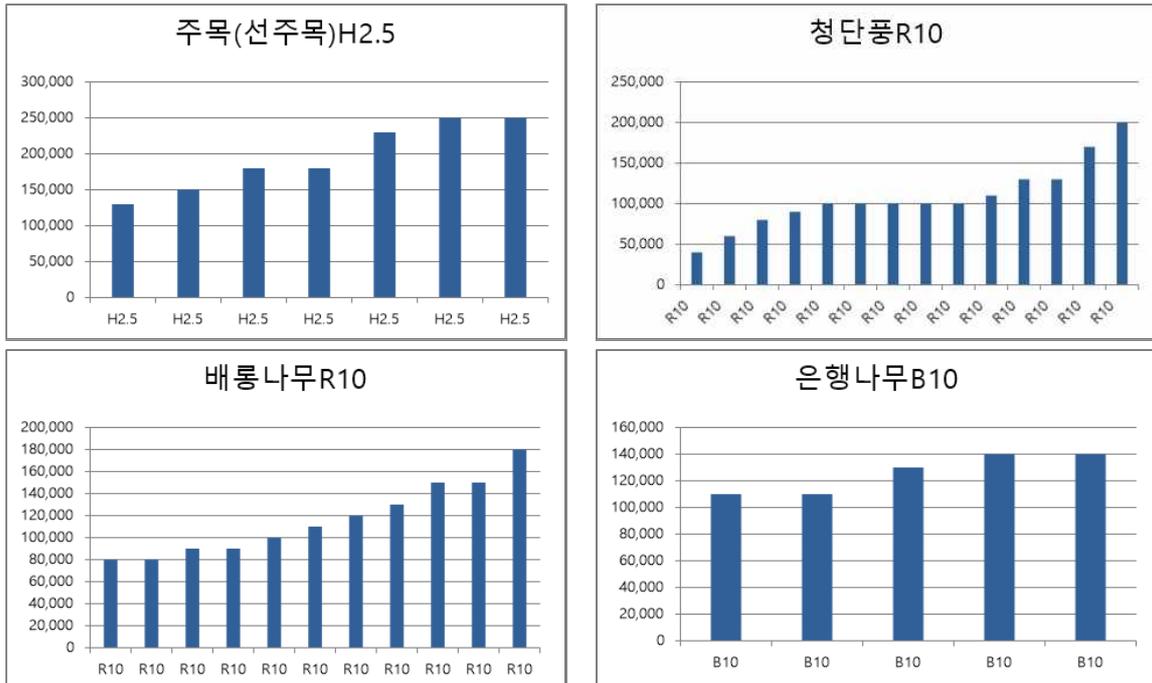
중간상인 지배의 불투명한 유통구조는 중국 바이어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한다. 구매 상품의 분포와 적정 가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어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장거래를 유도·정착할 필요가 있다.

#### 1.4. 수요동향

조경수는 결국 조경공사에서 소비된다. 조경수 수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조경공사업의 실적을 통해 조경수 수요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그림 2-4>. 2014년 조경공사업의 기성액은 4조 8,138억 원으로 나타나는데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의 조경공사 계약액이 크게 낮아져 조경공사 수요가 침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경수 생산업자들은 건설경기가 최근 몇 년 사이 부진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식재공사에 필요한 인건비와 부대비용이 상승하고 최근 조경수 시공에서 대형목을 선호하면서 공사비용은 증가하였으나 공사에 사용된 수목의 분수는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조경공사 실적의 감소는 조경수 생산의 위축을 가져온다. 국내에서 건설경기가

그림 2-5. 조경수 거래가격



주: 수형 A급의 작업상차가를 기준으로 함.

자료: 트리디비(<http://treedb.co.kr/>)

확대될 요인이 많지 않다는 점은 조경수 생산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결국 새로운 수요처(수출) 개발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 1.5. 가격

상품의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다. 조경공사에 쓰이는 조경수의 국내 가격은 조달청 가격으로 공시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국내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 트리디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동일한 규격에서도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데 이는 수목의 수형과 상태에 따라 또는 판매자의 거래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편차 때문에 생산자들은 조경수 유통이 불투명하다고 느낀다.

중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규격은 직경 15~20cm 이상의 대형 특수목이다. 부유층 주택 또는 민간건물 정원 구성에 사용할 나무들이기 때문이다. 대형 특수목의 가격은 별도로 나타나지 않고 당사자 교섭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 특수목 가격도 수형과

상태에 따라 편차가 커진다. 그럼에도 <그림 2-5>에 나타난 가격들이 수출하기에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sup>1</sup>

## 1.6. 조경수의 수출 역량

우리나라 조경수 생산업체는 조경수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품과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주목, 단풍나무, 배롱나무, 모과나무 등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수종이다. 또, 중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규격은 대형 특수목이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 바이어는 30점 이상 규격의 단풍나무와 배롱나무 구매의사를 제시한 바 있다. 대형 특수목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생산자가 많지 않아 국내에 어느 정도 상품이 존재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소량이라도 대형 특수목 자원을 보유한 생산자는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다수 생산자의 협력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여러 생산자에게 상품을 수배하여 수집한다면 바이어가 원하는 물량을 맞출 수도 있다.

생산·유통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 국내 조경수 생산업체는 규모가 영세하여 나무를 다듬어 고급 조경수를 생산하는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다. 작업을 기계화할 만큼 규모화하지 못하였다. 조경수 재배업이 주로 평지보다 경사지에 위치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동안 국내 조경수 생산업체가 안정적인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수시장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시점에 수출을 도모하면서 국내 조경수 생산업을 선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sup>1</sup> 중국 바이어 면담에서 흉고직경 15cm 정도의 단풍나무 가격이 15만 원이라고 제시하였을 때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음.

## 2. 분재 생산과 유통

### 2.1. 특징과 종류

분재는 얇은 그릇에 나무를 심어 가꾼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단순히 식물의 잎, 꽃, 열매, 줄기의 형태적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분(盆) 위의 수목을 보면서 자연 풍경을 연상하는 것이다. 분재는 일정 기간 키워 관리한 수목을 이용하여 얇은 분과 잘 조화되도록 심고 적절한 배양으로 이상적인 수목미를 연출하여 감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재는 단순한 생산물이 아니라 생물학 지식과 예술 기교로 구성된 예술품이라 할 수 있다(김세원, 1996).

분재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다. 대표적으로 크기, 수종, 수형 등을 기준으로 한다. 먼저, 크기에 따라 구분한다면 대분재, 중분재, 소분재, 소품분재로 나뉜다. 대분재는 수고 66~150cm의 분재를 말하며 주로 건물 현관이나 강당을 장식하는 데 사용된다. 중분재는 수고 35~65cm의 분재로서 주로 가정에서 많이 가꾸며 분재 예술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규격이다. 소분재는 수고 16~35cm의 분재로서 분재소재를 생산하여 가꾸는 분재는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소분재는 가격이 저렴하고 취급이 용이하여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다. 소품분재는 수고 15cm 이하의 것을 말하는데, 좁은 공간에 여러 분재를 진열하여 꾸밀 수 있다.

분재에 이용되는 수종은 대략 130여 종이지만 흔히 이용되는 수종은 약 50여 종이다. 수종에 따라 관상요소가 달라지는데 크게 송백분재, 상업분재, 상화분재, 상과분재로 나뉜다<표 2-5>. 송백분재는 이름 그대로 소나무류와 향나무류를 비롯한 침엽수로 만든 분재이다. 고고한 자태와 청조(淸操)한 푸름이 매력이다. 상업분재는 잎을 관상요소로 하며 단풍나무와 소사나무를 주로 이용한다. 상화분재는 꽃을 관상요소로 하며 매화나무, 명자꽃, 철쭉 등을 소재로 많이 이용한다. 상과분재는 열매를 관상요소로 하므로 모과, 석류 등 과실나무를 소재로 이용한다.

분재에 쓰이는 나무의 모양새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나무의 모양새, 즉 수형에 따라 직간, 사간, 곡간류, 현애, 문인목, 쌍간, 총생간, 연근, 노근, 석부, 군식,

표 2-5. 수종에 의한 분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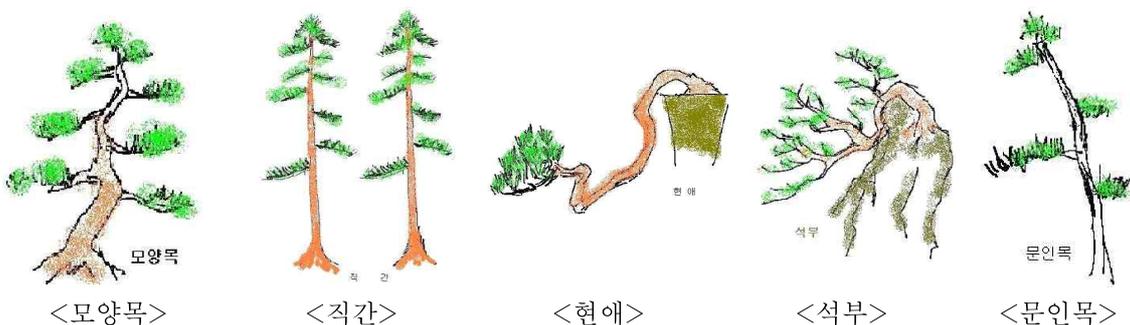
구 분	주요 수종
송백분재 (松柏盆栽)	해송, 소나무, 금송, 섬잣나무, 노간주나무, 주목, 삼나무, 솔송나무, 진백
상엽분재 (賞葉盆栽)	참단풍, 당단풍, 소사나무, 느티나무, 느릅나무, 노각나무, 은행나무, 너도밤나무, 대나무, 팽나무
상화분재 (賞花盆栽)	매화나무, 명자나무, 장수매, 목백일홍, 왜철쭉, 철쭉, 수사해당, 벚꽃나무, 명춘화, 등나무, 애기라일락, 애기개나리, 치자나무, 금로매, 마취목, 단정화, 애기조팝나무, 인동덩굴, 짚레나무
상과분재 (賞果盆栽)	애기사과, 애기국광, 모과나무, 감나무, 배나무, 왕보리수, 석류나무, 홍자단, 낙상홍, 으름덩굴, 산사나무, 남오미자, 한살뽕나무, 노박덩굴, 십산해당

자료: 산림청(2007)

분경 풍향수 등으로 나뉜다. 분재 수형을 제작하는 과정은 분재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산림청(1994)에 의하면 우리나라 분재는 모양목(표준곡간)이 59.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직간(30.7%), 현애(3.7%), 석부(2.3%) 순으로 나타났다. 대분재, 중분재, 소분재, 소품분재 모두에서 동일하게 모양목과 직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재소재를 번식하는 방법은 크게 실생(實生), 삽목(插木), 취목(取木), 접목(接木)으로 구분한다. 실생은 종자번식인데 한 번에 대량의 묘를 생산할 수 있다. 삽목은 가지나 줄기를 이용하여 소재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삽목하여 1년 배양한 후 다음해 봄에 이식하여 3~5년생이 되면 소분재나 소품분재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접목은 다른 두 식물체의 조직을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번식방법인데 상화분재와 상과분재에서 많이 이용된다. 취목은 환상박피법으로 하는데 뿌리를 내고 싶은 곳에 목질부가 보이도록 수피를 벗긴다. 껍질을 벗긴 곳에 화훼용 이끼와 비닐로 감싸고 아래위를 끈으로 묶는다.

그림 2-6. 수형에 따른 분재의 종류



자료: longtree.tistory.com

그림 2-7. 분재의 생산 공정

묘목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생 삼목묘를 구입</li> <li>• 5년간 관리하여 판매(7년생 판매)</li> </ul>			
묘목식재 이식	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당 40본 식재</li> </ul>		
제초작업 시비관수	제초작업 시비관수	제초작업 시비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초작업 년 3회 실시</li> </ul>	
곡간잡기	곡간잡기	곡간잡기	곡간잡기 분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간잡기 년2회 실시</li> </ul>
			가지치기 분 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정·관리하여 판매</li> </ul>
1년 (초기년도)	2년	3년	4년	5년 (판매년도)

자료: 산림청

처음에는 흰색 뿌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갈색으로 바뀌고 굵어지면 톱으로 잘라 분에 옮겨 심는다. 어느 정도 수형이 잡힌 소재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취목이다. 뿌리뻗음이나 그루솟음새가 나쁜 나무를 취목으로 교정하면 수형 좋은 분재를 만들 수 있다.

분재를 생산하는 공정은 ‘묘목 구입→식재→시비·관수→곡간잡기→김매기→이식→분담기→분관수→전정→포장→운반’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은 보통 5년 정도 소요된다. 이를 간단히 표현한 것이 <그림 2-7>이다. 나무의 자세, 줄기와 가지의 조화, 꽃과 잎의 아름다움, 보조 소재의 조화 등에 따라 분재의 작품성과 가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 2.2. 생산

### 2.2.1. 생산액 추이

우리나라 분재 생산액은 2005년 300억 원에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100억 원 수준으로 위축되었다가 2015년에 210억 원 수준으로 상승하였다<표 2-6>. 추세를 살펴보면 분재 생산업은 위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분재 생산업이 위축하는 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경기 침체에 따라 분재 수요가 감소하였고 화훼와 화분식물 등에서 외국 식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또, 분재를 가꾸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바쁜 현대인의 성미와 부합하지 않아 분재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분재가 지나치게 고급 취미로 인식되어 대중화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의 시행(2016년)으로 선물용 고급 분재시장이 위축되어 분재 생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분재 수요 침체에 더하여 생산자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에 따라 분재생산자의 폐업이나 업종 전환 등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2.2.2. 재배규모

산림청의 임업경영실태조사(2016)를 보면 2015년 한해 분재를 재배한 실적이 있는 임가는 474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분재생산자의 평균 재배본수는 12,552

표 2-6. 연도별 분재 생산 및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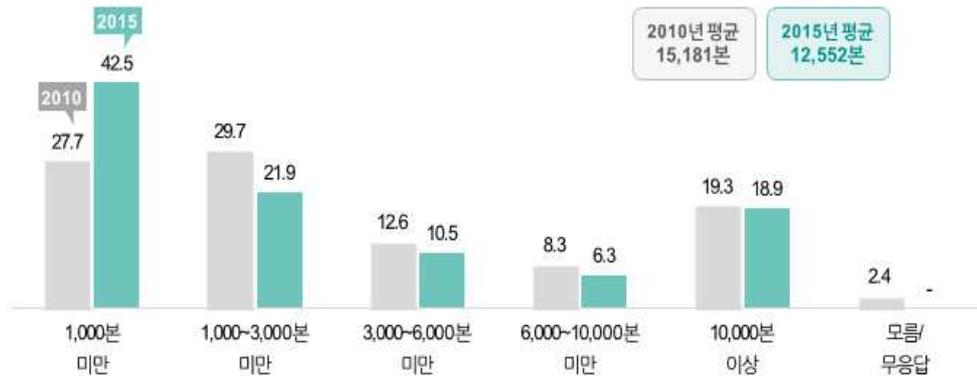
단위; 천 본, 백만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분재 소재	수량	1,156	1,004	1,299	1,279	2,409	1,102	891	1,308	431	378
	금액	14,595	13,864	20,112	18,892	26,476	20,155	24,407	18,598	4,607	11,228
분재 완재	수량	295	290	234	238	192	215	182	96	94	201
	금액	14,013	15,315	15,934	9,749	9,729	10,671	10,564	4,252	5,831	10,027

자료: 임업통계연보.

그림 2-8. 분재생산자의 재배본수 분포

단위: %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보고서(2016)

본이다<그림 2-8>. 생산자의 42.5%가 1천 본 미만 재배규모에 속하며, 1만 본 이상의 재배규모를 가진 생산자는 18.9%이다. 2010년과 비교하면 중간규모 재배자의 수가 줄고 소규모 재배자 수가 늘었다.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 재배면적은 4,098㎡인데, 생산자의 47.0%가 1,655㎡ 미만의 재배규모에 속하며 20,178㎡ 이상의 재배규모를 가진 생산자는 2.3%에 불과하다. 대부분 생산자들의 재배규모가 크기 않기 때문에 전업 분재생산자는 28.1%로 나타났다. 분재 재배업의 총수입은 3,069만 원으로 2010년 조사(6,690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임업경영실태조사(2016)는 향후 경영의사도 질문하였는데,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55.2%, ‘줄일 것이다’ 27.0%, ‘중단할 것이다’ 8.3%로 나타나 분재 생산업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음을 보여준다. 경영규모를 줄이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판로의 불확실’ 51.2%, ‘낮은 수익률’ 25.0%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분재 생산업이 성장하는 데 새로운 시장 개척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분재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활동과 함께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시장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 2.2.3. 수종별 재배본수

임업경영실태조사(2016)에 나타난 수종별 분재·분재소재 생산본수는 <표 2-7>과 같다. 가장 많이 재배되는 분재 수종은 소나무이며 그 다음이 소사나무, 모과나무, 명자나

표 2-7. 분재 재배 수종의 분포

	1위	2위	3위	4위	5위
2010년	소나무 (17.1%)	소사나무 (11.7%)	단풍나무 (6.2%)	모과나무 (5.8%)	철쭉 (5.5%)
2015년	소나무 (18.0%)	소사나무 (9.1%)	모과나무 (7.0%)	명자나무 (5.8%)	철쭉 (5.8%)

자료: 2015 임업경영실태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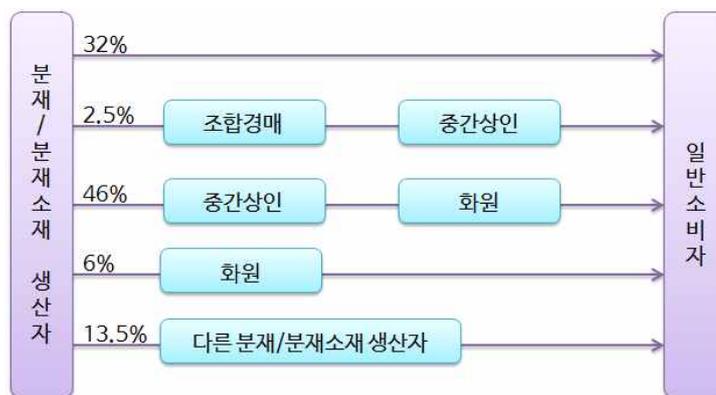
무, 철쭉이다. 상위 5개 수종이 45.7%를 차지하고 있지만 3위 이하 수종의 비중이 대체로 5% 정도에 머물러 매우 다양한 수종이 분재소재로 재배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분재는 수령과 수형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수령에 따른 분포가 나타나지 않아 어느 정도 수출가능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1~3년생 분재는 수출 상품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에 관한 통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 2.3. 유통

분재 유통은 전문 애호가 중심의 전통 분재와 일반 대중용의 소분재로 나뉜다. 분재의 유통경로는 화훼의 경우와 비슷한데 크게 5가지로 나타난다<그림 2-9>.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로는 중간상인에 의한 거래(46%)이며, 소비자 직거래도 약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재 소재를 생산하여 다른 분재생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분재·분재소재의 주요 유통경로



자료: 산림청(2007)

표 2-8. 분재의 판매처 비율

단위: %

판 매 처	연 도	
	2010	2015
수집상	10.9	17.6
도소매상	44.3	35.4
백화점	0.1	-
수출상	2.5	0.8
화훼상	2.4	6.0
시장판매	16.3	6.3
시장외 직거래	19.2	26.1
기타	4.3	7.4
계	100.0	100.0

자료: 2015 임업경영실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2016)의 분재생산자 판매처 조사에서도 도매상(35.4%)과 수집상(17.6%)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2010년과 비교하여 도소매상 판매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외 직거래(26.1%)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수의 분재생산 농가들이 분재 완성품과 분재 소재를 동시 생산하면서 분재판매장을 설치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외 직거래와 수집상 판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시장 판매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시장을 통한 중저가 상품의 유통이 줄고 애호가 중심의 고가 상품 유통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재 수출상에게 판매한 비중은 원래 많지 않았지만 더욱 낮아졌다. 선도적 분재 생산자의 수출 시도는 있었지만 지속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2.4. 수출

분재·분재소재를 수출하거나 수출경험을 가진 생산자는 많지 않다. 산림청(2007)에서 분재 수출경험이 있는 일부 생산자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프랑스 영국 등)에 수출한 경험이 있으며, 수종으로는 단풍나무와 송백류, 소사나무가 주종이다. 완성품인 예술분재는 수출하지 못하였고 주로 2~4년생 분재소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재소재의 수출은 부가가치가 크지 않으면서 식물 수출의 번거로움이 많기 때문에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2.5. 가격

상품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다. 분재의 가격은 수종과 수형, 수령, 크기, 예술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국내 유통의 분재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몰에서 제시되는 가격을 탐색하였다<표 2-9>. 일반 분재와 소품 분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대체로 분재는 일반 관엽식물보다 높은 가격을 보인다. 분재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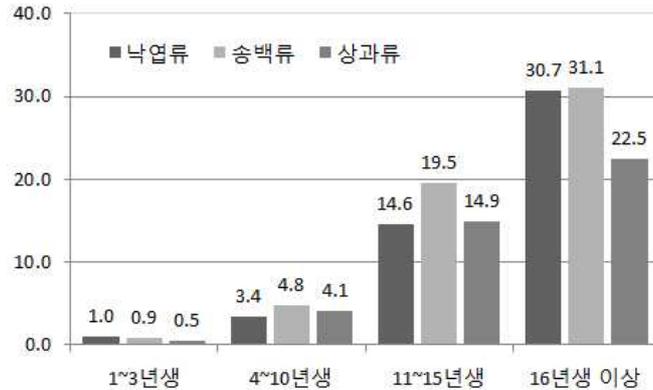
임업경영실태조사(2016)에서 분재 재배업 임가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바 있는데, 수령이 높을수록 판매가격이 크게 높아진다<그림 2-10>. 어느 정도 수령의 분재를 수출할 것인가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다. 어느 그룹의 소비자를 타깃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국 인터넷 몰에서 판매되는 분재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가의 대중소비형 분재는 경쟁력이 낮다고 생각된다. 중저가 분재를 수출하고자 한다면 특색있는 화분을 사용하거나 중국에 없는 우리 고유 수종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표 2-9. 분재의 가격 동향

			
피라칸사(40×48) 195,000원	느릅나무(20×30) 39,000원	좁눈향(33×30) 55,000원	진백(32×45) 90,000원
			
(소품)단풍(22×25) 45,000원	(소품)단정화(22×22) 39,000원	(소품)홍자단(17×25) 39,000원	(소품)영춘화 32,000원

자료: 충무분재예술원(<http://bunjaeshop.com/>)

그림 2-10. 분재 재배자의 수령별 분재 판매가격  
단위: 만 원/본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2016)

## 2.6. 분재의 수출역량

우리나라 분재업계는 중국으로 분재를 수출할 수 있는 상품과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국내 생산하는 분재에서 소나무 분재가 가장 많지만 중국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모과나무, 소사나무 분재도 많이 있다. 다만 분재 수령에 대한 통계가 없어 어느 정도 수량의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분재업계에 따르면 모과나무, 피라칸사, 낙상홍 등 중국에서 선호도 높은 고급분재는 다수 있다고 한다. 중국의 분재 애호가들도 한국 분재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자원은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재 생산의 규모가 적고 영세하여 생산기반이 충분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다만 중국으로 분재를 수출하는데 흠만 제거하면 되므로 대규모의 격리재배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여러 재배자에게서 수집한다면 수출 물량을 갖추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분재는 흠 없이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검역에 대응하는 것도 용이하다.

관건이 되는 것은 상품성이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수형과 수령을 갖춘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배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흔하지 않는 수종으로 오랜 시간 공들여 멋진 수형을 갖춘 분재 작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의 조형 기술을 과시하면서 한국적인 미(美)를 표현한 분재 작품이라면 그 가치가 배가될 것이다.

### 3. 조경수와 분재의 수출입 동향

#### 3.1.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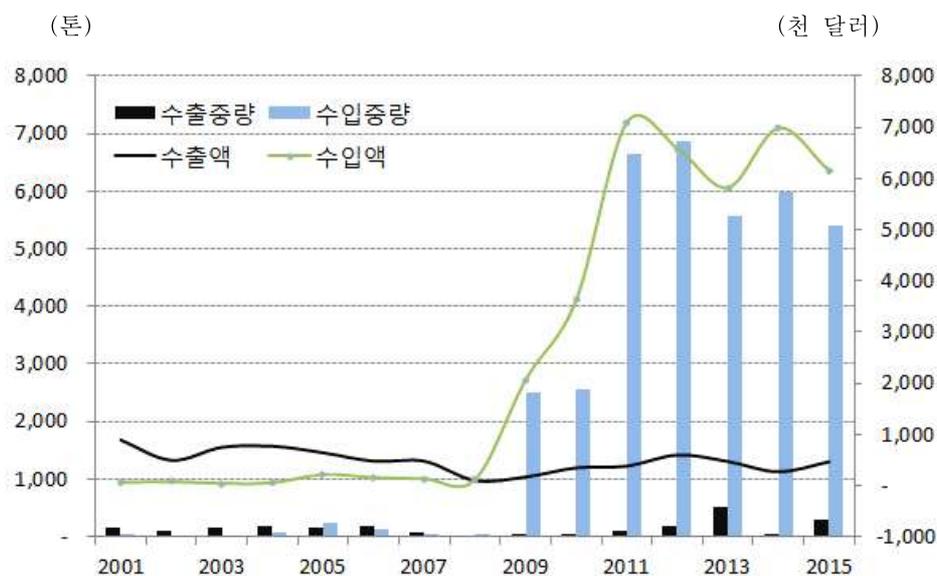
조경수와 분재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수종도 다양하여 이를 하나의 HS 코드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살아있는 식물이라는 특징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지 아니하여 HS 분류코드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목의 HS 분류코드는 <표 2-10>과 같이 정리된다. 대형 조경수와 소형 분재도 구분하기 어렵고 수종에 대한 정보도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2-10. 수목의 HS 분류 코드

부 2	류 06	품명 02	90	20		
식물성 생산품	살아있는 수목 과 그 밖의 식 물, 인경·뿌리 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그 밖의 살아있는 식물(뿌리를 포함 한다), 꺾꽂이용 가지, 접붙임용 가지, 버 섯 종균	기타	산림수	1	소나무
					11	분재용
					19	기타
					20	낙엽송
					30	삼나무
					40	편백
					50	리기테다
					6	단풍나무
					61	분재용
					69	기타
					7	소사나무
					71	분재용
					79	기타
					8	느티나무
					81	분재용
					89	기타
90	기타					
91	분재용					
99	기타					

자료: 관세청

그림 2-11. 산림수목의 수출입 동향



주: HS 코드 0602.902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2-11>는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산림수목의 수출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산림수목의 수입액은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매년 600만 달러 이상에 이르지만 산림수목의 수출은 5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2013년 산림수목 수출량이 잠깐 증가하였지만 이후 미미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림수목의 수출에서 분재용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보인다.

수출입 되는 식물의 종류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수출입 식물이 산림수의 기타(0602.902099)로 분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종보다는 다소 특이한 수종이 수출입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2. 국가별 수출입 동향

주요 국가별 산림수 수출입 동향을 정리한 것은 <표 2-11>이다. 수입되는 산림수목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온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목 수입액의 70%를 차지한다.

수목 수출에서는 대만의 비중이 크다. 2013년 중국으로 수목 수출이 있었지만 2015년

표 2-11. 주요 대상국별 수목 수출입 현황

구분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수량 (톤)	금액 (천 달러)	수량 (톤)	금액 (천 달러)	수량 (톤)	금액 (천 달러)
수출	전 체	512	470	51	270	284	466
	대만	220	78	-	-	195	157
	네덜란드	6	41	-	-	16	112
	스페인	14	78	6	43	7	59
	독일	10	76	11	59	2	22
	이탈리아	-	-	10	65	-	-
	카자흐	-	-	-	-	59	41
	중국	261	196	14	31	-	-
	기타	1	1	10	72	5	75
수입	전 체	5,572	5,821	5,980	6,984	5,398	6,152
	중국	4,041	4,468	4,532	5,611	3,561	4,303
	인도네시아	874	410	1,082	670	1,284	830
	코스타리카	94	243	50	203	111	360
	대만	302	232	188	147	230	197
	일본	1	20	20	154	2	123
	기타	260	448	108	199	210	339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주: HS CODE 기타의 산림수 0602.9020

에는 전혀 없다. 기타 유럽 국가와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동남아 또는 중앙아시아에도 일부 수목 수출이 진행된 바 있지만 그 수량과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일부 선구적인 분재 생산자들의 노력으로 일부 분재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베트남 등으로 수출된다. 직접 중국으로 수출되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베트남이나 대만 등으로 수출되는 분재가 우회하여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수목 수출입 현황을 보아도 우리나라 수목 수출의 경쟁력은 매우 낮다. 이러한 추세로 진행되면 국내 조경수와 분재는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조경수는 우리 생활 환경 조성에 꼭 필요하고 분재도 예부터 이어온 전통문화로 본다면 수목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목 수입의 증가에 대응하여 수출 진흥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4. 조경수와 분재 수출 사례

### 4.1. 제이디산업의 주목 수출<sup>2</sup>

#### 4.1.1. 개요

제이디 산업과 주목 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첸강그룹은 산둥성 영성시에서 농림산물을 유통하는 회사이다. 첸강그룹은 한국산 주목을 수입하고자 2014년 8월 방한하였다. 당시 국내 조경수 산업은 건설경기 하락과 맞물려 동반 침체하는 상황이었으며, 수요 하락과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국내 상황은 주목 구입을 매우 용이하게 했으며, 가격에서도 중국 바이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충분하였다.

제이디 산업은 세종시 전이면을 포함하여 강원도, 경기도, 충북의 주목을 실사하도록 주선하였다. 첸강그룹 관계자는 세종시 전이면의 주목에 관심을 보였다. 2014년 10월 주목 시범 수출사업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당해 12월에 1차 시범 수출, 2015년 4월 2차 시범 수출하였다<표 2-12>.

첸강그룹은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산 주목의 이식 성공 여부를 시험하고자 했으며, 제이디 산업은 시범 수출 과정에서 수차례 조경 전문가와 중국 현지 이식 현장을 시찰하고 주목 재배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당시 중국에도 주목 이식에 대한 전문 인력이나 정보는 거의 없었다. 1차와 2차 시범사업에서 주목 이식은 43%의 활착률을 보였다. 2015년 8월 제이디산업과 첸강그룹은 정식으로 2년간 3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11월과 12월에 17,500주를 선적하였다.

<sup>2</sup> 제이디산업 유양훈 대표에 위탁하여 작성함.

표 2-12. 제이디산업의 주목 수출 경과

일 시	경 과	규격 및 수량
2014.07	중국 목재 수출입 바이어로부터 주목 수입 의사 확인	
2014.10	산둥성 첸강그룹과 주목 수출 시범사업 MOU체결	
2014.12	주목 1차 수출	(수령8~10년) 10,000주 (높이1~1,5m)
2015.04	주목 2차 수출	(수령2~3년) 10,000주 (수령8~10년) 8,000주
2015.08	주목 300만불 수출 계약(2년간)	
2015.11/12	주목 3차 수출	(수령10~12년) 15,000주 (수령20~25년) 2,500주
2016.11	주목 수출 예정	(수령10~12년) 20,000주 예정

#### 4.1.2. 수출절차 (제이디 산업)

수출업체의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중국 바이어(첸강그룹)와 계약하고, ②국내에서 수출할 주목을 선정하고 계약한다. ③국내에 작업장을 설치하고 작업인원을 교육하는데, 중국 측 메뉴얼대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주목을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흙을 제거하고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토양 병해충과 식물 병해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를 살포한다. 무균 인공토(피트머스)로 싸서 인공토양을 만들어 준다. 이 때 수분증발 억제제를 함께 사용한다. ④냉장 컨테이너에 적재하는데,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⑤원산지 증명서를 취득한다. ⑥재배지 검사증명서를 취득한다. ⑦식물검역증명서를 취득한다. ⑧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를 작성한다. ⑨식물수출검사증명서를 취득한다. ⑩한중 페리선(여객선)에 선적하였다. 13시간 내에 중국 연태항에 도착하여 주목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여객선은 상대적으로 통관 시간이 짧다(화물선 3일 소요). 해상운임은 비싼 편(화물선의 2배)이다. ⑪수출통관을 완료한다.

#### 4.1.3. 수입절차 (중국 : 첸강그룹)

중국 수입업자의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중국 입업국에 주목 수입의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는다. 수입허가증 발부에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주목 같은 특수목은 정부 관리들과 판시가 형성된 힘 있는 바이어만이 허가받는 실정으로 파악된다. ②중국 토지국에 격리재배 토지수용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는다. ③중국 입업국 등에 면세 지정품목을 신청하여 승인받는다. ④검역총국에 무균 인공토(피트모스) 사용을 신청하여 승인받는다. 샘플 2-3kg을 중국검역총국으로 발송하여 검역을 받으며 검역총국에서 통과된 피트모스만 사용가능하다. ⑤한국에서 수입한 주목이 연태항에 도착하면 통관업무를 진행하는데, 당일 완료하였다. ⑥검역총국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⑦통관이 완료되면 지정된 격리재배지(산둥성 영성시)로 이동한다. ⑧격리재배지에서 병해충 검사(뿌리, 줄기, 잎)를 실시한다. ⑨병해충 검사가 완료되면 이식할 수 있다.

#### 4.1.4. 애로사항

첫째, 수출시기의 제약이다. 주목의 생육 휴면기인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작업이 가능하지만 동절기 땅이 얼거나, 눈, 비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연중 수출이 가능한 기간은 3개월 이하다 보니 많은 양의 주목을 수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검역조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식물 검역에서 뿌리의 흙을 완전 제거하기 위해 털고, 세척하는 과정과 피트모스로 인공토양을 만들어 포장하는 등 까다로운 검역조건을 맞추다 보니, 생명점이라 할 수 있는 뿌리의 손상이 커 이식후 활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현지 활착률이 저조하다보니 중국 수입업체는 중대형목보다 수입 단가가 낮은 묘목을 수입하거나 직접 파종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대형목은 토양을 붙여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에 이식하여 활착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검역에서 흙을 제거해야 하는 조건이 변할 수 없다면 식물성장에 유리한 무균 인공토양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셋째, 높은 부대비용이다. 나무 구입비용에 비하여 작업비와 운송비 등 부대비용이 나무 가격의 2배 이상이 지출되어, 전체 가격 상승과 초기 비용의 부담을 가져온다.

넷째, 정부차원의 물류비등 지원사업의 부족한 홍보이다. 제이디 산업은 주목을 수출한 후에 우리나라 산림수목의 수출코드(HS 코드) 0602.9020이 아닌 0602.9090(기타)으로 수출하여 실제 주목이 산림수목임에도 불구하고,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는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부재로 지원 신청도 하지 못했다. 수출과정에서 여러 유관기관(산림조합, 검역본부 등)을 통했음에도 어떠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수출 후 산림청으로부터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장에서 중국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산림조합이나 조경수협회에 생산자와 연결된 유관기관들의 정보 제공 및 역할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도움이 없었던 점은 아쉬웠다.

다섯째, 조경수 수출작업을 전담할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생산 집하장을 형성하여 흙의 제거부터 인공토양 이식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업을 전담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현지에서 이식할 때도 전문 인력이 파견되어 현지토양의 특성을 파악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전수함으로써 활착률 제고에 도움을 줄 전문 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 제이디 산업은 조경수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정보를 가진 업체가 아니므로, 수출입 관련한 업무 외에 주목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 4.2. 대신원예의 분재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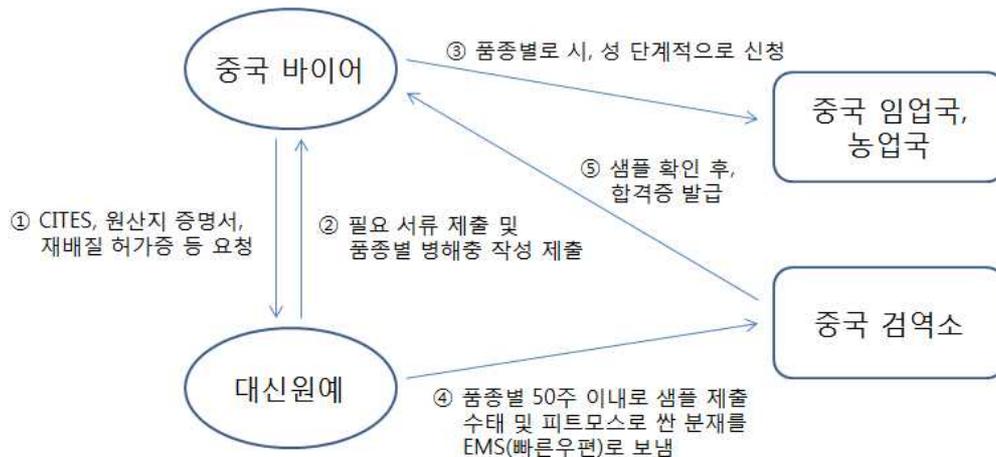
### 4.2.1. 개요

대신원예는 도자기와 분재, 난, 다육식물 등을 접목시켜 하나의 상품으로 완성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고양 국제 꽃박람회,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등 박람회 참여를 통해 홍보 및 판매하고 있으며, 해외 박람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도자기는 이천과 여주에 주문하여 받는다. 분재는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 국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좋은 분재를 사오기도 한다. 취급하는 수종은 향나무, 진백, 단풍, 모과, 해송, 장수매, 피라칸사 등 매우 다양하다.

대신원예가 접촉하는 바이어는 중국 청도, 광저우, 닝보, 상해에 있으며, 전시회 방문을 통해 대신원예 영문 카탈로그 자료를 배포하면서 홍보하였다. 첫 수출은 2015년 12월 중국 청도 K업체와 진행하였고, K업체는 난과(蘭科) 식물과 다육식물에 인허가를 가지고 있어 난(긴기아난, 석곡 등) 500주, 다육(에케베리아 등) 500주를 시범 수출하였다. 대신원예는 도자기와 함께 완제품으로 부가가치화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였다.

중국에서는 수형이 특이한 미니 분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득이 높은 대형 조경수 또는 분재보다 꾸준히 수요가 있는 미니 분재를 수출하는 것이 소득창출에

그림 2-12. 대신원예의 수출 진행 과정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수종, 크기, 수형 등을 조사하여 어느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4.2.2. 수출입 절차 (대신원예)

대신원예는 박람회 참여를 통해 중국 바이어와 접촉하였다. 중국 바이어는 우리나라 분재 샘플에 대한 중국 소비자 선호 관찰 및 관심도가 높은 품종별로 주문하였다. ①중국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고, ②수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흙 제거 작업, 세척 작업(필요 시 에어처리), 살충 및 살균 작업을 실시한다. 육안으로 상처나 구멍, 벌레, 알 등 일일이 확인하여 제거하는 작업이다. 흙 대신 피트모스와 수태로 채운다. ③중국으로 보낼 품종을 한국 검역본부에 알리면 직접 와서 확인하고 식물검역증을 발급한다. ④CITES와 원산지 증명을 취득하여 미리 중국으로 보낸다. ⑤재배매질(수태, 피트모스) 검사 증명서를 취득한다. ⑥냉장 컨테이너에 적재하며 인천 항구까지 FOB로 한다. ⑦인보이스, B/L, 팩킹리스트 등을 작성하며, 우리나라 검역본부에 확인한다. 물건을 보내기 전에 결제금은 100% 선금지급으로 하였다.

한편, 수입자의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입하고자 하는 품종은 모두 중국 검역소로 50주 이내 샘플을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격리재배를 실시한다. 대신원예는 현재 20개 품종에서 4개 품종에 대해 수출자격을 취득하였다. 2016년 12월 청도에서 다육식물, 난 5품종에 대해 격리재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출 허

가를 받더라도 격리재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현미경 검사 후 통과되는 경우가 있고, 격리재배를 거친 후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 4.2.3. 애로사항

첫째, 분재의 경우 조경수에 비해 뿌리 활착의 어려움이나 흙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중국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등 진행 과정이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수출 진행에서 어려운 점일 수 있다.

둘째,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문 재배시설이 필요하다. 분재나 조경수를 수출할 때 흙은 수출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재배 단계부터 토양이 아닌 수태 혹은 인공토양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전문 재배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에서 격리재배를 할 경우, 지면 1m 위에서 격리재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미리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재배 단지에서 적어도 60cm 이상 높은 곳에 보관하며 재배해야 한다.

끝으로 대중국 조경수 수출을 위한 물류비 보조, 바이어 초청 등의 지원보다는 실질로 수출이 가능한 업체, 수출에 의욕적인 업체를 선정하여 서류 준비부터 수출까지 전폭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4.3. 조경수·분재 수출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시험 설계<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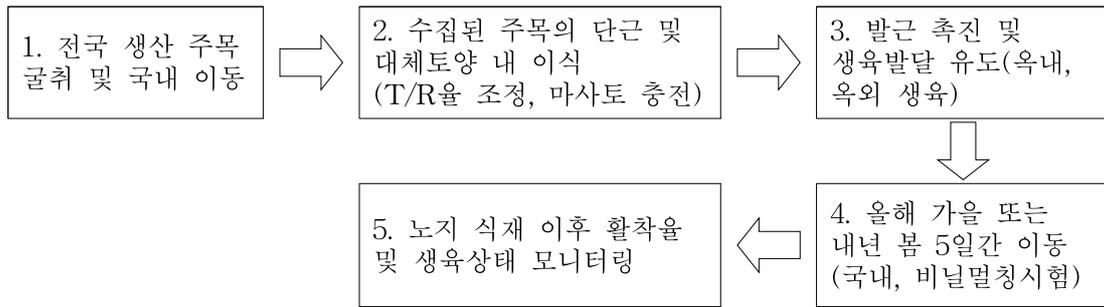
### 4.3.1. 연구배경 및 목적

토양을 모두 제거시킨 후 중국으로 수출되었던 주목의 현지 활착률이 20~50%로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산림청 임업통상팀의 협조요청 공문을 수령(2016.06.09.)함으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주목 조경수를 수출 대기 상태에서 중국 반입이 허가된 대체토양(생장매체) 생명정 등으로 분을 조성하여 이식단계까지 최적 생육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수출 조경수의 현지 활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기법 개발과 확대 보급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sup>3</sup>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수행 연구과제의 내용인데,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부로서 소개함.

그림 2-13. 수출용 주목생산 시험 단계별 흐름도 및 시뮬레이션



#### 4.3.2. 실험내용

- 1) 수출대기 단계: 전국에 산재한 주목을 굴취단계에서 뿌리 흙 제거, 단근, 대체토양 적용, 분 조성 및 사후관리에 의한 뿌리발달 촉진에 의한 최적 생육상태 유도 실험(<그림 2-13>의 1~3단계).
- 2) 수출실행 단계: 올해 가을과 내년 봄 주목 수출을 목표로 관련 국내 모의시험(이동 소요기간 5일 이후 식재)을 실시하여 일련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 및 시험처리별 활착률 및 생육상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적 생육상태 유지기법 개발(<그림 2-13>의 4, 5단계).

#### 4.3.3. 실험재료

- 1) 주목: 수고 1.5m~2.5m. 비교적 생장이 왕성하여 시험처리 효과 관찰이 용이한 크기를 선정함.
- 2) 대체 토양: 조정수 수입허가 된 대체 토양(생명정 1종)과 토양 제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마사토(마사토 1종) 충전.
- 3) 분: 플라스틱 분(분의 배수구, 측구 등 구조적 형태 조성)

#### 4.3.4. 실험처리

- 토양 2처리(마사토, 생명정)×배치환경 2처리(옥내, 옥외)×춘기 이동방법 2처리(비닐 멀칭 등 유무)

- 전 수목 공통 처리 : 주목의 엽 수분 증발 방지 코팅제(클라우드 커버) 분사 처리, T/R율 조정(단근처리), 발근제(그린리프) 사전처리 실시
- 분 제작: 친근성 수종인 주목의 T/R율 고려 (뿌리량 확보 위해 넓은 분 제작 활용)
- 마사토: 토양 배수, 토양 호흡 증진 효과에 따른 뿌리발달 유도 및 촉진 효과 시험
- 비닐멀칭 처리: 수목 이동기간으로 예상되는 약 5일간 수분 공급이 어려우므로 적정 수분유지를 위한 수목의 비닐 멀칭 (단, 고온에 의한 수목 피해 고려)

#### 4.3.5. 현재까지 진행 및 생육상황

- 8월~9월: 주목 조경수 이식(충북 증평군 생산묘의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배치)
- 9월 말: 주목조경수 이식시험 처리 후 태풍 도복목 미발생(9월~10월)
- 11월 초: 목은 앞의 탈락화 현상 진행 후 T/R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섬

#### 4.3.6. 제언

생육단계별 수차례 이식으로 체계적인 단근 및 뿌리 발달을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시점의 중국 수요를 잘 빠르게 겨냥한 국내 주목의 수출을 위해서는 한정된 시간에 활착률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시험설계에서는 해당 연구목적과 범위를 이상과 같이 제안한다.

#### 4.3.7. 예상 결과 및 기대효과

수출용 조경수의 저조한 현지 활착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단근 이후 대체토양의 적절한 이용, 뿌리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마사토 처리법, 발근제 처리법, 그리고 통풍 등 주변 생육환경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결과 및 해당 생산 기술 개발 내용은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내 조경수의 중국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

## 제3장

### 중국의 조경수·분재 시장 현황

#### 1. 조경수 시장동향과 유통<sup>4</sup>

##### 1.1. 도시개발과 녹화 수요<sup>5</sup>

중국은 국토에서 녹지면적이 많지 않은 편이다. 북경시 교외에는 암석이 많은 산간지이며 녹지 대부분은 조림으로 조성한 것이다. 중국에서 시장경제의 확산과 도시 발전의 가속화로 도시 녹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북경 올림픽(2008년)에 대응하여 시내와 공항 등의 도로 주변을 녹화하였으며 상해 엑스포(2010), 항저우 G20 회의(2016) 등 대형 국제 행사가 이어지면서 도시 조경과 녹지 조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다양한 녹화수종에 대한 요구와 수요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먼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경우를 살펴본다. 원림녹화국의 「베이징시 녹지 보호 및 이용 계획(2010-2020)」의 제1장 2절 ‘녹지자원 현황’에 따르면, 2009년 베이징 시의 녹지 면적은 101.96만ha에 이르며, 이 가운데 산림은 64.32만ha로 녹지의 63.1%를 차지한

<sup>4</sup> 조사내용의 일부를 정리하여 『세계농업』 195호(2016.11)에 게재하였음.

<sup>5</sup> KOTRA 조사내용임.

표 3-1. 베이징시 녹지자원 현황

단위: 만ha, %

구분	산림면적	소림지	관목지	미성림 조림지	묘목지	무림지	의림지	계
면적	64.32	0.55	30.55	1.99	0.85	0.43	3.27	101.96
비율	63.1	0.5	30.0	2.0	0.8	0.4	3.2	100

- 주 1. 미성림조림지(未成林造林地): 조림 후 3~5년 혹은 파종 후 5~7년 사이의 조림지.  
 2. 무림지(無立木林地): 벌목이나 자연재해로 활목수가 소림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녹지.  
 3. 의림지(宜林地): 조림하기 적합한 토지.  
 자료: 베이징시 원림녹화국(北京市園林綠化局), 베이징시계획연구회(北京市規劃委員會)

다<표 3-1>. ‘녹지의 이용’ 구분에 의하면, 전체 녹지에서 관목지가 30.55만ha로 3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의림지 3.27만ha, 미성림 조림지 1.99만ha, 묘목지 0.85만ha, 소림지(疏林: 나무가 듥성듬성한 숲) 0.55만ha 순이다. 제1장 2절 2조 ‘공간 분포’에 따르면, 베이징시 녹지는 산간, 평원, 도심으로 나뉘는데, 산간의 녹지면적은 86.69만ha로 도시 녹지면적의 85%를 차지한다. 평원은 10.37만ha로 10.2%, 도심은 4.90만ha로 면적의 4.8%를 차지한다.

베이징시는 2009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녹지 면적은 101.96만ha에서 104.01만ha로 증가시키고자 하는데 이 가운데 산림은 64.32만ha에서 73.93만ha로 증가시키고자 한다. 또, 도심 녹지율은 2009년 기준 45%에서 2020년 48%로, 중점 공익 녹지율은 32.4%에서 44.3%로, 산지 산림 건강비율은 30%에서 60%까지 증가시키려 하는 녹지화 목표 수치를 제시하였다<표 3-2>. 2016년 베이징의 산림녹화의무는 16만 묘, 850만 그루의

표 3-2. 베이징시 2020년까지의 녹지화 목표 지수

단위: 만ha, %

항목	2009년	2020년
전체 녹지 면적	101.96	104.01
산림 면적	64.32	73.93
도심 녹지율	45.0	48.0
중점 공익 녹지율	32.4	44.3
산지 삼림 건강비율	30.0	60.0

자료: 베이징시 원림녹화국(北京市園林綠化局),  
 베이징시 계획연구회(北京市規劃委員會)

표 3-3. 다렌 조경수 종류와 적응현황

유형	종류 수	수목 종류		수목 적응 현황	
		낙엽	상록	성장양호	자주이용
교목	221	185	36	126	34
관목	196	167	29	112	35
덩굴나무	29	29		27	7
참대나무	7		7		
계	453	381	72	265	76

자료: 百度文庫

나무를 심는 것이 계획이다. 이 계획은 상반기에 80%를 달성하였다.

다음으로 다렌을 살펴보자. 다렌 도심은 요동반도 남쪽 끝에 위치하며, 온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무더위가 없고 겨울에는 엄동설한이 없다.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크고, 물 자원이 부족하여 요녕성에서도 수자원이 부족한 도시에 속한다. 주요 토양 종류는 5가지인데, 주 토양인 갈색토는 주로 산지 언덕의 중상부에 분포하며 토층은 얇고 토양 비옥도가 낮다. 산지 언덕의 아래 부분은 축축한 아시아 갈색토로서 토양 비옥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습지토는 하류 하부 양측에 분포되고 빈해염토, 소택토, 풍사토는 연해지역에 분포한다. 이렇듯 다양한 토양이 섞여있어 토양이 잘 굳기 때문에 토양 내부의 공기순환이 어려워져 식물이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도 다렌의 식생 유형은 따뜻한 온대 침엽·활엽수 혼합림이다. 현재까지 보유하는 수종에서 원림수목은 62과이며 그 종류는 453가지에 달한다. 다렌시는 구릉 지대로서 일부는 산지에 속한다. 도시의 발전과 건축지역의 지형 정리에 때문에 비교적 많은 비탈길과 옹벽이 형성되었고, 이 때문에 녹화식물은 각종 덩굴성 식물이 필요하다.

다렌 시 정부는 이미 중점 녹화 공정을 확정했다. 뉴타운과 중심지 등 중점구역에 대한 생태경관녹화, 살기에 적합한 시골 마을과 도로에 대한 녹화공정, 황산조림, 경제림건설, 삼림보육, 바위생태 관리 등의 공정이 있다. 조림 녹화에 대한 필요한 자금은 정부투자, 기업투입, 사회노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마련하며, 올해 3.5억 위안을 조림녹화 공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렌은 덩굴나무 29종 보유하고 있는데,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는 종류는 27종류이고, 평소에 근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종류는 7가지이다. 다렌 지역의 원림 수목 종류와 원림 수목 적응현황은 <표 3-3>과 같다.

다렌은 특수한 지형 때문에 공원, 아파트단지, 광장, 도시도로 등 장소에 따라 녹화 수

그림 3-1. 다렌 공원 경관



종 및 녹화 효과에 대한 요구가 각기 다르다.

먼저, 공원경관을 살펴보자. 1982년 총체적인 녹화계획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傅家庄公園(부가장공원), 年籠山公園(넨룽산공원), 光明公園(광명공원) 등 11곳에 새로운 공원을 건설하고 勞動公園(노동공원), 虎灘公園(호탄공원), 星海公園(성해공원) 등 기존 공원의 확장건설 및 森林動物園(삼림동물원)의 재건설로 262.28만ha의 녹화 면적을 추가하였다. 다렌의 공원은 대부분 비영리인데, 대표 공원이 노동공원이다. 노동공원은 다렌시의 변화가에 위치하며 도시의 “녹색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공원은 일본 통치기에 일본인 묘지공원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가장 많은 상록식물이 식재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시민들의 오락 장소로 변경되면서 일부 상록 식물을 옮겼고, 조경을 목적으로 기타 조경수를 운용하여 조경수의 특성과 계절의 변화를 결합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그림 3-1>.

그림 3-2. 다렌 아파트단지 경관



그림 3-3. 다렌 도시도로 경관



아파트단지 경관에서도 변화가 있다. 과거 다렌시 아파트단지의 경관 설계는 다소 단조로웠지만 최근 들어 중국 내 부동산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아파트단지 식물 경관 설계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고급 아파트단지에서 주로 大叶黄楊(큰 잎 회양목), 紫叶小檗(즈예쇼보), 東北連翹(똥베이렌초), 金叶女贞(찐예늬쨌), 丁香(라일락) 등의 관목 꽃을 많이 사용한다<그림 3-2>.

도시도로 경관현황을 보면, 다렌시 정부는 도시 도로 주변에 法桐(버즘나무), 泡桐(오동나무), 銀杏(은행나무), 毛白楊(털사시나무), 國槐(국회화나무) 및 北京楊(북경백양) 등 규격이 일정한 수종을 식재하였으며, 도로 미화 수준을 한층 더 올리기 위하여 中山路(중산로), 人民路(인민로), 五一路(오일로), 高爾基路(고을지로), 黃河路(황하로) 등 중점 도로에 丁香(라일락), 連翹(개나리), 木瓜(모과) 및 黃楊(회양목) 등 관목과 화초 그리고 잔디를 식재하여 사실상 도시 도로에서는 흙을 거의 볼 수 없다<그림 3-3>.

이러한 사회경제 분위기에 따라 조경수 산지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좇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다. 조경수 생산지는 북부와 남부로 크게 나뉜다. 남부 최대 생산지는 저장성 항저우이고, 북부 최대 생산지는 하남성 일대이다.

주요 조경수와 분포 지역을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 중국의 주요 조경수 수종 및 분포 지역

구분	수종	주요 분포지역
상록 교목	樟樹 <i>Cinnamomum camphora</i> (L.) Presl.	저장, 푸젠, 장시, 타이완, 후베이, 후난, 광둥, 윈난 등
	女貞 <i>Ligustrum lucidum</i>	장강유역 및 남방각성, 화북, 서북 등
	廣玉蘭 <i>Magnolia Grandiflora</i> Linn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장시, 산둥, 타이완, 허난, 광둥, 광시 등
	雪松 <i>Cedrus deodara</i> (Roxb.) G. Don	장강 중하류, 히말라야서부
	五針松 <i>Pinus parviflora</i>	장강 중하류, 남부 난온대지역
	羅漢松 <i>Podocarpus macrophyllus</i>	장쑤, 저장, 푸젠, 안후이, 장시, 후난, 쓰촨, 윈난, 구이저우, 광시, 광둥 등
	龍柏 <i>Sabina chinensis</i> (L.) Ant. cv. Kaizuca	내몽고, 허베이, 산서, 산둥, 장수, 저장, 푸젠, 안후이, 장시, 허난, 섬서남부, 간쑤남부, 쓰촨, 후베이서부, 후난, 구이저우, 광둥, 광시 북부, 윈난 등
낙엽 교목	楝樹 <i>Melia azedarach</i> L.	랴오닝, 베이징, 허베이, 산서, 섬서, 간쑤, 산둥, 장쑤, 안후이, 상하이, 저장, 장시, 푸젠, 타이완, 허난, 후베이, 후난, 하이난, 광둥, 광시, 쓰촨, 구이저우 윈난, 시장 등
	合歡 <i>Albizia julibrissin</i> Durazz.	화둥, 화남, 서남 및 허베이, 허난, 섬서, 간쑤, 타이완 등
	喜樹 <i>Camptotheca acuminata</i> .	장쑤 남부, 저장, 푸젠, 장시, 후베이, 후난, 쓰촨, 구이저우, 광둥, 광시, 윈난 등
	垂柳 <i>Salix babylonica</i>	장강유역과 황하유역
	白玉蘭 <i>Michelia alba</i> DC.	푸젠, 광둥, 광시, 윈난 등
	銀杏 <i>Ginkgo biloba</i> L.	산둥, 저장, 장시, 안후이, 광시, 후베이, 쓰촨, 장쑤, 구이저우 등
	鵝掌楸 <i>Liriodendron chinense</i>	섬서, 안후이, 저장, 장시, 푸젠, 후베이, 후난, 광시, 쓰촨, 구이저우, 윈난, 타이완 등
상록 관목	蘇鐵 <i>Cycas revoluta</i> Thunb.	광둥, 광시, 하이난, 푸젠, 윈난, 구이저우, 쓰촨 등
	杜鵑花 <i>Rhododendron simsii</i> Planch.	장쑤, 안후이, 저장, 장시, 푸젠, 타이완, 후베이, 후난, 광둥, 광시, 쓰촨, 구이저우, 윈난 등
	茶花 <i>Camellia japonica</i>	중부 및 남방의 각 성시
	含笑 <i>Michelia ligo</i>	화남남부
	火棘 <i>Pyracantha fortuneana</i> (Maxim.) Li	섬서, 장쑤, 저장, 푸젠, 후베이, 후난, 광시, 쓰촨, 윈난, 구이저우 등
	南天竹 <i>Nandina domestica</i> .	허난, 허베이, 산둥, 후베이, 장쑤, 저장, 안후이, 장시, 광둥, 광시, 윈난, 구이저우, 쓰촨 등

구분	수 종	주요 분포지역
	桂花 <i>Osmanthus fragrans</i> (Thunb.) Lour.	쓰촨, 섬서남부, 윈난, 광시, 광둥, 후난, 후베이, 장시, 안후이, 허난 등
	夾竹桃 <i>Nerium indicum</i> Mill.	윈난, 광시, 광둥, 허베이 등
	紅花檵木 <i>Loropetalum chinense</i> var. <i>rubrum</i>	후난, 장쑤 등
	小叶女貞 <i>Ligustrum quihoui</i> Carr.	섬서 남부, 산둥, 장수, 안후이, 저장, 장시, 허난, 후베이, 쓰촨, 구이저우 서북부, 윈난, 시장 등
	大叶黃楊 <i>Buxus megistophylla</i> Levl.	구이저우 서남부, 광시 동북부, 광둥 서북부, 후난 남부, 장시남부 등
	小叶黃楊 <i>Buxus sinica</i> var. <i>parvifolia</i> M. Cheng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서, 산둥, 허난, 간쑤 등
낙엽 관목	紅楓 <i>Acer palmatum</i> cv. <i>Atropuceum</i>	장쑤, 저장, 안후이, 장시, 산둥, 후난, 허베이 등
	月季花 <i>Rosa chinensis</i> Jacq.	후베이, 쓰촨, 간쑤, 상하이, 장쑤, 톈진, 허난, 베이징 등
	桃花 <i>Amygdalus persica</i> L	베이징, 톈진, 산둥, 허난, 허베이, 섬서, 간쑤, 쓰촨, 랴오닝, 저장, 상하이, 장쑤 등
	梅花 <i>Prunus mume</i>	쓰촨, 후베이, 광시 등
	迎春 <i>Jasminum nudiflorum</i>	간쑤, 섬서, 쓰촨, 윈난 서북부, 시장 동남부
	櫻花 <i>Cerasus</i> ssp	장강유역, 타이완 등
	紫叶李 <i>Prunus Cerasifera</i> Ehrhar f. <i>atropurpurea</i> (Jacq.)	신장, 화북 등
	海棠 <i>Malus, Chaenomeles</i>	산둥, 허난, 섬서, 안후이, 장쑤, 후베이, 쓰촨, 저장, 장시, 광둥, 광시 등
	紫薇 <i>Lagerstroemia indica</i> L.	광둥, 광시, 후난, 푸젠, 장시, 저장, 장쑤, 후베이, 허난, 허베이, 광둥, 산둥, 안후이, 섬서, 쓰촨, 위난, 구이저우, 지린 등
	小檗 <i>Berberis thunbergii</i> DC.	동북남부, 화북 및 친링(秦嶺)
	紅瑞木 <i>Swida alba</i> Opiz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내몽고, 허베이, 섬서, 간쑤, 칭하이, 산둥, 장쑤, 장시 등
	紫玉蘭 <i>Magnolia liliiflora</i> Desr.	푸젠, 후베이, 쓰촨, 윈난 서북부 등
	紫荊 <i>Cercis chinensis</i>	허베이, 광둥, 광시, 윈난, 쓰촨, 섬서, 저장, 장쑤, 산둥 등
	木槿 <i>Hibiscus syriacus</i> Linn.	타이완, 푸젠, 광둥, 광시, 윈난, 구이저우, 쓰촨, 후난, 후베이, 안후이, 장시, 저장, 장쑤, 산둥, 허베이, 허난, 섬서 등

자료: KOTRA 조사

## 1.2. 유통

### 1.2.1. 주요 유통구조와 온라인 몰

중국에서 조경수가 유통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이다. 생산지에서 소비자(시정공사나 조경업체 경우 주로 자체적으로 재배하거나 혹은 생산지에서 직접 구입)로 바로 유통되는 경우, 생산지에서 도/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로 판매되는 경우, 생산지에서 도/소매업자를 거쳐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경우, 생산지에서 바로 온라인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조경수 전문도매시장이 다수 형성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수입 조경수는 조경 시공업체들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문 수입업체에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 소규모 업체들이 수입허가증을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수목 거래도 활발하다는 것이 특이하다. 중국에서 조경수(분재 포함) 판매 온라인몰 가운데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는 사이트는 <표 3-5>과 같다. 다수의 조경수 생산자들이 녹화수종 또는 정원수를 사진과 함께 수령, 수고, 가격 등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형 업체들도 있지만 소규모 업체들이 많다.

표 3-5. 중국 조경수 및 분재 주요 온라인 몰

온라인 몰 이름	사이트 주소
中國園林网	<a href="http://www.yuanlin.com">http://www.yuanlin.com</a>
園林在線	<a href="http://www.lvhu.com">http://www.lvhu.com</a>
中國花木在線	<a href="http://www.huamu123.com">http://www.huamu123.com</a>
阿里巴巴	<a href="http://www.alibaba.com">http://www.alibaba.com</a>
淘宝	<a href="http://www.taobao.com">http://www.taobao.com</a>

자료: KOTRA 조사

그림 3-4. 항저우 소산 조경수시장



### 1.2.2. 항저우 소산 조경수 시장

소산 조경수 시장은 조경수 도매시장이면서 소매의 역할도 수행한다. 소산 조경수시장은 주로 중간거래 유통시장의 역할을 하며 구입자는 대부분 개인 정원을 가꾸기 위한 부유층이나 조경공사를 하는 개인 조경회사이다. 소산 조경수시장에 있는 소규모 가게 참여원들은 약 1,000여명으로 조경수 경매도 실시하고 있다. 시장면적이 약 8만 8천 평으로 매출이 1년에 15억~20억 달러 정도이다.

철쭉, 단풍나무, 일본 나한송이 많고, 이 밖에 석류나무, 산사나무, 주목, 수양단풍, 비자나무 등 다양한 조경수가 유통된다. 철쭉 묘목은 주당 300원(KRW)에 거래되는데 한국의 철쭉 묘목가격과 비교하면 매우 싸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조경수는 크고 수형이 좋은 나무들이다. 소형 묘목뿐만 아니라 대형 정원수도 취급하는데 수목이 시장에 반입·반출하기 위해 컨테이너 재배가 되어야 한다.

### 1.3. 가격동향

중국에서도 조사가 가능한 상하이, 베이징, 톈진, 다롄 지역의 조경수 및 분재 소매가격은 <표 3-6>~<표 3-9>와 같다.

표 3-6. 상하이 지역 조경수 및 분재 가격

수형	품명 및 가격
	<p>納塔櫟(<i>Quercus nuttallii</i> Palmer, nuttall oak)</p> <p>米徑: 0.10m ; 2800위안/그루          米徑: 0.13m ; 5000위안/그루          米徑: 0.15m ; 8000위안/그루          米徑: 0.18m, ; 16000위안/그루          米徑: 0.20m, ; 20000위안/그루</p>
	<p>雪松(<i>Cedrus deodara</i> (Roxb.) G. Don)</p> <p>米徑: 0.10m, 높이: 5m, 수관 3m ; 460위안/그루          米徑: 0.11m, 높이: 6m, 수관 3m ; 520위안/그루          米徑: 0.12m, 높이: 7m, 수관 3.5m ; 900위안/그루          米徑: 0.12m, 높이: 8m, 수관 3.8m ; 1500위안/그루          米徑: 0.14m, 높이: 9m, 수관 4m ; 1800위안/그루</p>
	<p>羅漢松(<i>Podocarpus macrophyllus</i>)</p> <p>地徑: 0.06m ; 180위안/그루          地徑: 0.09m ; 650위안/그루          地徑: 0.11m ; 1200위안/그루          地徑: 0.15m ; 5000위안/그루</p>
	<p>廣玉蘭(<i>Magnolia Grandiflora</i> Linn)</p> <p>米徑: 0.15m, 높이: 5m, 수관 3.5m ; 550위안/그루          米徑: 0.18m, 높이: 6.5m, 수관 4.5m ; 1500위안/그루          米徑: 0.20m, 높이: 7m, 수관 4.6m ; 2500위안/그루          米徑: 0.25m, 높이: 8m, 수관 5.2m ; 5000위안/그루          米徑: 0.30m, 높이: 8.8m, 수관 5.6m ; 8000위안/그루</p>

	<p>蜀檜(<i>Sabina chinensis</i> (L.) Ant. cv. <i>Pyramidalis</i>)          높이: 3.5m, 수관 1m ; 150위안/그루</p>
	<p>紅花繼木球(<i>Loropetalum chinense</i> var. <i>rubrum</i>)          높이: 1.2m, 수관 1m ; 45위안/그루          높이: 1.2m, 수관 1.2m ; 65위안/그루</p>
	<p>枸骨(<i>Ilex cornuta</i> Lindl. et Paxt)          높이: 1m, 수관 1m ; 50위안/그루          높이: 1m, 수관 1.2m ; 65위안/그루</p>
	<p>對節白蜡(<i>Fraxinus hupehensis</i> Chu, Shang et Su.)          米徑: 0.15m, 높이: 4m, 수관 3.5m ; 2300위안/그루          米徑: 0.20m, 높이: 4.5m, 수관: 4m ; 3500위안/그루</p>

자료: KOTRA 조사

표 3-7. 베이징 지역 조경수 및 분재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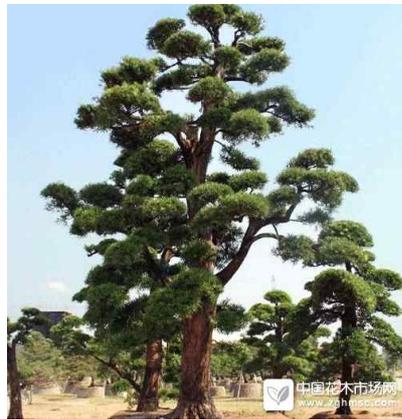
종비나무(높이 4m)  
가격: 1200 위안



유송(높이 6m)  
가격: 4000 위안



수양버들(높이 5m, 직경 15cm)  
가격: 4500 위안



나한송(높이 2.5m)  
가격: 1500 위안



적단(높이 1.5m)  
가격: 260 위안



영산홍(높이 1m)  
가격: 3000 위안



단풍나무(높이 4m)  
25,000위안

자료: KOTRA 조사

표 3-8. 텐진 지역 분재 가격



태산 소나무(1000위안/분)



용수나무(2700위안/분)



노송나무(1400위안/분)



벤자민(3000위안/분)



계화나무(1000위안/분)



백년된 석류나무(1.75만 위안/분)

자료: KOTRA 조사

표 3-9. 다렌의 조경수 거래 가격

제품명칭	높이 (cm)	가격 (위안)	단위	공급상
嫁接紅楓 (접목단풍)	4,000	25,000	棵(그루)	福建永福瑞楠園藝場
竹柏(대나무백)	2,500	800	棵(그루)	福建永福瑞楠園藝場
小叶榕綠化樹(벤자민녹화나무)	450	1,800	棵(그루)	漳浦縣富坤園藝場
榕樹盆景小叶榕(용수분재벤자민)	1,000	12,600	棵(그루)	漳浦縣富坤園藝場
造型小叶女貞(어린잎여정목)	250	1,800	棵(그루)	蘇北綠地苗圃
羅漢松(나한송)	250	1,500	棵(그루)	福建永福瑞楠園藝場
竹柏(대나무백)	350	1,500	棵(그루)	福建永福瑞楠園藝場
映山紅(진달래)	100	3,000	棵(그루)	福建永福瑞楠園藝場
赤丹(아카단)	150	260	棵(그루)	福建永福瑞楠園藝場
桃花(복숭아꽃)	300	8,000	棵(그루)	石馬桃花老花農
小叶女貞造型樹(어린잎여정목조경수)	300	460	棵(그루)	河南花木苗木園林園藝公司
景觀松樹(경관소나무)	500	6,000	棵(그루)	誠信松園
泰山松(태산소나무)	380	5,600	棵(그루)	誠信松園
山東黑松(산동흑송)	350	5,000	棵(그루)	誠信松園
景觀松樹(경관소나무)	300	3,800	棵(그루)	誠信松園
造型黑松(조형흑송)	460	4,000	棵(그루)	誠信松園
造型黑松(조형흑송)	370	3,500	棵(그루)	誠信松園
造型黑松(조형흑송)	400	3,000	棵(그루)	誠信松園
造型黑松(조형흑송)	300	2,000	棵(그루)	誠信松園
山東油松(산동유송)	300	2,600	棵(그루)	誠信松園
造型油松(조형유송)	400	4,600	棵(그루)	誠信松園
造型油松(조형유송)	400	4,000	棵(그루)	誠信松園
造型油松(조형유송)	300	3,000	棵(그루)	誠信松園
造型油松(조형유송)	350	2,900	棵(그루)	誠信松園
造型油松(조형유송)	300	2,800	棵(그루)	誠信松園
萊蕪黑松(라이우흑송)	500	3,600	棵(그루)	誠信松園
萊蕪黑松(라이우흑송)	450	4,500	棵(그루)	誠信松園
萊蕪黑松(라이우흑송)	380	4,000	棵(그루)	誠信松園
萊蕪黑松(라이우흑송)	400	3,000	棵(그루)	誠信松園
萊蕪黑松(라이우흑송)	300	2,600	棵(그루)	誠信松園

자료: 중국화목시장망(<http://www.zghmsc.com/>)

## 1.4. 조경수 선호 형태

중국 조경수 생산·유통업자와의 면담에 의하면, 중국에서 선호하는 조경수는 기본적으로 모양이 예쁘게 잘 다듬어진 나무,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처럼 화려한 꽃이 피는 나무, 또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목을 선호한다. 흰 꽃은 죽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선호하지 않는다.<sup>6</sup>

다양한 수목 중 특히 ‘여정실’, ‘단풍나무’는 붉은 색을 띠는 나무로 중국에서 부(富)와 행운을 상징하여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수종이다<그림 3-5>. 또한 직경 20cm 이상인 회양목, 비자나무, 홍화계목 등 크고 특이한 수형을 가진 나무를 선호한다.

그림 3-5. 중국에서 인기 높은 조경수 수종



<회양목>



<황금느릅나무>



<여정실>



<비자나무>



<단풍나무>



<sup>6</sup> 산딸나무는 흰꽃이 피어 선호하지 않고, 얼치기 단풍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함.

그림 3-6. 다양한 수형의 수입 조경수



외국에서 수입하는 나무들도 독특한 수형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 없는 수종을 선호하는데, 일본 나한송, 스페인 올리브나무, 이태리 감탕나무류 등이 대표적이다. 또는 오랜 시간을 들여 잘 다듬고 가꾸어 멋진 수형을 갖춘 나무들을 원한다. 100년 이상 수령의 철쭉 등이다. 중국에서 수목 생산자들이 고령화하고 후계자가 줄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다양하고 예쁜 수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젊은 전문가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조경수를 수입할 때 잘 다듬어지고, 특이한 수형의 나무를 원한다.

## 2. 분재 생산과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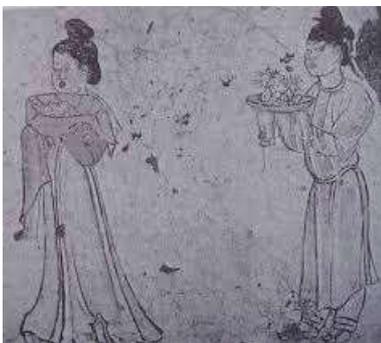
### 2.1. 중국분재의 역사

중국에서 분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분경(盆景)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분경은 분재(盆栽)와 수석(水石)의 총칭이다. 분경은 화분속의 경치(盆中景)를 의미하며, 식물·돌·물·흙을 재료로 독자의 원예기술을 적용하여 화분의 좁은 공간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농축하여 그 경치를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李, 2006).

중국에서 분재의 기원은 당(唐) 시대(618-907)로 거슬러 올라가며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시성(陝西省) 진릉에서 당 시대의 분재 벽화(706년)가 그려진 것으로 보아 분재는 8세기 이전부터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3-7>. 당시 황제는 궁궐의 중정을 꾸미도록 하였는데, 이때 유명한 곳의 경치를 표현하기 위해 작은 나무들을 식재하였다고 한다. 분재는 송(宋)부터 청(淸)까지 지속적 발전하였으나 청 말기부터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중국의 분재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다. 송(宋朝) 시기에 일본으로 전파되었고, 일본에서 분경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국제적으로 분경 영문명은 일본어 발음대로 “Bonsai”라 불리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1981년 베이징에서 「중국화훼분재협회」가 설립되었고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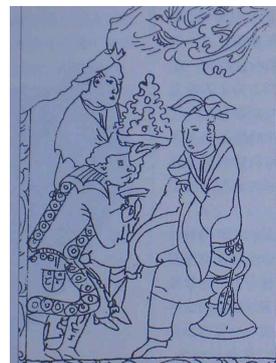
그림 3-7. 옛 중국의 분재 문화



<당 시대 분재벽화>



<명시대의 분중경>



<무덤벽화의 분재>

자료: [http://www.360doc.com/content/11/0122/13/2974891\\_88274367.shtml](http://www.360doc.com/content/11/0122/13/2974891_88274367.shtml)

그림 3-8. 중국의 분재 잡지



자료: [www.magimiland.org/MagCovers.html](http://www.magimiland.org/MagCovers.html)

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고급 분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 분재관련 잡지도 다수 발행되어 분재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 2.2. 분재의 종류

중국에서 분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분재식물(盆栽植物), 분경(盆景)과 화단식물(花壇植物)이다. 분경은 분재식물에서 발전하여 단순한 관상 목적 외에 예술성을 포함한 제품이다.

중국 분경은 다양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80년대 중국 분경은 크게 수목분경(樹木盆景)과 산석분경(山石盆景) 2종류로 나뉘었으나 1998년에 <중국분경예술대관>이 새로운 분류방법을 제기하였다. 즉, 분경 소재와 표현 경지의 형식에 따라 수목분경(樹木盆景), 죽초분경(竹草盆景), 산수분경(山水盆景), 수석분경(樹石盆景)/수한분경(水旱盆景), 미니분경(微型盆景), 괘벽분경(掛壁盆景), 이형분경(異形盆景) 7 가지로 분류하였다<표 3-10>. 또, 중국은 국토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분경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것이 <표 3-11>에 나타난 것처럼 수목분경 8대 유파인데, 각각의 특징을 보여준다. 여러 유파들이 중국 남부에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방지역은 화려한 색상의 분재를 선호하며 북방지역은 소나무 소재의 분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재를 중국 수목분경에 맞추어 조사하였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중국 분경에 대한 데이터는 여러 분류된 것들을 합친 분경 자료이다.

표 3-10. 중국 분재의 다양한 형식

<p>수목분재(樹木盆景) 나무를 주요 재료로 하여 산림의 풍경을 표현한 것</p> 	<p>산수분재(山水盆景) 산석을 주요 재료로 선택하고 조형해서 천연적인 산과 물을 모방한 것</p>  	
<p>수한분재(水旱盆景) 수목분재와 산수분재 사이의 분재 형식</p> 	<p>수한분재(水旱盆景) 수목분재와 산수분재 사이의 분재 형식</p> 	<p>화초분재(花草盆景) 화초의 감상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조형미도 부각시킴</p> 
<p>미니분재(微型盆景) 높이 10cm 이하의 수목분재와 화분 길이 10cm 이하의 산수분재와 수한분재</p> 	<p>괘벽분재(掛壁盆景) 벽에 걸 수 있는 형태의 분재</p> 	<p>이형분재(異型盆景) 식물을 특수 용기에 심고 가꾸며 조형해서 만든 제품</p> 

자료: <https://kknews.cc/home/4m4lzg.html>

표 3-11. 중국 수목분경 8대 유파

수파 (蘇派)	양파(揚派)	천파(川派)	영남파(嶺南派)
쑤저우(蘇州), 우시(無錫), 창저우(常州), 창수(常熟)	양저우(揚州), 염청(鹽城), 타이싱(泰興), 타이저우(泰州)	청두(成都), 충칭(重慶), 관현(灌縣), 윈장(溫江)	광둥(廣東), 광서(廣西), 푸젠(福建)
상동(雀梅), 느릅(榆), 단풍(楓), 매화(梅), 석류(石榴)	송(松), 백(檜), 느릅(榆), 황양목(黃楊)	카타이엔시스감나무(金 彈子), 백정화(六月雪), 꽃해당목(貼梗海棠), 죽(竹), 화과류(花果類)	피커스마이크로카파 (榕), 느릅(榆), 상동(雀梅), 구리향(九里香), 복건차(福建茶)
수려함과 고아함 (清秀古雅)	엄정하고 웅장함 (嚴整莊觀)	다양하며 우아하고 수려함 (虯曲多姿, 典雅清秀)	창건자연, 표일호방 (蒼勁自然 飄逸豪放)
			
해파(海派)	절파(浙派)	휘파(徽派)	통파(通派)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윈저우(溫州)	서현(歙縣), 지시(績溪), 슈닝(休寧), 이현(黟縣)	난통(南通), 루가오(如皋)
송백 위주로 금송(錦松), 눈향나무(眞柏)	섬잣나무 (五針松)	매화나무(梅), 황산송(黃山松), 백(檜), 계목(繼木)	나한송(小葉羅漢松)
명쾌유창, 정교함 (明快流暢, 精巧玲瓏)	강경, 자연, (剛勁自然, 有時代氣息)	기특고박 (奇特古樸)	단장웅위 (端莊雄偉)
			

자료: <http://wenku.baidu.com/>

### 2.3. 생산동향

중국은 야생 화훼자원과 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기후와 노동력, 문화 등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화훼(花卉)에는 생절화, 종묘, 종자, 화분 꽃, 관상용 묘목, 분재, 분경, 말린 꽃 및 원예공구 등이 포함된다.

중국 화훼시장은 성장기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윈난(雲南), 광둥(廣東), 푸젠(福建), 산둥(山東), 허베이(河北), 료닝(遼寧) 등에서 이미 화훼산업화 및 제품화 생산기지가 형성되었으며, 대형 화훼기업을 배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광둥천첸화훼세계유한회사(廣東陳村花卉世界有限公司)는 2015년 1,400여 ha의 재배면적을 경영하며, 분재, 녹화묘목, 난초, 식물 등을 생산한다. 연간 매출액은 10억 위안을 초과하며 수출액도 1,000만 달러 이상이다. 윈난(雲南), 쓰촨(四川), 장수(江蘇), 저장(浙江), 하이난(海南) 등은 남방 열대·아열대 화훼생산지구, 광둥(廣東), 푸젠(福建)은 남방 열대 관엽식물 생산지구, 저장(浙江), 쓰촨(四川), 허난(河南), 허베이(河北)는 묘목 생산지구, 베이징(北京), 산둥(山東), 허베이(河北) 등은 북방 화훼 생산지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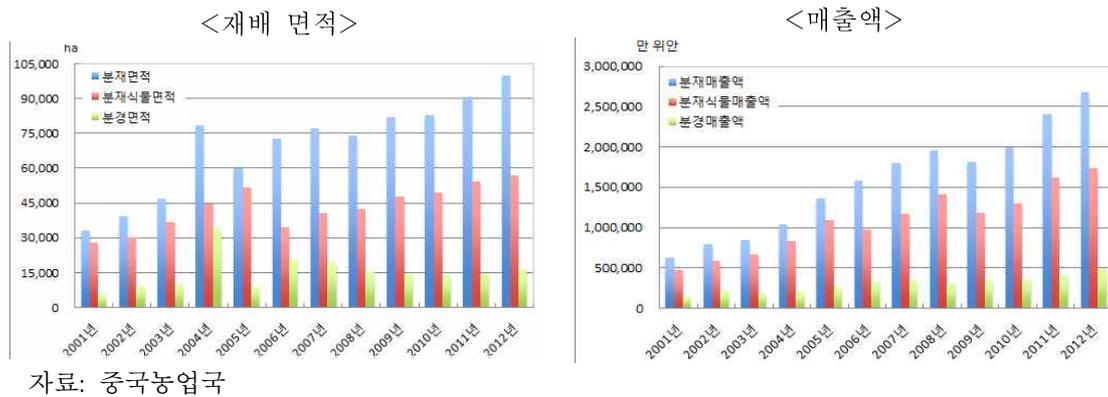
중국 화훼재배 면적은 2013년 122.71만 ha이며, 2012년(112.03만 ha)보다 9.54% 증가하였다. 판매액은 1,288.11억 위안으로 2012년(1,207.71억 위안)보다 6.66% 증가하였다. 증가량은 주로 식약용 식물, 관상용 묘목, 분재식물 등에서 발생하였다. 화훼 수출액도 증가하여 2013년 6.46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여기에는 생절화류 비중이 크다. 2014년 중

표 3-12. 중국 화훼통계(2012년)

항목	면적(ha)	매출액(만 위안)	수출(만 달러)
화훼(Total)	1,120,276 (100.0%)	12,077,147 (100.0%)	53,265 (100.0%)
1. 절화	59,382 ( 5.3%)	1,354,098 ( 11.2%)	27,907 ( 52.4%)
2. 분재	99,775 ( 8.9%)	2,677,1679 ( 22.2%)	10,526 ( 19.8%)
3. 관상묘목	637,723 ( 56.9%)	6,159,261 ( 51.0%)	4,817 ( 9.0%)
4. 식용·약용 화훼	205,770 ( 18.4%)	1,018,132 ( 8.4%)	187 ( 0.4%)
5. 공업용 화훼	58,816 ( 5.3%)	290,923 ( 2.4%)	4,490 ( 8.4%)
6. 화훼잔디	38,443 ( 3.4%)	220,737 ( 1.8%)	0 ( 0.0%)
7. 화훼종자	5,112 ( 0.5%)	33,877 ( 0.3%)	291 ( 0.6%)
8. 화훼묘목	10,723 ( 1.0%)	224,802 ( 1.9%)	3,671 ( 6.9%)
9. 화훼중구	4,471 ( 0.4%)	83,351 ( 0.7%)	107 ( 0.2%)
10. 건조화	62 ( 0.0%)	14,798 ( 0.1%)	1,269 ( 2.4%)

자료: 중국농업국

그림 3-9. 분재 재배 면적 및 매출액 변화 추이, 2001-2012



국 화훼 판매액은 1,404.04억 위안에 달하였다.

2012년 분재의 재배면적은 99,775.11ha, 전체 화훼 재배면적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3>. 분재의 매출액은 26,677,167만 위안으로 전체의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분재 재배면적은 전체 분재식물 재배면적의 57.2%를 차지하였으며, 분경과 화단 식물이 각 16.3%, 26.5%로 나타났다. 년도에 따라 비율이 변동하였으나,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9>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분재 재배면적과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중국 분경 매출량은 57,671만 분이며, 매출액은 50.2억 위안이다. 2012년 분재 매출액은 267.7 억 위안이며, 2011년에 비해 11.1% 증가하였다. 분재 매출량은 61.3만 분으로 2011년보다 23.5% 증가하였다. 분재식물의 매출액은 173.38억 위안이며, 분재류 전체의 64.8%를 차지하였다.

<표 3-13>은 2012년 기준 중국에서 분재 재배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광둥성, 사천성, 장쑤성, 산시성, 푸젠성, 허난성, 후난성, 운남성, 요녕성, 저장성 등 10개 지역의 재배면적은 76,296.7ha에 달하며, 전국 재배면적의 76.5%를 차지한다.

광둥성은 중국에서 분재 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2012년 기준 광둥성 분재 재배면적은 17,586ha에 달하며, 매출량은 68,892만 분, 매출액은 590,784만 위안으로 중국 분재 소비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광둥성은 전통 특색 화훼, 고급 분재, 관엽식물, 수목 분경을 중점 생산하며, 국가에서도 광둥성의 관상 양치식물을 권장한다. 주요 품종은 느릅나무, 관상 양치류이다.

사천성의 2012년 분재 재배면적은 909ha이고, 매출량은 53,849분, 매출액은 189,211만 위안이다. 사천성 분재생산은 주로 청두평원에 집중해 있으며, 특히 청두시 근교에

표 3-13. 중국의 지역별 분재 재배면적(2012년)

순위	지역	재배면적(ha)	비율
1	광둥	17,586	17.63%
2	사천	9,086	9.11%
3	장쑤	8,579	8.60%
4	산시	8,150	8.17%
5	푸젠	8,146	8.16%
6	허난	8,000	8.02%
7	후난	4,725	4.74%
8	운남	4,619	4.63%
9	요녕	4,025	4.03%
10	저장	3,381	3.39%
합 계		76,297	76.47%

자료: 중국농업국

많이 있다. 사천성이 주요 분경을 생산하고 있으며, 나한송, 납매 등이 주요 품종이다.

장쑤성의 2012년 분재 재배면적은 8,579ha, 매출량은 63,860만 분, 매출액은 211,714만 위안이다. 분재와 수목분경을 주로 생산하며, 주요 품종은 백정화이다.

산시성의 분재 재배면적은 8,150ha, 매출량은 51,307만 분, 매출액은 86,620만 위안이다. 주로 호접난과 죽우를 생산한다.

푸젠성의 분재 재배면적은 8,146ha, 매출량은 123,260만 분, 매출액은 364,192만 위안이다. 분재 품종은 다양하며, 주요 품목은 小叶榕(*Ficus concinna* (Miq.) Miq.), 아라우카리아(*Araucaria heterophylla* (Salisb.) Franco), 수철 등이다.

## 2.4. 중국 분재의 주요 수종

분재 애호가들은 정교하게 잘 다듬어지거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양을 가진 분재를 선호한다. 분재 업체들은 보통 30종 이상의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며,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품종을 접목시키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수목분재는 수종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송백류(松柏類), 잡목류(雜木類), 화과류(花果類) 3종류이다. 주요 수종은 섬잣나무, 나한송, 홍계목, 홍두삼(주목), 비술나무, 단풍나무, 곰솔, 화극(피라칸사), 원백, 대절백랍(물푸레나무) 등이다<표 3-14>.

표 3-14. 중국의 주요 분재 수종

분류	한국명	중문명	학명
송백류 (松柏類)	섬잣나무	五針松	<i>Pinus parviflora</i>
	흑송(금솔)	黑松	<i>Pinus thunbergii</i> Parl.
	마미송	馬尾松	<i>Pinus massoniana</i> Lamb
	만주흑송	油松	<i>Pinus tabulaeformis</i> Carr.
	나한송	羅漢松	<i>Podocarpus macrophyllus</i> (Thunb.) D. Don
잡목류 (雜木類)	금전송	金錢松	<i>Pseudolarix amabilis</i> (Nelson) Rehd.
	황양목	黃楊	<i>Buxus sinica</i> (Rehd. et Wils.) Cheng
	-	小叶榕	<i>Ficus concinna</i> (Miq.) Miq.
	느릅나무	榆	<i>Ulmus pumila</i> L.
	단풍	紅楓	<i>Acer palmatum</i> Thunb f
화과류 (花果類)	오구나무	烏柏	<i>Sapium sebiferum</i> (L.) Roxb.
	소철	鐵樹	<i>Cycas revoluta</i> Thunb.
	-	福建茶	<i>Carmona microphylla</i> (Lam.) Don
	백정화	六月雪	<i>Serissa japonica</i> (Thunb.) Thunb.
	남천	南天竹	<i>Nandina domestica</i>
	매롱나무	紫薇	<i>Lagerstroemia indica</i> L.
	구기나무	枸杞	<i>Lycium</i>
	꽃해당목	海棠	<i>Malus Chaenomeles</i>
	석류나무	石榴	<i>Punica granatum</i> L.
	화극나무	火棘	<i>Pyracantha fortuneana</i> (Maxim.) Li
	은행나무	銀杏	<i>Ginkgo biloba</i> L.
	금귤나무	金橘	<i>Fortunella margarita</i>
	벽도나무	碧桃	<i>Amygdalus persica</i> var. <i>persica</i> f. <i>duplex</i>
	자두나무	李	<i>Prunus salicina</i> Lindl.
	납매나무	腊梅	<i>Chimonanthus praecox</i> (Linn.) Link
	매화나무	梅	<i>Armeniaca mume</i> (Sieb.) Sieb. Et zucc.
노란매자나무	小檗	<i>Berberis thunbergii</i> DC.	
두견나무	杜鵑	<i>Rhododendron simsii</i> Planch.	
통영볼레나무	胡頹子	<i>Elaeagnus pungens</i> Thunb.	

자료: 胡運驊, “樹椿盆景”,

## 2.5. 유통구조

분재는 일반적으로 화훼의 유통 경로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화훼는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되지만 소비 시장은 전국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 화훼는 원격 운송을 거쳐야 한다. 한편 중국 화훼생산자의 60%가 화농이어서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이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화훼는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도매업체와 소매업체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베이징의 주요 화훼시장은 <표 3-15>와 같다.

표 3-15. 베이징의 주요 화훼시장

업체명	주소	연락처
北京玉花園花卉市場 Beijing Jade Garden flower market	北京市丰台区玉泉營立交橋東北側 (베이징 핑타이구)	+86-10-63538557
北京亮馬河花卉市場 Beijing Liang Ma River flower market	北京市朝陽區東三環北路乙8號 (베이징 조양구)	+86-10-65042446
黃土崗萬園春花卉市場 Huangtugang million spring garden flower market	北京市海澱區黃土崗村西四環路南 (베이징 하이덴구)	+86-10-63727078
北京西聯航天橋花卉市場 Beijing Xilian Hangtianqiao flower market	北京市海澱區西三環中路7號 (베이징 하이덴구)	+86-10-63978979
北京都市芳群花卉市場 Beijing urban flower market	北京市丰台区成壽寺路南三環向南路西 (베이징 핑타이구)	+86-10-87628630
北京中蔬大森林花卉市場 Beijing forest vegetables flower market	北京市北三環聯想橋南200米路西中國農科院東門 (베이징 북3환)	+86-10-62119255
東方美都花卉市場 Oriental beauty flower market	北京市海澱區清河 (베이징 하이덴구)	+86-10-62935826
北京房山區良鄉蠶種場花卉市場 Beijing Fangshan Liangxiang silkworm flower market	北京市近郊房山區良鄉拱辰北大街33號 (베이징 진교방산구)	+86-10-89366349
大自然花卉市場 Nature flower market	北京市海澱區北大西門外西苑草場萬泉河公園內 (베이징 하이덴구)	+86-10-62888168
亞運村花卉市場 Asian Sports Village flower market	北京市朝陽區小關北里43號 (베이징 조양구)	+86-10-64892556

자료: KOTRA 조사

분재는 화훼 유통경로를 따라 유통되는데, 화훼 유통경로는 크게 다음 5가지로 구분된다(鄒美霞, 2010).

첫째, 「생산자→소비자」 직거래이다. 이는 화훼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이다. 보통 도시 근교의 화훼 생산자가 해당되며 생산자가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경로는 간편하며 중간 비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경로보다 가격이 낮다. 그러나 규모가 작아 판매량이 많지 않으며 품질도 확보할 수 없다. 고가품 분재는 이 경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애호가들이 취미단체(동호회)를 통하여 직접 분경원에 가서 구매하거나 인터넷의 분경사진을 보고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생산자→소매업체→소비자」 경로인데, 꽃집이나 가관(좌판) 등이 소매업체에 해당된다. 소매업체가 생산지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생산자가 소매업체로 배송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중개업체들이 분경원에서 구매하여 시장에서 파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중간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까운 경우에 적용된다. 중저가품의 유통경로이다.

셋째, 「생산자→도매업체→소매업체→소비자」인데, 중소기업 등 생산 규모가 크고 소비지와 거리가 먼 경우에 이러한 유통방식을 선호한다. 저가품의 유통경로이다.

넷째, 「생산자→대리업체→소매업체→소비자」이다. 생산자가 대리업체에게 위탁 판매하는 방식이다. 대리업체가 제품 소유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경영 리스크도 없다. 수입품은 이러한 유통형태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섯째, 「생산자→대리업체→도매업체→소매업체→소비자」이다. 대리업체가 도매업체, 소매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화훼를 수출하는 경우 이 구조를 많이 따른다.

## 2.6. 가격동향

분재(분경)의 가격은 수종, 크기, 수령, 산지, 수형, 예술성, 특이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규격에 따른 표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해송 분재(주로 일본산)는 약 50~60만 위안, 중국산은 10만 위안 내외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타오보([www.taobao.com](http://www.taobao.com))의 분재 상품 가격을 참고로 제시한다<표 3-16>. 온라인 판매가격과 오프라인 판매가격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한다. 또, 정주진채 화훼교역시장의 분재 도매가격을 제시한다<표 3-17>.

표 3-16. 인터넷 유통의 분재 가격동향

<p>물푸레나무(對節白蜡) (49.0위안)</p>	<p>소나무(松) 1,488위안</p>	<p>홍매화(梅花) (8년 48.3~18년 186.3위안)</p>
<p>석류나무(石榴樹) (3년 11.0~5년 30.0위안)</p>	<p>백정화(六月雪) (35.0~92.6위안)</p>	<p>잣나무 (34.2위안)</p>
<p>일본단풍(日本紅楓) (45위안)</p>	<p>주목(紅豆杉樹) 165.0위안</p>	<p>벨기에 진달래(杜鵑花) (19.5~24.5위안)</p>
<p>적송(높이 78, 수관폭 60cm) 5,000위안</p>	<p>나한송(높이60cm) 2,980위안</p>	<p>동백나무 480위안</p>

자료: 타오보(www.taobao.com)

표 3-17. 분재의 가격 동향

제품명	2015.07.16.	2015.08.16	
파키라(發財樹)	100	120	1.8m/盆
드라세나자마(翠蘭)	60	70	3그루/盆
만년청(万年靑)	60	70	中盆
고무나무(黑金剛)	100	80	大盆
알로카시아 마크로리자(滴水觀音)	80	80	5그루/大盆
봉황죽(鳳尾竹)	120	120	大盆
녹보수(幸福樹)	100	260	中盆
둥근잎아랄리아(金錢兜)	800	500	大盆
드라세나 레플렉사(百合竹)	130	130	中盆
에피프렘넴(綠蘿)	100	-	大盆
미자란(米蘭)	30	-	盆
자유목(清香木)	35	35	盆
아나나스(鳳梨)	120	120	3그루/盆
안투리움(紅掌)	35	35	盆
두견(杜鵑)	20	20	盆
사철베고니아(四季海棠)	15	15	盆
시클라멘(仙客來)	20	20	盆
포인세티아(一品紅)	20	-	盆
자스민(茉莉)	10	10	盆
주목, 홍두삼(紅豆杉)	500	500	中盆
느릅나무(榆樹)	1,200	1,200	中盆
장목(香樟)	2,600	2,600	中盆
용수(榕樹)	700	700	小型
흑송(黑松)	3,600	3,600	中盆
토송(羅漢松)	650	650	小盆
보춘란(春蘭)	20	20	그루
군자란(君子蘭)	40		그루
묵란(墨蘭)	15	50	그루
건란(建蘭)	40	40	그루
심비디움(蕙蘭)	15	30	그루
多肉植物	5~10	5~15	그루
고로쇠나무(五角楓)	2,000	2,000	직경 8cm
남천(南天竺)	300	300	높이 2m
능소화(凌霄)	3,500	3,500	직경 12cm
비파나무(枇杷)	600	600	직경 6cm
당광나무(女貞)	280	280	직경 2~3cm
매화나무(腊梅)	280	280	직경 3cm
라한죽(羅漢竹)	15	15	높이 2~3m
사철나무(北海道黃楊)	120	120	높이 2m
계수나무(桂花)	2,500	2,500	직경 8cm
석남(石楠)	150	150	직경 0.8cm

자료: 정주진채 화훼교역시장 분재도매가격, aT 보고자료 재인용

## 2.7. 소비동향

### 2.7.1. 소비행태

중국에서 분재는 주로 50대 이상의 마니아 계층 소비와 명절(춘절 등) 선물용으로 판매된다. 최근 경제 성장의 정체와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三公消費 억제)으로 선물용 분재시장(고급 수목, 심비디움 등)은 다소 침체된 상황이다. 그러나 실내 인테리어 등 식물 소비의 대중적 인기는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이다. 일반 가정용은 저가제품 중심으로 구매되며, 젊은층은 선인장 등 다육식물과 같이 관리가 쉽고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 한편, 분재시장에서 고가의 선물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에 차(茶) 문화와 분재를 융복합하는 전시회 등 새로운 형태의 고가분재 수요가 형성되는 움직임도 발견된다. 이 수요층은 분재 마니아이므로 지출 수준도 높다. 진기하고 특이한 분재, 고급스럽고 예술성 높은 분재, 희귀한 수종의 분재는 여전히 인기가 있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분재 스타일은 주로 수목분재(樹木盆景), 수한분재(水旱盆景), 화초분재(花草盆景) 등이다.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시장성이 좋은 수종은 소나무(해송)이며, 또한 매화, 난초, 은행나무, 느릅나무 등도 보편적으로 판매되는 수종이다. 화훼분재에서 난류, 파인애플류(鳳梨類), 관엽우류(觀葉芋類), 화촉속류(花燭屬類), 두견화류(杜鵑花類)가 보편적이며 이 가운데 난류가 가장 많다. 바이어 면담 결과에 의하면 중국 소비자들이 분재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품종과 외관(형식과 수형)이라고 한다. 또, 최근에는 중국식 복고 스타일의 분재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한다. 복고식 스타일은 원근감과 고태미가 잘 드러나는 모양의 분재이다.

중국에서 수입 분재의 선호는 일본산이 가장 높으며, 한국산은 일본산보다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까지 대만산(주로 중국거주 대만 바이어가 취급) 수입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한족 바이어가 늘면서 일본산 수요가 많은 편이다.

현재 중국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분재 가운데 많이 선호되는 품종은 다음과 같다. 일본산 분재에서는 소나무(松樹), 측백나무(栢樹), 단풍나무(楓樹) 등이고, 대만산에서는 진백나무(眞栢), 나한송(羅漢松) 등이다. 한국산에서는 적송(赤松), 진백나무(眞栢), 모과나무(木瓜), 주목나무(朱木) 등이다.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소나무류 수입은 금지되어 있지

표 3-18. 산지별 분재의 장단점

한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에 비하여 자연미는 있지만 마무리 작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li> <li>• 중국산에 비하여 작품성이 우수하나 솔잎 길이가 약간 짧은 것으로 평가</li> </ul>
일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임. 자연적인 멋보다 인공적임.</li> <li>•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고 있음</li> </ul>
중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재기술의 저하로 상품성 있는 상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평가임.</li> <li>• 강하면서 웅장함</li> </ul>

자료: aT 출장조사결과

만 대만이나 홍콩, 베트남 등을 통해 일부 수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들 나라에 대해서는 통관에서 비교적 관대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 2.7.2. 원산지별 제품 비교

분재에서 일본산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일본산 분재의 공급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분재 생산의 공급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산 분재는 일본산에 비해 품종이 다양한 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특히 마무리 작업이 취약하다는 평가이다.

한국산 분재는 일본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나 중국산보다는 5~10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한다. 한국산 분재의 상품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비교하여 한국의 분재 기술력이 아직 우위에 있어 전반적으로 품질경쟁력은 있지만, 중국의 분재 기술은 매우 빠르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분재는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하고 예술성 높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애호가들은 한국산 분재가 일본산보다 자연미(일본산은 인공미가 강함)가 있다고 한다. 중국 분재가들은 한국산 분재에서 모과, 낙상홍, 향나무, 피라칸사스 등이 흥취가 있다고 말한다.

다만, 일본의 유럽시장에 대한 분재수출이 주춤하면서 중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어 재배·유통의 생산성을 개선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 3. 조경수·분재의 수출입

#### 3.1. 관세율

중국에서 조경수 또는 분재에 대한 고유 HS코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의 산 식물”(HS CODE: 0602.9099)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확하게 조경수와 분재를 구분하여 수출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수입 수목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은 한·중 FTA체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다. 수목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최혜국 10%, 일반국 80%이었지만, 한·중 FTA체결에 따라 기본세율 10%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게 되었다<표 3-19>. 매년 1%씩 인하하여 이행 10년차 되는 해 1월 1일에 무관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한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함에 따라 2024년에 무관세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목 수출이 중국에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수용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19. 한중 FTA 체결에 의한 관세율 변화

<기존세율>

HS Code	정의	수입세율		증치세율 (부가가치세)	단위	감독조건
		최혜국	일반국			
06029099	other live plants, nes, not seedings	10%	80%	13%	그루(kg)	AB

주: A는 수입화물통관서, B는 수출화물통관서

<한·중 FTA 체결 후>

HS Code	정의	기준 세율	관세양허 유형
06029099	Other	10%	10단계

### 3.2. 수입 동향

중국의 수목류 수입은 안정적이지 않지만 2010년부터 수입액이 크게 상승하였다<표 3-20>. 중국의 최근 5년 연도별 수목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64.0% 높아 수입증가가 가장 많았던 해이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일본, 대만, 남아공,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이다. 중국의 수목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본산 수목이다. 또, 수목 수입 단가는 2001년 0.6달러/주에서 2014년 47.8달러/주까지 상승했다. 수입 수목들이 고급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입 수목 시장을 보면 나한송과 같은 일본 수종을 흔히 볼 수 있고, 동백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도 일본에서 많이 수입된다. 이는 일본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도 있겠지만, 일본의 수형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 높은 예술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식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일본 수목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본에는 호경기에 식재한

표 3-20. 중국의 수목류 수출입 현황, 2001-2015

년도	수 출			수 입		
	수출량 (만 주)	수출액 (천 달러)	단가 (달러/주)	수입량 (만 주)	수입액 (천 달러)	단가 (달러/주)
2001년	29,279	7,495	0.03	471	2,852	0.61
2002년	25,015	11,315	0.05	529	5,647	1.07
2003년	26,442	14,070	0.05	368	9,651	2.62
2004년	16,338	21,035	0.13	177	7,336	4.14
2005년	18,833	24,350	0.13	106	5,534	5.21
2006년	17,599	26,784	0.15	514	831	0.16
2007년	21,325	30,785	0.14	54	766	1.43
2008년	12,012	30,922	0.26	78	624	0.80
2009년	23,130	51,932	0.22	60	1,804	2.98
2010년	19,598	56,377	0.29	259	8,223	3.18
2011년	13,331	46,995	0.35	222	21,512	9.70
2012년	11,192	52,549	0.47	147	22,714	15.42
2013년	12,535	76,673	0.61	334	37,251	11.14
2014년	33,866	192,197	0.57	91	43,448	47.82
2015년	119,319	69,373	0.06	168	45,673	27.16

주: HS CODE 기타의 산 식물 0602.9099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3-21. 중국의 주요 대상국별 수목류 수출입 현황

구분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물량 (만 주)	금액 (천 달러)						
수출	전 체	11,192	52,549	12,535	76,673	33,866	192,197	119,319	69,373
	미얀마	-	-	-	-	12,700	127,000	-	-
	네덜란드	2,158	15,079	1,870	16,006	2,439	17,063	2,308	15,427
	한국	964	14,742	1,693	14,595	1,328	13,742	4,872	11,663
	홍콩	1,117	4,744	1,235	20,663	933	9,543	106,363	6,793
	싱가포르	234	1,550	241	3,555	303	3,196	335	4,729
	기타	6,719	16,434	7,496	21,854	16,163	21,653	5,441	30,781
수입	전 체	147	22,714	334	37,251	91	43,448	168	45,673
	일본	-	9,608	3.44	25,650	2	31,874	3	34,393
	대만	110	6,978	93	6,359	-	3,525	22	2,200
	남아공	-	1,147	-	1,545	-	2,353	-	2,552
	우루과이	-	841	-	571	-	1,387	-	680
	네덜란드	11	193	18	273	17	377	68	1,551
	아르헨티나	-	-	-	108	-	1,222	-	-
기타	36	4,140	238	3,018	72	2,710	75	4,297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주: HS CODE 기타의 산 식물 0602.9099

나무들이 많은데 현재 일본 경제가 침체하면서 조경수 내수도 감소하고 있다. 또, 조경수 생산자들의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나무들을 팔고 다른 직종으로 바꾸려고 하는 생산자들이 많아져 일본의 조경수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조경수 수입이 많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본에서는 전문 수출업체들이 개별 농장을 찾아가 값싸게 내놓은 조경수를 수집·취합하여 중국으로 수출한다.

중국에서 수목류 수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광둥, 저장(浙江省), 운난, 장쑤(江蘇省), 베이징이다. 이 지역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수입액 합계가 가장 많은 곳은 광둥성으로 수입액은 93,832천 달러이다<표 3-22>. 저장성과 운난성은 수입액 합계에서 광둥성보다 적지만 2012년 이후 꾸준히 수입액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5년도 저장성의 조경수 및 분재 수입액이 광둥성보다 더 많으며, 장쑤성은 2013년 처음으로 조경수 및 분재를 수입하면서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KOTRA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중국 저장성(浙江省) Ningbo시 항구가 묘목 수입의 지정항구로 선정되면서 일본의 羅漢松(나한송), 茶梅(산다화), 槭樹(단풍나무), 紫薇(배롱나무), 西班牙油橄欖(스페인 올리브), 加拿利海棗(카나리 대추야자), 韓國紅豆杉(한국 주

표 3-22. 중국 성별 최근 5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광둥	16,333	15,912	23,653	22,451	19,207
저장	4	5,878	12,787	18,014	22,173
운난	122	77	87	347	2,283
장쑤	28	-	167	730	96
베이징	167	146	277	68	48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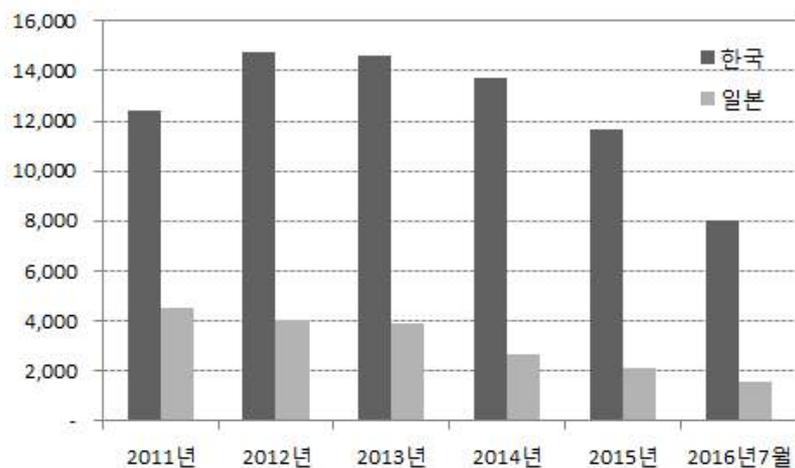
목), 西班牙棕櫚(스페인 종려나무) 등 세계의 우수한 조경수가 Ningbo 항구를 통하여 수입된다. Ningbo 항의 2016년 1분기 묘목 수입은 187건으로 1,126.2만 달러에 달하는데, 동기대비 묘목 수입 건수는 108% 증가하였고, 화물 금액은 58.5% 증가하였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목은 일반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거나 중국에 없는 품종이거나 고품질 종자·종묘 등이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조경수 및 분재의 수입액을 보면, 2012년도 전까지만 해도 수입이 없었지만 2013년도에 20만 6천 달러 수입해서 2014년도에 38만 6천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전년대비 80.4%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6년도에 수입액이 7월 기준 38만 3천 달러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5년간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목류 수입액을 보면, 2012년 이후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 3.3. 수출 동향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식물의 수출입도 빠르게 성장해 왔다. 2001년 수출량 29,279만 주, 수출액 750만 달러에서 2013년 12,535만 주, 7,667만 달러로 수출량은 줄었지만 수출액이 열 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이것은 수출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중국의 수목 수출량이 31,151만 주, 수출액이 1.8억 달러로 2013년에 비하여 각 148.5%, 131.9%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미얀마, 네덜란드,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 있다. 수목 수출 단가는 2010년 0.03달러/주에서 2013년 0.6 달러/주로 19배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다시 0.06달러/주로 내려갔다.

그림 3-10. 중국의 대 한국 및 일본 수목류 수출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

최근 5년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 1억 9,219만 7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액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수출액은 2015년 전년 대비 63.9% 감소하였으나, 2016년 이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조정수 및 분재 수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은 운남, 광둥, 푸젠, 저장, 장쑤 순이다. 최근 5년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액은 운남성이 1억 3,253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2014년도의 경우 전년보다 수출액이 109배나 늘었지만 이후 다시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23>. 반면 광둥성은 평균 수출액이 2,688만 8천 달러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푸젠성과 저장성 역시 매년 수출액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장쑤성은 2012년까지 수목 수출이 전혀 없다가 2013년 처음 수출을 시작하였고, 2015년도에 29만 2천 달러를 달성하였다.

표 3-23. 중국 성별 최근 5년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운남	866	1,175	1,179	128,458	1,219
광둥	14,329	15,956	35,778	27,285	28,531
푸젠	9,531	11,412	11,224	9,975	8,091
저장	870	577	756	521	576
장쑤	-	-	76	35	292

자료: 한국무역협회

다음으로 한국을 상대로 조경수 및 분재 수출금액을 보면, 2012년 수출액이 1,474만 2천 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로 수출액은 계속해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조경수 및 분재가 생산, 유통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 또한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액이 줄어드는 원인의 하나이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조경수 및 분재 수출액을 보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금액보다 수출액이 훨씬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출액은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감소폭은 2014년도에 32.9%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국의 수목 수출에서 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유럽으로 수출하는 양이 많다. 유럽은 소비자 선호가 확실하여 구매하려는 분재 종류에 따라 화분의 모양과 색까지 정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각 나라의 식물 수입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토 배합은 나뭇잎, 피트모스 등 각 나라 기준에 맞춰서 분을 채워 수출한다. 수출할 때는 중국에서 생산된 후 2년 검역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통과되면 각 나라로 수출할 수 있다.

## 4. 중국의 식물 통관 관련 제도

### 4.1. 통관 절차

흙을 포함하여 수입하는 수목은 지정된 해관의 지정 항구에 신고하여 수입검역 수속을 해야 한다. 수목 수입이 지정된 항구는 <표 3-24>와 같다.

통관할 때는 수하인이 비엘(B/L)을 갖고 직접 또는 대리업체를 통해 세관에 수입 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에는 ①패킹 리스트(packing list), ②화물 명세서, ③영수증, ④계약서, ⑤수입 신고단이 있다. 대리업체를 통하는 경우 대리통관위탁서가 필요하다. 이외에 ⑥멸종위기품종 수출입 증명서/비멸종위기품종 수출입 증명서, ⑦식물수입허가서, ⑧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서가 필요하다.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되는 경우 ⑨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준비 서류와 함께 통관신고단을 접수한다.

식물의 통관절차는 주로 다음 절차를 거친다. 세관이 통관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화물을 검사한다. 세금을 징수한 후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 감독 관리를 마무리하고 관련 서류에 통관 도장을 찍는다. 수입 화물의 수하인은 세관감독 관리 현장에서 화물을 수령한다. 조정수와 분재는 <입경 동식물 검역심사명부>에 해당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입출

표 3-24. 수목 수입 지정 해관 및 항구

지역	해관명	항구명
절강성	닝보 (宁波) 해관	①宁波北仑港
복건성	샤먼 (厦門) 해관	②厦門東渡港
광둥성	선전 (深圳) 해관	③沙頭角口岸, ④蛇口港
	포산 (佛山) 해관	⑤佛山南海港, ⑥順德勒流港
	관위 (番禺) 해관	⑦番禺蓮花山口岸
광서성	난닝 (南宁) 해관	⑧東興口岸
운남성	쿤밍 (昆明) 해관	⑨磨憨口岸

자료: 수입식물종묘 지정수입항구 조정에 관한 공고(2015년)

경 동식물 검역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 자체만이 아니라 식물성 유기비료, 식물성 폐기물, 식물제품 가공 후 생긴 자투리 및 기타 식물에 대한 해로운 생물을 모두 검역해야 한다.

## 4.2. CITES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멸종 위기종 야생 동식물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멸종 위기종 동식물 수출입 관리 조례>, <멸종 위기종 동식물 국제무역 공약>에 따라 수출입하고자 하는 멸종 위기종 야생 동식물은 「수출입허가증명서」와 「물종(物种) 증명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허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물종증명 허가를 받는 순으로 진행한다.

### 4.2.1. 수입허가증명서 발급

동식물 수입 허가를 받은 기업 또는 개인은 멸종위기종 동식물 수입허가 신청서를 국가멸종위기관리사무소에서 공표한 관할 구역 또는 기타 파견 출장소에 제출한다. 수출입허가 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①수출입허가 증명 발급 신청서류, ②수출입허가 증명 신청서, ③국무원 주관 부서에서 승인한 야생 동식물 수출입 허가 서류, ④수출입계약서 (비즈니스 무역 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 ⑤신분 증명 서류 (기업 : 영업자등록증, 개인 : 신분증 등), ⑥국가 멸종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 등이다. 수출입공약부록(进出口附录所列野生动植物及其他产品)의 목록에 있는 야생 동식물과 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경외 공약관리 기구에서 허락한 수출공식 증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일터 20일 이내, 신청서류 부족 또는 오류가 없을 경우 행정적으로 처리된다. 불허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유와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해 준다. 수출입 허가 증명 발급 후 신청자가 수출입 허가증명서를 수령할 때 수수료를 납입한다.

### 4.2.2. 물종(物种)증명 허가

신청인은 국가멸종관리 사무소의 관할구역의 국가멸종관리소 또는 출장소에서 신청

그림 3-11. 임목종자경영허가증(좌)과 임목종자생산허가증(우)



서를 제출한다. 물종증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①물종 증명 신청서, ②수출입 계약서(비즈니스 무역 목적이 아닐 경우 제외), ③신분 증명 서류, ④야생 동식물 및 제품 수입 시, 경외 기관 기구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원산지 증명서, 식물검역증명 또는 수입자가 화물 출고 시, 수입 야생동식물 및 제품 증명 서류, ⑤국가 멸종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 등이다.

국가 멸종위기관리 및 기타 관련 사무소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서류 부족 또는 오류가 없을 경우 행정적으로 허가 처리된다. 불허일 경우, 관련 사유와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해 준다.

#### 4.3.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서

식물검역은 크게 「심사→등록→검역신고→항구검역→후속 관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식물이 재배된 매개체에 대한 검역 심사 수속을 밟아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중국수출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검역허가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①수입식물검열검역허가증 등록 신청서, ②수입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기업코드 사본, ④중국 수출입기업 자역 허가증 또는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부 사본, ⑤기업법인 신청자(수입업자) 신분증 사본 등이다. 필요에 따라 한국 식물검역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품질증명서류, 수입대리업자 승낙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수입묘목 검역허가서를 대행사에 위탁하거나 대여할 수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수입업자가 직접 허가서를 획득해야 한다. 수입묘목검역허가서 획득은 임업부 또

표 3-25.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한 수입 금지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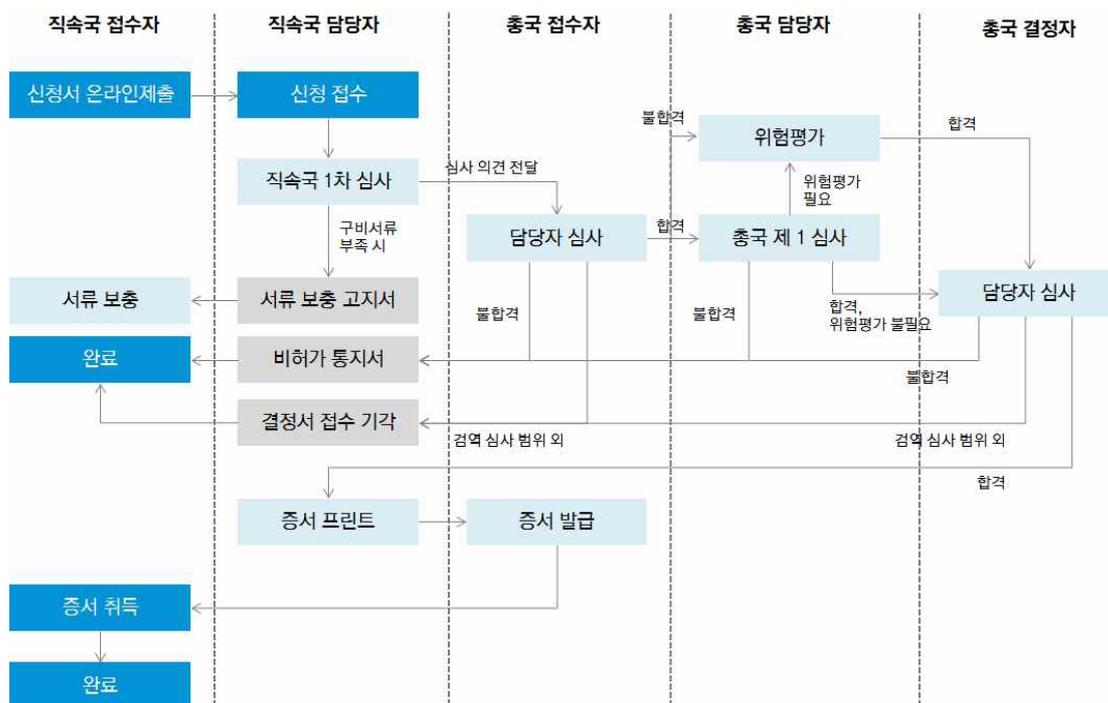
식물명	지역	금지사유
옥수수종자	미국, 캐나다, 중미, 남미, 유고, 이탈리아, 폴란드, CIS	<i>Erwinia stewartii</i>
대두종자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유럽, 뉴질랜드	<i>Phytophthora megasperma</i>
감자괴경 (종자용)	미국, 캐나다, 유럽	Potato yellow dwarf virus, Potato mop-top virus <i>Globbdera rostochiensis</i> <i>Clobodlera Pallida</i> <i>Syhchytrium endobioticum</i>
느릅나무( <i>Ulmus spp.</i> ) 묘목 및 삽수	미국, 캐나다, 유럽	<i>Ceratocystis ulmi</i>
소나무( <i>Pinus spp.</i> ) 묘목 및 접수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마카오, 한국	<i>Bursaphenhus xylophilus</i> <i>Hemiberlesia pitysophila</i>
고무나무( <i>Hevea spp.</i> ) 순, 묘목 및 종자	멕시코, 중남미	<i>Microcyclus ulei</i>
담배속( <i>Nicotiana spp.</i> ) 번식재료	미얀마, 이란, 예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i>Peronospora hyoscyami</i>
식물병원체, 해충, 유해생 물체 및 기타 GMO 물질		中國進出境植物檢疫法제5조
토양		中國進出境植物檢疫法제5조

자료: 進境植物檢疫審批名錄

는 농업부를 거쳐야 한다. 국가 임업부는 해당 수목의 리스크 평가를 통해 수입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하면 《引進林木種子苗木及其它養殖材料檢疫審批單》를 발급한다. 임업부에서 수입입목종자경영허가증과 생산허가증을 획득하고 수입묘목격리재배단지 시설허가증을 획득하고 신청가능하다. 허가증 신청에 등록자본금 3,000만 위안이 필요하며 발급기간도 수개월이 소요된다. 또 자격을 갖추어도 첫 수입에서는 수입량이 약 50 주로 제한되고 일정기간 격리재배를 해야 한다.

식물검역규정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한 품목은 식물병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흙,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하는데, <표 3-25>과 같다.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한 수입금지 식물은 우편 및 휴대품으로도 수입할 수 없다. 즉, 우리나라 소나무는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그 사유는 소나무재선충의 침입 가능성 때문이다.

그림 3-12. 중국 식물검역허가증 심사 흐름도



자료: China Inspection and Quarantine Service(www.ciqcid.com)

#### 4.4. 식물재배매질 검역<sup>7</sup>

중국은 토양(흙)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물을 수입할 때 별도의 재배매질을 이용하여야 하고, 그 수입매질도 심사비준 대상이다. 재배매질은 사용되는(즉 재배되는) 지역의 검험검역국, 예를 들면 상하이 항구/항만을 통한다면 상하이 검험검역국에 심사비준을 신청하여 접수한다. 심사비준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절차는 <표 3-26>와 같다.

재배 매개물에는 potting substratum, potting soil, potting medium 등이 포함된다. 모래(sand), 재(calcined), 광재(acoria), 비석(zeolite), 하소점토(calcined clay), 세람사이트(clay pellets), 질석(vermiculite), 진주암(perlite), 석면(rock wool), 유리솜(glass wool), 부석(pumide), 편암, 화산암(volcanic rock), 폴리스티렌(polystyrene),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플라스틱 입자(plastic particle), 합성 스펀지(synthetic sponge) 등 무기 재배 매개물 및 유기 물질에서 기인해 고온·고압 멸균 처리를

<sup>7</sup> <부록 3> 참조.

표 3-26. 식물수입의 매질 검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 신청서(공동)</li> <li>• 식물재배매질: 사용되는 저장단위의 방역평가 리포트</li> <li>• 식물재배매질을 처음 수입할 경우 매질의 출처, 성분, 생산라인 등 관련 자료와 샘플 제출(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의 지정 실험실에 송부, 수량은 1.5-5kg)</li> <li>• 식물종자, 묘목 등 번식재료: 검역심의 심사비준서, 검역허가증 신청업체 등록표</li> </ul>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신청업체는 전자식 혹은 서면으로 직속 검험검역국에 신청, 제품별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송부.</li> <li>• 접수: 직속 검험검역국은 신청업체의 제출 자료에 따라 접수여부 결정. 자료가 부족하거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자료를 받은 당일 혹은 5일 이내에 신청업체에 고지하여 보충 혹은 수정하게 함. 검험검역국에 접수된 후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 동식물사(國家質檢總局動植司)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li> <li>• 심의, 비준: 동식물사는 직속 검험검역국이 제출한 신청을 심의한 후 허가 혹은 불허를 결정하고 동시에 &lt;허가증&gt; 혹은 &lt;미허가통지서(未獲准通知書)&gt;를 발급. 심의는 검험검역국이 신청 접수일에서 20일(휴무제외)이내에 완성됨.</li> </ul>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재정부 국가입업국.

거친 토탄(peat), 물이끼(sphagnum), 이끼(moos), 수피(barks), 코코넛 껍질(cocos substrate), 코르크(cork), 톱밥(sawdust), 벼 껍데기(rice hulls), 땅콩 껍질(peanut hulls), 버가스(bagasse), 목화씨 껍질(cotton hulls)등도 포함된다.

#### 4.5. 식물검역

식물의 수출입에서 검역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중국에서 조경수 및 분재의 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 검역법, 식물검역조례(국무원 농업행정부 조례)<sup>8</sup>, 동식물 제품검역법과 관련되며,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에서 발표한 수출입동식물제품검역심사(進境(過境)動植物及其產品檢疫審批)를 거쳐야 한다. 이 심사는 직속 검사검역국(檢驗檢疫局)에 전자문서 및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범위에 는 수입 동물, 활성 수정란, 싹 및 전염물질, 수출동물 등이 포함되며, 동식물 병원체, 해충 등 유해생물과 감염 식물, 동물의 시체 등 물질은 특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는

<sup>8</sup> 수입금지품 목록, 식물유행병해충 목록, 식물유해병해충 부착식물 등의 처분기준, 검역수수료 등을 규정한 조례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中華人民共和國進出境動植物檢疫法)」과 「수출입식물과 동물제품 위험분석 관리규정(進境植物和植物產品風險分析管理規定)」 등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베이징 순의출입국검역국(順義出入境檢驗檢疫局)에서 발표한 ‘입국식물 번식재료 검역(進境植物繁殖材料檢驗檢疫)’에 의하면 입국 식물번식재료 검역 범위에 재배 또는 야생의 모든 식물(가지, 묘목, 열매, 씨앗 등)이 포함된다. 식물검역 대상물품에는 수출입 또는 경유하는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검역물, 상기물품의 용기 및 포장, 특정병해충 발생 지역에서 오는 선박, 비행기, 차량, 열차 및 이들에 들어있는 식물성 폐기물, 해체용 선박이 해당된다.

식물번식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검역 심사 수속을 먼저 하고<sup>9</sup> 무역 계약서에 검역 심사의 검역요구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 신청기업 혹은 대리인은 식물번식재료 입국 7일 전에 <입국 물품 검역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지정 검역기관에 보내 검역신고서를 해야 한다. 이 때, 식물종자, 묘목 등 번식재료는 재배지의 농업부와 임업부<sup>10</sup>에서 식물검역 심사 기준을 신청 접수한 후 수입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의 검역 심사기준서를 발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하이 항구/항만을 통해 수입하고 기타 성시(省市)에서 재배할 경우 해당 성시의 검험검역국에 접수한 후 상하이 검험검역국에 관련 허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관은 검역에 필요한 장소(창고, 재배지 등) 출입, 병해충 발생상황의 예찰, 조사 및 검역관리 감독을 하며, 검역물품의 운행일지, 운송송장, 계약서,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를 열람 및 복사, 발취할 수 있다. 입국 식물번식재료 검역은 「증명서 심사→물품 증명서 검사→현장 검역→실험실 검역」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검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조경수 및 분재는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다.

수입식물은 검역관 동의 없이 운송수단(선박, 비행기 등)에서 하역하거나 이동할 수 없으며, 화주(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식물을 운송, 선적, 하역할 때 필요한 검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지정된 검역장소(창고, 격리재배지)는 반드시 식물검역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경유화물의 경우에도 검역관이 경유식물의 운송수단(선박, 비행기 등)과 포장을 검사해서 합격한 것만 경유가 허가되며, 경유물품은 경유기간에 검역관의 허가 없이 포장을 열거나 운송수단에서 하역할 수 없다.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수입목에 대한 격리검역을 수개월 실시하기 때문에 조경수와 분재 수입업체들은 격리검역포(隔離檢疫圃)를 가지고 있다. 수출목도 수입목과 마찬가지로

<sup>9</sup> 식물종자, 종묘 및 기타번식용 물품은 반드시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sup>10</sup> 상하이 경우 우선 임업부에서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증명서(准入證明 2의 심사비준서)를 발급함. 이때, 수입업체는 요구에 부합되는 자체 혹은 임대 재배지가 있어야 하며 재배지에서 수입 묘목을 격리하여 검역함(적게는 1주일, 많게는 1년~2년까지 격리).

그림 3-13. 수입 조경수의 격리재배 표시



로 수출 전에 일정기간 격리재배를 실시하며, 격리재배 동안 검역소 공무원이 수시로 시설과 격리상황을 체크한다. 분재의 경우 격리재배할 때 땅에서 1m이상 위에 보관하며, 조경수에는 태그를 붙인다<그림 3-13>. 격리보관 장소는 정부가 지정한 곳을 선택하거나 수입자가 제공하는 격리지를 정부가 검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식물격리장의 임대료는 <표 3-27>과 같다.

최종적으로 모든 검역 검사 결과, 수입식물 등에 국무원 농업행정부가 정한 식물 유해 병해충(해충, 선충 등)<sup>11</sup> 및 잡초, 상기 병해충 이외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으면 소독, 반송 또는 소각 조치를 취한다.

조경수 및 분재 수입과 관련하여 제출 자료는 ①입국 물품 검역신고서, ②입국동식물 검역허가증(입국 금지 물품이 특별 허가를 신청할 시에 한함), ③수입 종자, 묘목의 심사 신청서/ 수입 임목 종자묘목 및 기타 번식재료 검역 신청서, ④번식재료 격리장, 창고 준비문서, ⑤수출국가 및 지역의 관할 식물검역증서, ⑥생산지 증서, ⑦무역 계약 혹은

표 3-27. 식물격리장 임대료

	단위	표준비용
온실	1m <sup>2</sup> 당/일	1
하이퍼코스트(Hypocaust)	1m <sup>2</sup> 당/일	0.5
일반장소	1m <sup>2</sup> 당/일	0.2

자료: China Inspection and Quarantine Service

<sup>11</sup> 해충은 Dacus속의 해충 및 26종의 해충을 의미하며, 선충 6종, 곰팡이 15종, 세균 3종, 바이러스 6종, 잡초 3종이 해당된다.

신용증 및 영수증 등, ⑧신청서와 포장 명단 (상자에 해당 제품의 품명, 품종, 수량, 중량 등을 표기해야 함), ⑨농업 이식유전자 생물의 안전 증서 및 이식유전자 제품 관련 문서 (이식유전자 생물만 해당), ⑩대리 검역신고 위탁서(대리 검역신고 시에 한함) 등이다. 무역, 과학기술합작, 교환, 증여, 원조 등의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물(식물성 산물)등은 수출국의 식물 위생증을 첨부해야 한다.

요약하면, 중국에서 모든 재배용 식물류는 중국 정부(중국 임업국, 검역기관)의 수입 허가증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수출검사에 합격한 다음 수출할 수 있다. 소나무, 흙, 모래, 점토 및 피트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출하기 전에 토양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수송에 별도의 재배매질을 사용한다면 매질의 샘플을 미리 보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실적이 없는 식물을 수입할 때는 병해충위험도 해석이 필요하다.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하면 중국으로 수출 가능한 묘목류는 동백, 단풍, 모과, 목백일홍, 소사나무, 석류, 산수유, 애기사과나무, 주목, 철쭉, 피라칸사, 향나무(진백) 등 12 품목이다. 기타 품목은 미리 중국에 수출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저장성 닝보에서 검역관 면담에 의하면 소나무와 벗나무를 제외하고 외국산 수목류 도입에서 수종 제한은 없다고 한다.<sup>12</sup> 중국 검역관은,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의 좋은 품종 도입을 장려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조경수 또는 분재 등을 수입할 때 통관을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sup>12</sup> 벗나무의 수입금지 이유는 불명확하지만 일본과 정치적 이유로 보임.

## 5. 중국의 조경수 및 분재 업체 조사

### 5.1. 업체 조사<sup>13</sup>

#### 5.1.1. 진화 우이현 보화생물원<sup>14</sup>

보화생물원은 저장성 진화시 우이현에 소재하며 2만 2,000평의 재배지를 가지고 있으며 동백나무, 매실나무, 나한송, 단풍나무, 배롱나무, 홍단풍, 철쭉 등 다양한 수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동백, 매실, 나한송, 단풍, 배롱나무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한다. 큰 조경수들은 주로 부유층 개인별장이나 골프장 같은 관광지로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크기와 수형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선호하는 조경수는 첫째, 모양이 예쁘게 잘 다듬어진 것 둘째, 붉은 색 혹은 분홍, 노란색 꽃이 피는 나무 셋째, 중국에 없는 특수목을

그림 3-14. 진화 우이현 보화생물원



<sup>13</sup> 조경수 해외시장조사단(연구진 참여)은 저장성 항저우, Ningbo, 진화 조경수 업체들을 방문 조사하였음(2016. 6.27~6.30). 또, 분재 해외시장조사단은 광저우, Ningbo, 상하이 분재 업체들을 방문 조사하였음(2016. 9.29.~10.3). 업체조사 내용은 출장조사에서 획득한 정보를 정리한 것임. 한편, 한-중 묘목과 원예자재 무역 전문업체로 청림원예종묘([www.qltree.com](http://www.qltree.com))가 있음.

<sup>14</sup> 저장성 진화시 우이현

그림 3-15. 가화생태과기유한공사



원한다.

수입목에 대해서는 격리 재배를 실시하고 있는데, 격리재배지는 약 1만 평으로 6개월 간 격리재배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 조경수를 수입해 올 때, 위가 오픈된 컨테이너에 담아 배로 운반하며, 약 3일 소요된다.

### 5.1.2. 가화생태과기유한공사<sup>15</sup>

가화생태과기유한공사는 조경을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로 면적은 약 6만 평이며, 14개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모기업의 핵심 사업은 리조트 사업으로, 리조트 구성에 쓰이는 나무들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수종은 황금느릅, 수양느릅, 넝쿨성 장미, 동백나무, 노랑 철쭉, 홍가시, 홍화계목, 후피향나무, 단심목련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대표 수종은 단풍나무와 호랑가시나무이다. 보통 노지에서 직경 4~5cm까지 키운 후 컨테이너로 옮겨 심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노지재배와 용기재배 조경수 가격은 거의 2배 차이가 나므로 고급 공사에는 주로 용기재배 수목을 사용한다.

### 5.1.3. 닝보 상가원예유한공사<sup>16</sup>

상가원예유한공사의 주 사업은 외국에서 나무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며 저장성

<sup>15</sup> www.jhyuanyi.com

<sup>16</sup>

(浙江省)에서 조경수 수출·수입이 가장 많은 곳이다. 면적은 약 120만 평이고, 저장성에서 유일하게 조경수 수출입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항구에서 30분 거리에 격리재배 시설을 두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일본으로 1년에 약 3천 컨테이너를 수입하며, 나한송, 동백나무, 철쭉, 단풍나무, 수양단풍 등 10여 수종을 수입한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조경수를 수입한다. 유럽에는 수출도 하는데 유럽인들이 단풍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단풍나무를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다.

상가원예유한공사에서 나무를 수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조경수의 크기이고(최대한 큰 나무로 20점 이상), 중국에 없는 새로운 품종, 중국에 있어도 수형이 특이한 나무를 원한다. 수입 조경수들은 주로 고급빌라와 개인별장 정원조성용으로 유통되며, 부(富)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 5.1.4. 홍유에(HONGYUE)<sup>17</sup>

홍유에는 2000년도에 설립되어 묘목, 화훼 등을 수입·수출하는 회사들에서 규모가 가장 큰 회사의 하나이다. 주로 수목류 수입을 많이 한다. 설립 초기에는 종자 수입과 판매를 하였으며 점차 나무 수입 부문이 커지자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현재는 수출보다는 수입한 조경수와 분재를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농장은 모두 220만 평 소유하고 있으며, 품종에 따라 별도로 만들어 놓았다. 조경수와 분재의 주 수입국은 일본, 미국, 동유럽이고, 이 밖에도 네덜란드, 독일, 이태리, 스페인, 호주 등 70여 나라와 수출입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입액은 1년에 약 400억 원(KRW)이고, 수입량은 연 200~300컨테이너이다.

홍유에는 비료, 용기, 파레트 등 원예 관련 자재와 장비들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한다. 특히 화분 용기의 경우 플라스틱부터 부직포까지 다양한 소재로 제작한다. 화분 용기는 미국과 캐나다로 많이 수출되는데 연간 200억 원(KRW)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국 사람들이 평범한 품종보다는 특이한 나무를 선호하므로 조경수를 수입할 때 크기, 특이한 수형, 고품질의 특성을 중점 고려한다.

<sup>17</sup> www.hongyue.com

그림 3-16. 홍유에(HONGYUE)



### 5.1.5. 육통원예유한공사<sup>18</sup>

육통원예유한공사는 저장성에서 유일하게 분재를 수출하는 업체로 2006년에 설립되었다. 실외 분재를 가진 곳 중 가장 큰 회사이고, 면적은 약 6만 6천 평 정도이다. 보유 수종은 30종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고, 2가지 이상의 품종을 같이 심는 경우도 있다. 분재는 약 100만 개 보유하고 있다.

미니 나한송부터 다양한 분재들을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 유럽 수출을 위해 2년 격리가 필요하다. 유럽과 계약재배하여 분 직경 15cm ~ 60cm를 공급한다. 분재는 검역소에서 와서 체계부터 시설까지 다 확인한 후에 허가를 내주고, 검사가 끝난 분재들은 무조건 땅에서 1m 위에 보관해야 한다.

세계 각지로 수출하며, 각 나라마다 수입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토 배합은 나뭇잎, 피트모스 등 그 기준에 맞춰 분을 채워 수출한다.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화분과 상토가 같이 나가지만 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나무만 보낸다. 거래하는 바이어 수는 15명이고, 육통원예유한공사에서 가장 잘 팔리는 수종은 단풍나무와 나한송이다. 중국에 유통하는 경우 경매시장, 마트, 조경업체 등등 다양한 곳으로 판매된다.

중국에서 생산된 후 2년 동안 검역국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 유럽으로 수출

<sup>18</sup> www.newtonegardening.com

그림 3-17. 육통원에유한공사



주: 좌상단의 사진은 세척장이고, 하단의 사진은 격리재배지의 전경임.

이 가능하다. 유럽은 흙에 병충해만 없으면 수출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유럽에서 좋아하는 수종은 나한송, 단풍나무이고, 수출 뿐만 아니라 수입도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다. 단풍은 20달러 정도이다.

계약농가에서 묘목이 오면 이곳에서 세척하고, 소독한 후 분에 옮겨 심어 모양을 만든다. 회양목은 주로 유럽에서 실내에서 키우는 품종으로 영하 6도에서도 자랄 수 있다. 성장속도가 느리고, 조각용으로 많이 쓰인다. 메타세콰이어는 병충해도 적고, 성장속도가 빠른 편이다. 메타세콰이어 분재의 수출가격은 FOB로 1개당 3.5\$인데, 한 컨테이너에 8,600개 정도 실어서 보낸다. 이전에 한국으로 큰 배롱나무 분재를 수출한 적이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초창기에 인프라(물, 전기, 건물 짓는 비용 등)를 지원해주고, 신품종 개발을 원할 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신품종 개발비도 보조해 준다. 또한 소득세는 절반이며, 수출 장려금도 있다.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 할 때는 먼저 중국 검역소에 수출검역을 신청하고, 보낼 나라에 예치금을 보낸 후 흙 검역을 받는다. 바이어 주문부터 수출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월쯤 바이어가 원하는 품종을 계약하고, 7월쯤 분을 피트모스 등으로 바꾸어 식재한 후, 12월쯤 유럽으로 수출된다. 배로 실어서 보낼 때, 뚜껑이 10% 정도 오

그림 3-18. 닝보 녹야산장백사원



핀되어 있는 냉장 컨테이너에 담아서 보낸다. 컨테이너에 심기 전에 소독 등으로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유럽까지 배로 약 35일 걸린다. 40ft 컨테이너에 앵글로 짠 선반 24개가 들어가는데 분재 8,000~10,000개 들어간다. 중국 부두에서 해운비는 바이어가 부담한다.

한·중·일의 분재 기술에서 거의 차이 없지만 각자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특이한 모양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중국에서도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령화되어 다양한 모양의 분재를 만들지 못하는 게 한계이다. 육통원예유한공사는 한국의 다양한 품종의 분재들을 수입할 의향이 있으므로 한국의 분재 종류와 한국 검역 규제, 조건들에 대해 교류하고 싶다. 한국의 낙상홍 분재가 흥취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분에 흙 대신 피트모스로 채워 처리를 잘 해야 하고, 중국 검역소에서 인정해준 회사가 몇 없기 때문에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고, 규모가 큰 회사를 찾아야 한다. 검역소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검사하고 관리한다.

#### 5.1.6. 닝보 녹야산장백사원(Lvyeshanju)<sup>19</sup>

2015년 4월 완공된 분재원으로 면적은 13,360m<sup>2</sup>이며, 2,500여 점의 분경을 보유하고 관람 및 판매하고 있다. 일본, 대만, 베트남 등에서 수입한 분재 500여 점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산 분재로는 소사나무 등 5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분재의 수입을 위하여 방문할 계획이라고 한다.

<sup>19</sup> 연락처: +86 139-0574-2626 Email: 13056845156@163.com

그림 3-19. Ningbo 연봉전설원에유한공사



### 5.1.7. Ningbo 연봉전설원에공사<sup>20</sup>

2014년 설립된 분재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일본에서 진백, 소사나무, 철쭉, 애기감나무 등을 수입하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분경과 차(茶)문화를 접목한 분재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분경 소비층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분재를 좋아하여 한국의 소품분재 중심으로 수입하고자 하니 한국의 검역과 통관에 협조 요청하였다.

### 5.1.8. 상하이 왕성원에유한공사<sup>21</sup>

재배면적은 28,050m<sup>2</sup>이며, 분경 12,000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대만, 유럽 등에서 수입한 분재도 800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곰솔, 섬잣나무, 진백, 등나무, 영산홍 등 30여 종이 주류인데, 상하이에는 고온지역이므로 주목은 재배하기 어렵다고 한다. 일본에서 오염송, 영산홍 등 대작 중심으로 수입한다. 소품은 50%정도는 수입하고 50%은 자체 재배생산하며, 분재 도·소매업을 함께하고 있다. 한국 분재는 우회적으로 수입되어 리스크 등 손실 우려가 크다. 한국을 방문하여 분재시장을 파악 할 의사가 있으며 2017년 아시아태평양분재대전에 참석 계획이므로 초청을 희망하였다.

<sup>20</sup> 연락처: +86 130-5684-5156 Email: 13056845156@163.com

<sup>21</sup> 연락처: +86 137-0184-9666 Email: 66wsyy@163.com

### 5.1.9. 풍경원림학회 회장 분재원<sup>22</sup>

풍경원림학회장은 철강회사 경영자이다. 분재원은 판매 목적이 아니고 철강회사 방문 외국 바이어의 관람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약 84천여 평 규모의 농장에서 진백, 나한송, 단풍, 백일홍, 고무나무 등 분재 5,000점을 관리하며, 일본과 대만 등에서 수입한 분재도 100여 점 보유하고 있다. 분재를 지면 위로 0.5~1.0m 정도의 포트를 설치하고 식재하여 굴취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 한국 개최계획인 ABFF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바이어와 분재재배자 등으로 참가단(100여명)을 조직하고 있다. 한국분재에 관심이 많으며 한국분재를 구입할 계획이다.

### 5.1.10. 베이징 화목분경원<sup>23</sup>

중국의 분경문화는 당 시대에 기원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970년대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단절되었다. 1980년대 초 다시 등장하여 중국의 분재 역사는 30여 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배품목이 유행 따라 변하는데, 주요 품목에는 용수나무(榕樹), 느릅나무(榆樹), 흑송(黑松), 황산송(黃山松), 나한송(羅漢松)이 있다. 근래 분경재배가 북쪽에 적어지고 있으나 산업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남쪽에 분경재료 생산이 산업화되는 기업 몇 군데가 있다. 분경 소재는 2만원부터 수십 만원에 이르며 최저 10배 이상 판매하고 있다. 분경 소재도 10년부터 수십 년도 있다.

분경 소비는 애호가 위주이어서 소비능력이 어느 정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분경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했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부패 방지 대책으로 분경의 선물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대형 분경을 키우기 어려움 점이 있다.

중국 북부에는 기후가 춥고, 소비 능력이 저하되어 수입 분경이 거의 없다. 반면에 남부(상해)에는 수입 분경이 많으며, 주로 일본과 대만 분경이다. 한국 분경이 많지 않지만, 미니 분경이 많다. 일본 분경이 제일 많고, 분경의 재배년수도 상대적으로 오래되어 정교하고 관리가 잘 된다. 대만분경에는 용수나무, 침엽수와 측백류가 많다.

<sup>22</sup> 연락처: +86 139-0238-1228 Email: chairman@pck.com.cn

<sup>23</sup> 북경시 하이톈구, 상펑진, 상펑저수지 북쪽 (北京市海澱區上莊鎮上莊水庫北側)

그림 3-20. 북경 화목분경원



## 5.2. 기타 업체

기타 업체는 KOTRA에 조사 의뢰하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발굴하였다<표 3-28>. 전화 인터뷰로 수입수목 취급 여부, 수입허가증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다수의 업체들이 한국산 수목의 수입의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한국산 수목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도 하다. 일부 업체들은 외국산 식물 수입 경험도 있지만 수입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위탁 통관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 희망 바이어들이 직접 수입허가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표 3-28. 중국 조경수 및 분재 업체

업체명 및 대표	기업체 개요	연락처	비고
上海市花木有限公司 -李紀華(Li Jihua)	1959년 설립. 자본금 1천만 위안. 상하이 원림녹화산업협회 이사, 녹화 장식 전문위원회 부주임, 상하이꽃꽂이협회 단체회원. 400여무(26.7만㎡)에 달하는 녹화 묘목과 화훼 화포기지를 보유하고 도시원림녹화 2급 자급과 유지보수자격을 보유.	<a href="http://www.shhuamu.com">www.shhuamu.com</a> 上海市 閘北區 粵秀路 408号 전화 86-21-6431-8706 팩스 86-21-6467-9902	수입경험: 있음(한국 난화) 한국산 수입의향: 없음(시장수요 없음) 수입허가증: 없음(위탁통관) 격리재배지: 있음
上海閔行區北橋苗圃工程有限公司 -張建強 (Zhang Jianqiang)	묘목, 화훼, 분경(盆景)과 원림 녹화 유지보수, 원림녹화 프로젝트 시공 등 업무를 위주로 하는 업체	上海市 閔行區 北橋鎮 滬閔路 2111号 전화 86-21-5446-2800 팩스 86-21-6490-1680	수입경험: 없음 한국산 수입의향: 없음 수입허가증: 없음 격리재배지: 있음
上海閔行區苗圃 -張麗麗(Zhang Lili)	전민소유제(全民所有制)기업, 상하이시 원림녹화 3급 보유. 원림녹화 계획, 시공, 묘목, 분재, 절화 등 생산과 판매 업무를 진행하는 종합적 원림 전문기업. 묘포 면적 약 500무(약 33만㎡) 보유. 그 중 현대화 온실 1만㎡, 비닐온실 3만㎡	上海市 滬閔路3045号 전화 86-21-6490-0398 팩스 86-21-5457-0022 <a href="mailto:mhmiaopu@hotmail.com">mhmiaopu@hotmail.com</a>	수입경험: 없음 한국산 수입의향: 없음 수입허가증: 없음 격리재배지: 없음
上海農工商綠化有限公司 -張佳(Zhang Jia)	도시녹화시공 일급자격, 경관원림공정설계 을급 자격, 수력 종합청부 일급자격 등 보유. 주로 원림녹화 프로젝트 설계, 시공, 보수와 수력 건설 및 묘목 생산과 판매 등 통합업무 진행	上海市 共和新路 1346号 通用大厦 9樓 전화 86-21-3205-0302 팩스 86-21-5670-1386	연결 안 됨
上海博露農業有限公司 -徐曉明 (Xu Xiaoming)	중국에서 제일 큰 잔디밭을 연구개발하고 생산, 판매 및 유지와 컨설팅 서비스 제공. 묘포(재배지) 200여무(약 13만㎡) 보유. 100여 가지 수목의 묘목과 지피식물을 재배함	上海市 奉賢區 五四農場 <a href="http://www.blueturf.com">www.blueturf.com</a> 전화 86-21-5716-2521 팩스 86-21-5716-3899	수입경험: 없음 한국산 수입의향: 없음 수입허가증: 없음 격리재배지: 있음

업체명 및 대표	기업체 개요	연락처	비고
上海花綠園綠化建設有限公司 -陳龍(Chen Long)	원림녹화 경관설계, 녹화프로젝트 시공과 보호, 식물자원 배양과 관련 컨설팅 제공 업체로 상하이 원림녹화산업협회 부회장 단위. 1500여무(약 100만㎡)의 대형 묘목기지 보유, 300여 종의 나무와 지피식물 재배.	上海市 浦東新區 張江科農路 825號 www.hualvyuan.com 전화 86-21-5857-6983 팩스 86-21-5857-9755 hualvyuan@hualvyuan.com	전화 인터뷰 거절.
上海金山園林工程有限公司 -黃冲林 (Huang Chonglin)	도시원림녹화 프로젝트시공 일급자격, 풍경원림 프로젝트설계 일급자격 보유. 200여무(약 13만㎡)의 묘목기지를 보유하고 광옥란, 느티나무, 향장, 설송(히말라야 삼목), 계화, 홍/청 단풍나무, 매화, 수사해당 등 재배. 연간 생산량은 50만 분(盆)	上海市 金山區 石化東平南路 55號 www.jinshanyuanlin.com 전화 86-21-5795-9561 팩스 86-21-5794-3261	정보 확인 불가
上海春沁生態園林建設股份有限公司 -祁軍(Qi Jun)	원림녹화계획의 설계, 시공, 시정 프로젝트 시공, 녹화 및 묘목의 생산과 판매. 국가원림녹화 일급자격, 시정공공프로젝트 시공 종합정부 2급 자격, 시정 시설 보호와 유지보수 및 환경 위생청소 자격 등을 보유. 200여무(약 13만㎡)에 달하는 재배 기지를 보유하고 묘목, 잔디, 분경, 화훼 등을 재배함	上海市 浦東 龍東大道 3000 號 1號樓 http://cqyl.lvhua.com 전화 86-21-5896-9073 팩스 86-21-5896-9070 gqyl88@public2.sta.net.cn	전화 인터뷰 거절
綠地集團森茂園林有限公司 -孫彦(Sun Yan)	상장회사인 녹지그룹의 자회사로 국가 도시원림녹화시공 2급 자격 보유. 동사는 묘목, 화훼 배양 생산과 판매, 분경 임대, 시정시공, 원림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 등 업무진행	上海市 普陀區 眞北路 2252 號 전화 86-21-3353-9955 팩스 86-21-3353-9955(8112)	연결 안 됨

업체명 및 대표	기업체 개요	연락처	비고
大連金世紀園林綠化工 程有限公司 -范存根(Fan Cungen)	전에 대련시 도시건설국에 속하는 화훼 재배기업인데 현재는 독립회사로 발전했음. 도시녹화에 필요한 나무나 화훼(플라타너스, 초본 화초등)를 수매 업무가 있음. 동시에 초본 화초 등 각종 화훼를 재배함. 대련, 산둥성에 재배기지를 설립했음.		정보 확인 불가.
大連恒美景觀園藝有限 公司 -厲志(Li\ Zhi)	주로 화훼 임대, 원림녹화 보호, 별장 장식, 실내 경관, 각종 생화생산, 판매 업무에 종사함. 주로 정부기관, 기업, 호텔, 아파트 등 장소에 공급(분재 임대업무)	遼寧省 大連市 甘井子區辛府園6号 1單元2層2号 <a href="http://www.huamu.cn/">http:// www.huamu.cn/</a> 전화 +86-411-8646-8969 팩스 +86-411-8646-8969 <a href="mailto:lizhi_dl@163.com">lizhi_dl@163.com</a>	전화 인터뷰 거절
北京欣榮花卉租擺中心 (베이징 평타이구)	주로 녹색식물, 화훼의 임대, 원림녹화 서비스를 제공함. 업무 대상은 정부기관, 기업, 호텔 등 단위임.	北京市丰台区南四環花木中心 전화 +86-13521523238 <a href="http://www.bjxrhzb.com">www.bjxrhzb.com</a> <a href="mailto:1843490740@qq.com">1843490740@qq.com</a>	수입경험: 있음(일본) 한국산 수입의향: 있음 수입허가증: 없음(위탁통관) 격리재배지: 있음
北京鄭好園藝設計有限 公司 (베이징 평타이구)	주로 식물 임대 업무를 제공함. 업무 대상은 오피스텔, 은행, 호텔, 백화점, 병원 등임. 현재 베이징에서 식물 임대 업체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임.	北京市丰台区花鄉橋南九州花卉市場, 朝陽區東三環萊太花卉市場 <a href="http://www.zhyysj.com">www.zhyysj.com</a> 전화 +86-10-57123712 <a href="mailto:747046673@qq.com">747046673@qq.com</a>	전화 인터뷰 거절
福建永福瑞楠園藝場 (푸젠福建 龍岩시)	각종 분경, 녹화묘목, 분화를 판매하는 개인 업체.	福建省永福, 漳州百花村花卉交易中心 <a href="http://chenzhiping.zghmsc.com/">chenzhiping.zghmsc.com/</a> 전화 +86-13559981835 +86-18650881015 <a href="mailto:czp886359@126.com">czp886359@126.com</a>	전화 인터뷰 거절

업체명 및 대표	기업체 개요	연락처	비고
漳浦縣富坤園藝場 (푸젠福建)	주로 묘목의 생산 및 판매를 중사함.	福建省漳浦縣沙西鎮榕樹特色 產業園 www.fukunyuanyi.com 전화 +86-596-3817933 +86-13605022262 1020771818@qq.com	수입경험: 없음 한국산 수입의향: 없음 (시장수요 없음) 수입허가증: 없음 격리재배지: 있음
誠信松園 (산둥성 萊蕪市)	묘목의 생산과 판매를 중사하 는 개인 업체임.	山東省萊蕪市大王莊鎮獨路村 chenshengmei.zghmsc.com 전화 +86-634-6378173 +86-13468255386 910624344@qq.com	수입경험: 없음 한국산 수입의향: 없음 수입허가증: 없음 격리재배지: 있음
金華市宜然苗木有限公 司 (저장성 金華市)	묘목, 화훼, 분경의 생산과 도, 소매, 녹색 프로젝트를 중사함. 재배기지가 1300여 무()가 있 음.	浙江省金華市婺城城中街道 回 溪街優詩美地 yrm66.312green.com 전화 +86-579-89123569 +86-13566776665	수입경험: 없음 한국산 수입의향: 없음 수입허가증: 없음 격리재배지: 있음
蘇州綠化無憂園藝有限 公司	업무 범위는 원림녹화, 녹화보 호, 화훼, 녹색 식물의 임대, 원 림녹화 프로젝트 등이 있음.	蘇州省蘇州市相城區蠡口花木 城 <a href="http://www.lh5u.com">www.lh5u.com</a> 전화 +86-1506247-2581 yx@lh5u.com	수입경험: 없음 한국산 수입의향: 없음 수입허가증: 없음 격리재배지: 있음
北京千喜園林綠化有限 公司	원림녹화 설계와 녹색식물 임 대 주로 하는 기업임. 생산기지 가 700무	北京市豐臺區新宮中福麗宮1號 樓408室 www.bjqxsy.com 전화 +86-10-63019277 +86-13466520677 bjqxsy@126.com	수입경험: 없음 한국산 수입의향: 없음 수입허가증: 없음 격리재배지: 있음
江蘇述陽縣富麗園林綠 化苗木	녹화묘목, 화훼분경의 재배, 판 매를 중사하는 업체임.	江蘇省江蘇市述陽縣花木區 www.miaomu.com/vip/6325 8 전화 +86-527-83391231 191897026@qq.com	수입경험: 없음 한국산 수입의향: 없음 수입허가증: 없음 격리재배지: 있음

업체명 및 대표	기업체 개요	연락처	비고
吳江苗圃集團	1951년 설립, 2000년 “성급임목 종묘시범기지”, 2012년 “국가 중점 임목 양종기지” 평가 받음. 주로 원림녹화설계, 시공, 보호 등 업무하는 업체	江蘇省 吳江市 松陵鎮 八坼社區 苗圃路 전화 +86-512-63366665 팩스 +86-512-63368777 <a href="http://www.wjimpjt.com">http://www.wjimpjt.com</a>	수입경험: 없음 한국산 수입의향: 없음 수입허가증: 없음 격리재배지: 있음
綠峰農林科技	2003년 설립, 바이오테크개발, 희귀식물 번식, 화훼묘목 생산 및 판매, 원림녹화 프로젝트 수행 및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적인 기업	浙江省 龍泉市 城東一路 232號 전화 +86-578-7111969 팩스 +86-578-7123334 <a href="http://www.zjlvfeng.com">http://www.zjlvfeng.com</a> zjlvfeng@163.com	
凌飛環境綠化	2000년 설립, 자본금 4500만 위안, 2004년 국가원림녹화1급 자질 획득, 원림녹화 프로젝트의 설계, 수행, 보호 및 묘목생산 등 업무를 수행함. 묘목기지 1800 여 무(120 만㎡)	浙江省 杭州市 蕭山經濟開發區 建設四路 전화 +86-571-22809805 팩스 +86-571-22809807 <a href="http://www.lflh.com">http://www.lflh.com</a> lfjt@lfjt.cn	수입경험: 없음 한국산 수입의향: 없음 수입허가증: 없음 격리재배지: 있음
蘇北花卉	국가중점농업선두기업, 국가원림녹화1급 자질 기업, 풍경원림설계을급 자질 기업. 주요 업무가 화목의 개발, 생산 및 판매, 원림녹화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등 있음.	江蘇省 沐陽縣 廟頭鎮 扎新路 전화 +86-527-83331008 팩스 +86-527-83332118 <a href="http://www.subeflower.com">http://www.subeflower.com</a> sbhh8888@163.com	수입경험: 없음 한국산 수입의향: 없음 수입허가증: 없음 격리재배지: 있음
黃石紅楓葉園林	2006년 설립, 자본금 2018만 위안, 주로 도시원림녹화, 경관 건축 및 장식등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녹화묘목의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함	湖北省 大冶市 七里路 金貿大廈B-13樓 전화 +86-714-8635262 팩스 +86-714-8635232 <a href="http://www.hfy8.com">http://www.hfy8.com</a> hfyweb@163.com	수입경험: 없음 한국산 수입의향: 없음 수입허가증: 없음 격리재배지: 있음
富苑科技生態	2001년 설립, 자본금 2010만 위안, 묘목과 화훼의 생산 및 판매, 원림설계, 시공, 녹화분재의 임대, 보육 등 주요 업무로 수행함	湖北省 云夢縣 城關鎮 南環路 52號 전화 +86-712-4334646 팩스 +86-712-4489068 <a href="http://www.hbfykj.net">http://www.hbfykj.net</a> hbfykj@163.com	

업체명 및 대표	기업체 개요	연락처	비고
金橋園林 -許桃芳 +86-18907294866 -夏莹 +86-18907294826	주로 경관프로젝트용 묘목과 원예식물의 생산, 판매, 원림녹화의 설계, 시공, 보호 업무를 수행함. 재배기지가 8000 여 무(533 만㎡), 묘목 품종이 200 여 종을 보유.	江西省 南昌市 朝陽洲中路41號6樓 전화 +86-791-5023052 팩스 +86-791-5023124 <a href="http://www.kingtree.cc">http://www.kingtree.cc</a> eprime@vip.163.com	
遠泉實業集團	2008년, 2010년, 2012년 연속 3차 "농업산업화 국가 중점 선두기업, 국가 구빈(扶貧) 선두기업" 획득. 재배기지가 5만 여 무(3333 만㎡), 묘목 품종이 200 여 종 보유.	江西省 上饒市經濟技術開發區 전화 +86-793-8532517 팩스 +86-793-8532826 <a href="http://www.yq88888.com">http://www.yq88888.com</a> 2444272883@qq.com	수입경험: 없음 한국산 수입의향: 없음 수입허가증: 없음 격리재배지: 있음
森禾種業股份 -張先生 +86-15988157567	2000년 설립, 분재화훼 및 녹화묘목 등 관상식물의 선택 및 육종, 번육, 신품종의 생산, 판매 등 업무를 위주로 하는 기업. 생산기지 20개, 총 3만 무(2000 만㎡)가 보유하고 있음.	浙江省 杭州市 江干區 香樟路2號19層 전화 +86-571-28932222 팩스 +86-571-28931766 <a href="http://www.senhe.com">http://www.senhe.com</a>	
杭州園林綠化	기업 소개 없음	浙江省 杭州市 凱旋路226號 전화 +86-571-86095666	수입경험: 있음(종묘수입, 국가 다양) 한국산 수입의향: 있음 수입허가증: 확인불가 격리재배지: 있음
世紀陽光園林綠化	2003년 설립, 도시원림녹화2급 자질 보유. 묘목의 생산, 판매, 녹화 설계, 시공 및 보호 등 업무 위주로 하는 기업.	浙江省 上虞市 鳳山路485號 전화 +86-575-82132551 팩스 +86-575-82123017 <a href="http://www.yggarden.312green.com">http://www.yggarden.312green.com</a>	

## 6. 대중국 조경수·분재 수출 가능성

### 6.1. 조경수

조경수의 중국 수출가능성을 검토해 보자. 중국에서 도시녹화 조경수이나 정원용 수목에 대한 수요가 높고 그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조경수는 정원수가 될 것이다. 가로수와 도시공원 등 공공 녹화에서 외국 수종을 수입하여 식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경수 수출에서 타깃으로 하는 수요처는 부유층의 정원이나 민간 건물의 정원 구성에 쓰이는 수목이다. 중국에서 정원수로 선호하는 것은 꽃이 붉거나 노랗고 수형이 좋은 대형 특수목이다. 어린 묘목은 중국에도 많기 때문에 큰 나무를 원한다. 또는 중국에 없는 수종이거나 수령이 많은 나무이거나 뛰어난 기술로 잘 다듬은 나무이다. 일본 나한송이나 스페인 올리브나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수종은 단풍나무, 배롱나무, 모과나무, 주목, 향나무 등인데 이들 수종의 대형 특수목이다. 이들 수종은 빨리 자라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나무가 제외되고 1~2m 정도의 성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 조경수 생산자의 재고를 처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 바이어들도 배롱나무, 청단풍, 홍단풍 대형목을 구입하겠다고 의사를 보였다. 이들이 원하는 규격은 30점 이상의 대형목이다. 이런 수종의 대형 특수목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생산자는 없겠지만 소량으로 재배하는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에 식물을 수출하려고 하면 중국 정부(입업국)의 수입허가증이 필요하다. 수출자가 수목을 가져다가 판매할 수 없다. 수목 수입허가증 취득이 용이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바이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한국 조경수 또는 분재에 관심있는 바이어가 일부 있으므로 바이어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조경수 수출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중국의 검역 조건이다. 중국은 흙의 반입을 금지하는데 수목 뿌리의 흙 제거를 위해 세척하는 과정에 뿌리가 손상되어 수목의 현지 활착률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수목 수출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출 수목을 피트모스에서 재배하여 뿌리 발생을 유도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

다. 수출 수목의 세척 후 뿌리 양생, 포장·적재, 수송과정의 온습도 관리 등 노하우 개발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국 바이어가 원하는 조경수 자원(대형 특수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역에서 요구되는 장애를 극복한다면 조경수 수출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 6.2. 분재

중국의 분재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인의 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여유를 찾는 계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는 중국에서 일본산 분재에 대한 선호가 높지만 일본 분재업계에서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본에서 분재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줄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분재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중국의 분재가들도 한국의 모과나무, 배롱나무, 피라칸사, 낙상홍 등에 대해 관심과 수입 의사를 보였다. 소품분재를 희망하는 바이어도 있고 1m 이하의 대분재를 희망하는 바이어도 있다. 소품분재는 일반대중용으로 판매되고 대분재는 전문가 또는 건물장식용이 될 것이다. 다만 소분재는 중국에서도 이미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차별적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D원예의 도자기 화분을 이용한 분재가 예가 될 것이다. 대분재라 하더라도 중국 또는 일본 분재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 결국 작품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분재는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독창성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이다. 따라서 한국적인 미(美)를 살려 개성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과 일본에 없는, 우리 고유 수종을 분재 소재로 활용한다면 그 가치는 배가될 것이다. 이처럼 작품성에 따라 분재의 수출 잠재력은 매우 크다.

〈참고 1〉 임목(林木)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재료 검역심사비준  
(引进林木种子苗木及其它繁殖材料检疫审批)

가. 근거 규정

○ 「식물검역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

- 외국에서 종자, 묘목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는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식물검역기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검역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외국에서 수입하고 위험성 병, 벌레가 잠복했을 위험이 있는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는 반드시 격리하여 시험재배하고 식물검역기관은 조사, 관찰과 검역을 실시한 후 해당 위험이 없음을 증명, 그 후 재배 가능함.

○ 「식물검역조례실시세칙(임업부문)」 제23조 규정에 근거

- 외국에서 임목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나 개인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삼림검사기관(森檢机构)에 <수입 임목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 검역심사비준서> 제출, 관련 검역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식물검역조례실시세칙(임업부문)」 제 23조 규정에 근거

- 외국에서 임목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나 개인은 심사비준기관의 확인을 받은 지점과 조치대로 재배해야 함. 위험성 삼림 병, 벌레가 잠복했을 가능성이 있는 1년생 식물은 반드시 격리하고 한 개 성장주기의 시험재배를 하고 다년생 식물은 2년 이상 격리하여 시험재배를 함.

## 나. 세부 내용

### ○ 관련기관

- 상하이 임업병충방치검역소(上海市林業病虫防治檢疫站)

### ○ 신청조건

- 외국에서 임목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를 수입하는 상하이 업체나 개인(혹은 대행업체)
- 대외무역계약 체결 30일 전에 신청
- 수입업체(혹은 개인)는 국가임업국의 인정을 받은 보급형 외국 종자수입 시험재배묘포(普及型國外引種試種苗圃)자격을 구비한 종묘번식기지가 있어야 함
- 세 번째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수입업체(혹은 개인)가 임목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를 수입할 경우, 성급이상 임업주관부문에서 지정한 삼림식물검역 격리시험재배묘포(森林植物檢疫隔離試種苗圃)에서 시험 재배함.

### ○ 제출서류

- 임목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재료 검역 심시비준 신청서(첨부4). 원본 1부
- 영업집조와 법인자격 증명서류. 복사본 1부
- 수입 식물재료의 격리 시험계획과 관리조치. 원본 1부
- 보급형 외국 종자수입 시험재배묘포 자격증 혹은 성급 삼림검사기관에 확인된 재배지의 토지임대협약서. 복사본 1부
-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할 경우 대행위탁협약서. 복사본 1부
- 리스크 평가범위에 속하는 수입품종일 경우, 원산지에서의 해당 품종의 병충해 발생정황 및 관련부문에서 제출한 리스크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원본과 복사본 각각 1부
- 정부, 단체, 과학연구, 교육부문의 교류, 교환, 과학연구 용도로 수입하는 품종은 관련 증명서류 제출(용도, 사용방법, 관리조치, 검역처리조치 등 포함). 원본 1부

- 수입업체와 수입품종의 재배지가 서로 다른 성시(省)에 있을 경우 수입업체는 수입품종 재배지의 성급 임업부문에서 수입을 동의하고 수입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증명서류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원본 1부
- 무역용으로 수입할 경우 업체는 임목종묘 수출입무역자격을 구비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함. 복사본 1부

#### ○ 기한

- 심사비준기관은 수입임목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 신청서 및 기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휴무제외) 이내에 심의를 진행하고 처리의견을 제출. 성급 심사비준의 권한을 넘어 국가임업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할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휴무제외)에 행정허가 결정을 제출.

## 〈참고 2〉 분재 관엽식물 제품 표준 등급

○ 농업부의 <월계류절화사업표준>과 <KIFA절화공공질량규격표준>에 따라 제정됨. 시장성을 기반으로 고객 요구에 따라 이 표준을 제정함.

- 범위: 위와 같은 표준으로 분재 관엽식물 상품의 품질 등급을 나누고, 포장, 표시, 운송, 저장기술 등을 검사함.

### ○ 정의

- 1) 관엽식물(foliage): 잎의 모양이나 빛깔을 즐기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
- 2) 분재 관엽식물(pot foliage)
- 3) 기질(media): 결합 조직의 세포가 분비한 기본 물질
- 4) 잎(leaves)
- 5) 낙엽(leaf texture): 낙엽 감촉(질감)
- 6) 엽색(leaf color): 낙엽의 색
- 7) 무늬(streak)
- 8) 수관경(crown diameter): 나뭇가지와 잎이 달린 부분으로 몸통에서 나온 줄기 지름
- 9) 높이(height)
- 10) 삼장형(triple-stake form)
- 11) 단장형(single-stake form)
- 12) 막대기 높이(stake height)
- 13) 막대기 지름(stake diameter)
- 14) 자근형(auto-root form)
- 15) 3~5편형(3~5whips form)
- 16) 병해(disease): 병으로 입은 농작물의 피해
- 17) 충해(insect pest): 해충으로 농작물이 입는 피해
- 18) 파손(breakage)
- 19) 데드마진(dead margin): 가장자리가 시드는 현상

## ○ 품질 등급/ 평가기준

- 품질 등급: 규격에 적합한 조정수는 다음과 같이 품질을 평가함
  - A 등급 : 품질이 정해진 기준에 매우 우수하다고 판별한 수목
  - B 등급 : 품질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별한 수목
  - C 등급 : 품질이 정해진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별한 수목

## ○ 검사

### 1) 검사 규칙

- 원산지, 생산량, 품종, 등급이 동일한 상품은 검사 시, 수차례 조사를 함.
- 세 번의 검사에서 수차례 랜덤 샘플링을 진행하여, 샘플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취급.
- 랜덤 샘플링 검사
- 잔디 제품의 실제 가치의 각종 지표를 점검하고 측정.

### 2) 검사 방식

- 종자순도(GB2772<sup>24</sup>규정에 따라 측정), 종자 생산력(GB2772규정에 따라 측정), 기타 종자 함량(GB2772규정에 따라 측정), 함수량(GB2772규정에 따라 측정), 신선도, 식물대 담체 균형도, 식물대 종자 균형도, 식물대 종자 밀도, 식물대, 식물대 구멍, 높이, 균일성, 색깔과 광택, 잔디 탄성, 회전저항

<sup>24</sup> 임목종자검사규정(GB2772-1999)은

[http://baike.baidu.com/link?url=\\_PUX-ABuWu0g706W5T5KcFoqoUovbk7GTucUNa\\_F-c19y0uTFqxpPnGsoOl9BvgO\\_ecdMozKPmhCpzR1f7syhK&qq-pf-to=pcqq.c2c](http://baike.baidu.com/link?url=_PUX-ABuWu0g706W5T5KcFoqoUovbk7GTucUNa_F-c19y0uTFqxpPnGsoOl9BvgO_ecdMozKPmhCpzR1f7syhK&qq-pf-to=pcqq.c2c) 참조

### 〈참고 3〉 화훼질량등급평가표준 제4부분 분재

(광저우질량기술감독국(廣州市質量技術監督局) 2002.11 발표)

#### 1 범위

DB440100/T12은 분재의 품질등급, 검역규칙, 포장, 표시, 운송 및 저장 등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였음. 광저우 시(廣州市) 내 생산 및 판매 중인 분재의 품질등급을 정하는 데에 사용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은 이 품질등급에 맞춰 분류함.

#### 2 규정성 인용문서

다음 문서의 조항은 DB440100/T12 분재 부분에 해당되는 인용 문서를 통해 규정함. 날짜가 기록된 모든 인용문서는 분재 규정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내용 오류는 포함하지 않음), 날짜가 기록되지 않은 모든 인용문서의 최종 수정본은 분재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음.

GB2828 샘플링 과정과 샘플을 순서대로 검사함. (연속적인 검사에 적합함)

GB/T 18247.3 주요 화훼제품등급 제3부분: 분재관엽식물

#### 3 전문용어와 정의

- 3.1 분경(pen jing): 작은 분으로 옮겨 심어 가꾼 관상용 식물.
- 3.2 무토양재배 재료(media): 무토양 재배에서 식물을 고정시키는 재료. 일반적으로 코이어, 토탄(草炭), 이끼, 진주암, 질석(蛭石), 암면 등을 사용함.
- 3.3 잎(leaves): 납작하고 녹색 빛의 기관으로 가지에 붙어있음.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임.
- 3.4 엽질(葉質, leaves): 잎의 질감은 단단함과 부드러움 등이 있음.
- 3.5 잎의 색깔(leaf color): 잎의 색깔을 뜻함.
- 3.6 관폭(冠幅, crown diameter): 식물의 머리부분 직경의 평균치
- 3.7 줄기 높이(height): 용기 입구를 기준으로 줄기의 가장 윗부분까지의 직선거리
- 3.8 가지 굵기(stem base diameter): 가지의 직경 굵기

3.9 기하학적 디자인(geometry sculpt): 예로 반구(半球)형 등 규칙적인 모양의 화분 형식을 말함.

3.10 배열식(arrangement sculpt): 가지의 배열식 분포

3.11 병균(disease): 병원체(진균, 세균, 박테리아 등)의 감염 혹은 생리 원인으로 발생하는 반점, 괴사, 구멍 등 피해

3.12 해충(insect pest): 해충으로 인한 구멍, 퇴색, 반점 등 피해.

3.13 파손(breakage): 인위적으로 발생한 구김, 구멍, 손상 등 피해.

#### 4 질량등급

4.1 평가원칙: 분재식물의 질량등급은 다음 원칙에 맞게 책정함.

4.1.1 분재식물의 질량등급은 규격표준과 품질표준이 결합된 평가방식임.

규격표준은 숫자로 표시함.

품질표준은 글자로 표시함.

4.1.2 분재식물의 질량등급 책정은 간단명료하고 특징이 잘 나타나며 사용이 쉽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4.2 분재식물의 질량등급 책정 공공기준은 <표 1>을 참고

4.3 주요 분재식물의 질량등급: 오렌지자스민(*Murraya exotia*), 산지갑(*Ligustrum si-*

<표 1> 분재의 질량등급 책정 공공기준

항목	등급		
	1급	2급	3급
디자인 효과	줄기가 가지런하며, 선이 아름다움. 배열방식이 분명하고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함.	줄기가 가지런하며, 선이 아름다움. 배열방식이 분명하고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함.	약간 옷자라거나 털 자라는 현상이 있음. 가지가 부실함.
	잎이 크고 빛남. 전체적인 대칭이 잘 맞고 조화로우음.	잎이 크고 빛남. 전체적인 대칭이 잘 맞고 조화로우음.	잎이 크고 빛남. 전체적인 대칭이 잘 맞고 조화로우음.
잎의 상태	건강하고 튼튼하며 잎의 생김새, 크기, 빛깔이 품종의 특징에 부합함.	건강하고 튼튼하며 잎의 생김새, 크기, 빛깔이 품종의 특징에 부합함.	건강하고 튼튼하며 잎의 생김새, 크기, 빛깔이 품종의 특징에 부합함.
병균 및 해충	병균이나 해충이 없음. 가지 부러진 곳 없음.	병균이나 해충이 없음. 가지 부러진 곳 없음.	약간의 해충과 연한 반점 있음. 가지의 약한 손상.
재배 재료	소독처리를 거친 무토양재배 재료		

&lt;표 2&gt; 분재식물의 질량등급 책정 기준

형 태	규 격(단위: cm)				
	규격	화분 규격 (길이×너비×높이)	가지 굵기	관폭 (길이×너비)	전체 높이
디자인 효과	10	10×7×4	≥1.2	11×9	16±1.5
	20	20×12×6	≥2.0	21×15	26±1.5
	30	30×18×7	≥3.5	31×20	38±1.5
배열 방식	15	15×9×5	≥1.3	20×15	28±1.5
	25	25×15×6	≥2.5	30×20	38±1.5
	35	35×21×8	≥4.0	40×30	55±1.5

nense, 목서과 당광나무), 용수(*Ficus microcarpa*), 작매(*Sageretia thea*, 갈매나무과 작매), 참느릅나무(*Ulmus parvitolia*), 나한송(*Podocarpus macrophyllus*) 등 분재식물의 질량등급 책정 기준은 <표 2>와 같음.

## 5 검사 방법

- 5.1 규격은 직접 측정으로 진행. 관폭(冠幅), 전체 높이, 화분 직경, 화분높이, 줄기의 굵기 등은 자, 줄자, 버니어 캘리퍼스를 통해 측량함. 단위는 cm. 오차는 1mm 이내.
- 5.2 품질은 전문 기술자가 측정함.
- 5.3 재배 재료: 소독처리를 거친 무토양 재배 재료. 생산에 필요한 요구이며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5.4 병균, 해충: 식물이 지역이나 국가를 거칠 때 위험한 병균, 해충이 있는지 검사함. 식물이 이미 감염되었는지 반드시 검사해야 함.

## 6 검사 규칙

- 6.1 같은 장소, 같은 수량, 같은 품종의 제품을 검사 한번으로 간주.
- 6.2 샘플은 검사 결과에서 채집하며 단위는 분(盆)임. 분재식물 검사 시 전체적인 효과, 잎의 상태, 병균 및 해충 유무, 재배 재료를 각각 5.1~5.4의 규정에 맞춰 샘플의 수와 합격여부를 판단함. 일반 검사 수준 I 을 기준으로 함. 합격 품질 수준(AQL)은 15임. <표 3>과 같음.
- 6.3 결과 판단
  - 6.3.1 분재식물 질량 등급은 3단계로 나뉘며, 3급보다 낮은 등급은 자격미달.

&lt;표 3&gt; 샘플

생산량 범위	샘플 크기	합격판정 수량 Ac	불합격판정 수량 Re
51~90	5	2	3
91~150	8	3	4
151~280	13	5	6
281~500	20	7	8
501~1,200	32	10	11
1,201~3,200	50	14	15
3,201~10,000	80	21	22

6.3.2 분재식물 등급 판정: 분재식물 질량등급 책정 기준에 의해 평가는 이루어지며, 각 항목의 관련 기술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책정.

6.3.3 수치별 등급 책정: 등급 책정 수치 중 한 수치가 동시에 두 개 등급의 평가 수치를 만족할 시, 이 수치가 두 등급의 평가 수치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함. 두 등급에서의 수치가 다를 경우, 낮은 등급이나 높은 등급 중 한 등급으로만 책정해야 함.

6.3.4 샘플 및 제품 검사 등급의 판정: 샘플 중 분재식물의 등급에 따라 <표 3>의 기준으로 판정함.



## 제 4 장

### 외국의 수목 수출 관련 사례

#### 1. 일본의 수목 수출사례와 지원제도<sup>25</sup>

##### 1.1. 조경수·분재 생산현황

조경수와 분재는 크게 가드닝의 일부이다. 야노(矢野)경제연구소(2016)는 매년 가드닝 시장 규모를 조사하는데, 2015년 시장 규모를 2,250억 엔으로, 2016년도 시장규모(예측)는 2,255억 엔으로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식물분야(2016년)는 생산자 출하액 기준으로 932억 엔으로 추산하였다. 여기에는 화단용 묘목, 야채·과수묘, 꽃나무, 구근, 잔디·지피 식물, 화분식물 등이 포함된다.

조경수에서 녹화와 가로수에 사용되는 녹화수종은 일본식목협회에서 매년 공급가능량을 발표한다<표 4-1>. 2016년도 녹화수종 공급가능량은 4,743만 본이며, 전년과 비교하면 약간 감소하였고, 전성기(1994년 1억 7,800만 본)와 비교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이다. 수종군으로 보면 지피식물(48.8%), 저목 상록수(20.5%), 컨테이너 수목(19.0%) 순이다. 재배방법을 살펴보면 노지재배가 32.2%인 것에 비해 컨테이너 재배는 67.8%로 거의 3대7에 이른다. 컨테이너 재배는 식재 노동력이 절감되고 활착률이 증가하며 유통 하자

<sup>25</sup>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세계농업』 195호(2016.11)에 게재하였음.

표 4-1. 녹화수종 공급가능량의 추이

단위: 천 본

		1994	2000	2010	2013	2014	2015	2016
고 중 목	침엽수	3,358	2,303	2,051	1,834	1,717	1,443	1,325
	상록활엽수	7,504	3,840	1,640	2,498	2,470	2,042	2,190
	낙엽활엽수	3,707	2,521	1,463	998	917	941	936
	계	14,569	8,664	5,154	5,330	5,104	4,426	4,451
저 목	상록활엽수	60,073	27,366	12,861	12,523	11,118	9,245	9,713
	낙엽활엽수	12,548	4,018	1,869	1,430	1,420	1,040	1,027
	계	72,621	31,384	14,730	13,953	12,538	10,285	10,740
원형만들기		911	390	63	50	44	34	29
사방용 수종		12,971	809	39	30	48	0	12
특수수종		530	121	54	69	55	58	53
노지재배 소계		101,602	41,368	20,040	19,432	17,789	14,803	15,285
수목류		23,433	17,379	9,163	10,492	10,876	8,880	9,006
지피식물		53,799	54,275	25,850	22,187	23,496	23,933	23,139
컨테이너재배 소계		77,232	71,654	35,013	32,679	34,372	32,813	32,145
합 계		178,834	113,022	55,053	52,111	52,161	47,616	47,430

자료: 일본녹화센터(<http://www.jpgreen.or.jp/>)

발생이 적다는 장점을 가진다.

주요 수종군의 종류별 내역을 보면 지피식물은 소엽맥문동(21.5%), 꽃잔디류(13.3%), 조릿대류(6.3%)로 구성된다. 컨테이너 수목은 황금실화백(6.6%), 다정큼(5.6%), 홍가시(5.5%)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개 수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내외이다. 고목(高木)에서 침엽수, 상록활엽수, 낙엽활엽수의 공급 가능량은 최근 4년간 3:5:2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침엽수는 주로 편백, 삼나무, 낙엽송 등이 많고, 고중목 상록수에는 겨울동백, 가시나무, 은목서, 애기동백류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 고중목 낙엽수에는 왕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산딸나무 등이 다수이다. 저목 상록수에는 영산홍(43.4%)과 자산홍을 비롯하여 철쭉류가 다수이며, 저목 낙엽수에는 단풍철쭉, 조팝나무류, 화살나무, 수국 등이 다수이다.

농림수산성은 꽃나무(花木) 생산현황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조경수와 분재도 포함된다 <표 4-2>. 후쿠오카, 치바, 카고시마, 미에, 사이타마, 아이치 등이 대표적인 주산지로서 통계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국에서 수목 재배면적과 출하액 모두 감소 경향을 보인다. 생산자의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으로 폐업이 늘고 있다. 생산자 감소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다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도시개발 감소로 수요가 줄어 수목 생산업계 전반의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주택들이 서양풍

표 4-2. 일본의 수목류 생산현황

## ①재배면적의 추이(단위: ha)

	2010		2011		2012		2013		2014	
1위	후쿠오카	1,097	후쿠오카	1,059	후쿠오카	1,012	후쿠오카	975	후쿠오카	933
2위	치 바	707	치 바	628	치 바	642	치 바	637	치 바	618
3위	카고시마	628	카고시마	616	카고시마	613	카고시마	588	카고시마	532
4위	미 에	591	미 에	564	미 에	551	미 에	552	미 에	553
5위	아이치	511	아이치	496	아이치	488	아이치	482	아이치	469
전국	전 국	5,561	전 국	5,201	전 국	4,834	전 국	4,689	전 국	4,178

## ②출하액의 추이(단위: 백만 엔)

	2010		2011		2012		2013		2014	
1위	치 바	6,455	치 바	6,354	치 바	6,791	치 바	7,402	치 바	6,863
2위	후쿠오카	5,840	후쿠오카	5,487	후쿠오카	5,107	후쿠오카	4,736	후쿠오카	4,365
3위	아이치	4,580	아이치	4,408	아이치	4,229	아이치	4,254	아이치	4,244
4위	미 에	2,063	미 에	1,966	미 에	1,917	사이타마	1,901	사이타마	2,445
5위	사이타마	1,587	사이타마	1,800	사이타마	1,855	미 에	1,896	미 에	1,896
전국	전 국	27,720	전 국	26,195	전 국	25,857	전 국	25,712	전 국	24,640

## ③재배농가수의 추이(단위: 호)

	2010		2011		2012		2013		2014	
1위	후쿠오카	2,518	후쿠오카	2,479	후쿠오카	2,435	후쿠오카	2,433	후쿠오카	2,414
2위	치 바	1,960	아이치	2,180	아이치	2,165	아이치	2,117	아이치	2,106
3위	사이타마	1,289	치 바	1,710	치 바	1,632	치 바	1,490	치 바	1,490
4위	카나가와	570	사이타마	1,438	사이타마	1,239	사이타마	1,239	사이타마	1,239
5위	카가와	460	카나가와	750	미에	1,072	미에	1,072	미에	1,072
전국	전 국	9,303	전 국	11,268	전 국	11,262	전 국	10,890	전 국	10,207

자료: 農林水産省, 花木等生産状況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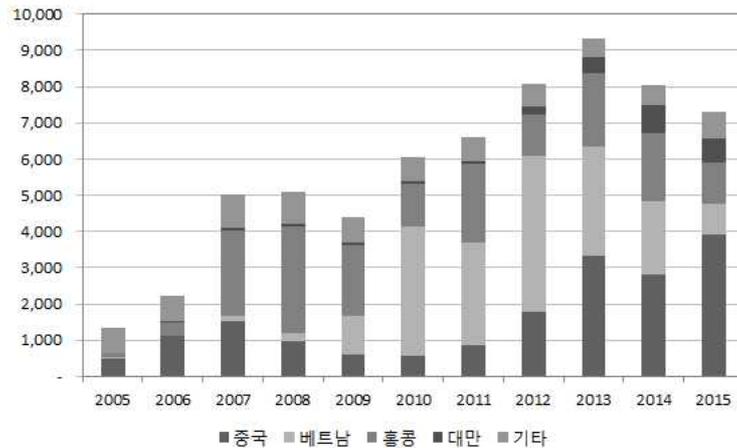
으로 바뀌고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 거주가 늘면서 조경수 선호도 바뀌고 있다. 전통 정원에서 많이 쓰이던 소나무와 나한송에서 유럽산 올리브나무 등으로 선호가 바뀌고 있다. 또, 벌레가 적어 관리하기가 쉬우며, 잎이 잘 떨어지지 않아 청소가 쉬운 나무들을 선호한다. 일본의 분재는 높은 기술 수준과 예술성을 자랑하지만 생산자의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으로 분재 생산도 위축되고 있다.

## 1.2. 조경수·분재 수출 현황

지난 10년간 일본의 조경수·분재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 수출액은 93억 엔에 이르는데 조경수의 비중이 크다. 조경수·분재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베트남, 중국,

그림 4-1. 일본의 조경수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엔



주: HS Code 060290

자료: 한국무역협회

홍콩이다. 베트남과 홍콩으로 수출하는 수목들도 궁극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 본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식물검역조건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좋은 조경수는 주로 중국으로 가고,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은 베트남, 홍콩으로 보낸다고 한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종에는 나한송, 오엽송, 흑송, 배롱나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나한송의 비중이 크다. 수목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나한송 등의 일부 자원의 고갈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반대로 관엽식물과 다육식물은 중국에서 많이 수입한다. 2000년경에 처음 대만과 거래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목을 직접 수출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만을 거쳐 수출하였다. 일부 수출업자들은 여전히 대만과 베트남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조경수 수출이 활성화된 것은 고급 조경수를 원하는 중국의 수요와 조경수 시장의 침체를 겪게 된 일본 생산자들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택의 정원에 나한송, 소나무 등 큰 나무들을 많이 심었지만 현재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형태가 많아져 대형 수목의 수요가 크게 줄었다. 이에 생산자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져 필요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큰 나무들을 중국에 수출하게 된 것이다. 농산촌 인구 감소와 함께 폐농가의 정원수를 수집하여 수출하기도 한다. 수출 초기에는 경기부진과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잉여 수목들을 싸게 넘기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중국 바이어들의 수가 많아졌고 일본에도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아졌다. 옛날에는 중국

의 최종 구매가격이 일본 판매가격의 10배가 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2~3배 정도라 한다. 일본산 조경수는 가격이 낮으면서 상품성이 뛰어나 중국 바이어의 선호가 높다.

식물의 수출입에는 까다로운 검역과정이 필수이다. 대개의 국가에서 토양의 반입을 금지하는데 흙에 선충과 해충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을 수출할 때는 뿌리를 세척하고 약제에 침적소독한 후 피트모스로 포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척 과정에 뿌리가 손상되면 이식 후 활착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아예 피트모스에서 일정 기간 재배하여 잔뿌리를 자라게 하고, 그 동안 재배과정을 잘 관리했다는 증거를 첨부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은 수목전문가를 상대국에 보내 식물의 활착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수입업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 1.3. 수목 수출 전략

#### 1.3.1. 농림수산성

일본 농림수산성의 수출확대전략에서 수목은 중요한 품목의 하나이다. 수목 수출이 해당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문화상품 수출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에서 일본산 수목류는 다양하고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표 4-3. 수목 수출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주 체	역 할
수출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업자는 JETRO를 통한 해외 바이어 초빙, 견본시장 출전, 국내 상담회 참가 등을 통해 나한송 이외의 식목 분재 등도 포함하여 새로운 수출품목을 홍보함</li> <li>2017년 세계분재대회(사이타마)에서 PR을 협력</li> </ul>
JET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시장에 일본 파빌리온 출전과 해외 바이어를 초빙한 국내상담회의 개최, 수출에 필요한 절차의 정보제공</li> </ul>
전국꽃나무수출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역과 통관이 원활하지 않는 국가의 검역과 통관절차를 조사하고 대응방법 검토.</li> <li>식목의 선충대책으로 재배단계부터 예방하는 기술의 정보 수집과 공유, 기술개발과 실증연구, 세미나 개최</li> </ul>

자료: 농림수산성

다. 조정수와 분재 생산과정에 세밀하게 관리하고 다듬는 기술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수출확대전략에서 수목 수출목표를 2020년 150억 엔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바이어를 초빙하여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척하는 것과 선충 방제기술을 개발하여 식물검역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수출확대 전략의 내용이다. 또, 시장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안정시장(중국)에서는 시장 수요와 소비 니즈에 따라 견본시장의 실연 등으로 트렌드성을 가지게 하여 일본산 꽃나무 브랜드의 침투와 지속적 거래 확대를 도모한다. 신흥시장(EU, 터키, 러시아)에서는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바이어 초빙과 견본시장 출품으로 일본산 수목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나한송 수출이 많아지면서 자원 고갈을 우려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회양목, 단풍, 소나무 등 신상품 개발과 판촉을 도모하고자 한다. 조정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업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품목 수출협의회 등 관련 주체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대응하는데 그 내용은 <표 4-3>와 같다.

### 1.3.2. 치바현 수목진흥계획

치바현 소사시의 수목 생산은 明治시대에 시작되어 大正시대에 직업으로서 본격화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목 생산자는 6가구에 불과하였으며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관상용 수목을 조금씩 공급하는 정도였다. 1923년 오사카의 수목구매업자가 병해충과 추위에 강한 요우카이치바(八日市場)의 나한송을 보고 이것을 관서방면으로 출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수목 생산이 확산되었다. 현재 치바현 소사시는 일본에서도 수목 생산의 대표 산지이다<sup>26</sup>. 치바현의 수목생산 면적은 832ha(2005년)에서 638ha(2013년)로 감소하였으며 소사시의 비중은 75%이다. 생산액은 67억 엔(2005년)에서 74억 엔(2013년)으로 증가하였으며, 소사시의 비중은 30%이다.

치바현 수목은 나한송과 소나무 그리고 회양목과 주목 등 조형물이 중심인데 공공과 민간 녹화목, 가정용 화분식물, 옥상과 벽면녹화용 등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여 생산된다. 나한송이 80%이상이고, 그 밖에 오엽송, 배롱나무, 동백나무, 단풍나무, 철쭉, 소나무류, 회양목, 주목, 향나무 등이 있다. 녹화수종으로 녹나무, 후박나무, 돌참나무, 가시류, 돈나무, 다정큼나무, 사스레피나무, 편백, 화백, 노간주류, 물푸레나무, 올리브, 감탕나무, 단풍, 홍가시를 생산하고, 지피식물로는 조릿대, 송악류, 맥문동류가 많다.

<sup>26</sup> 치바현 소사시 홈페이지

그림 4-2. 치바현 수목 생산지



자료: 치바현 배포자료

온난한 해안가 지역에서는 나한송과 소나무류를 비롯한 상록수를 주로 생산하며 인바군 등 내륙에서는 침엽 상록수부터 낙엽수까지 폭넓은 수종을 생산한다. 그러나 수목생산업의 후계자가 부족하여 생산·경영의 노하우와 고도의 수예(樹藝)기술을 차세대로 전승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또,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여 포장(圃場)의 집약화와 관수설비 등 시설화·기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주력상품이라 할 수 있는 나한송에 피해를 주는 해충의 서식지 확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형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종합 방제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94년부터 중국 등 동남아시아와 EU로 조형수를 수출하면서 수목은 치바현 농림수산물 수출을 이끄는 품목이 되었다. 치바현의 수목 수출액은 45억 엔에서 35억 엔으로 줄었지만 일본 수목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아시아, 유럽, 중동, 러시아이다. 치바현 수목의 브랜드화를 위해 국내외 니즈에 따른 신제품 육성과 우량계통의 선발·보존, 안정된 판로의 확보 등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지원을 갖추고자 한다.

치바현은 수목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고양하기 위한 정책을 두 가지 시행하는데, ‘전통수예사 양성’과 ‘명목(銘木) 100選 인증’이다. 치바현에서 식목전통수예사(植木傳統樹藝士)는 전통수예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에서 수목과 녹화 관

런 상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중국, 독일, 이태리 등에 가서 수출 수목의 현지 적응과 관리기술을 지도하기도 한다. 치바현에서 명목(銘木)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원수 목이면서 나무형태를 유지한 채 유통이 용이해야 하며, 치바현 생산자의 탁월한 수예기술로 관리하여 거의 30년 이상 재배된 수목으로 예술적 품격을 갖추고, 치바현에 식재되어 있어야 하며 장래에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명목으로 선정된 나무들은 수출하는 것도 가능한데 프리미엄이 붙어 더 비싼 값에 수출할 수 있다. 구입한 나무는 10년 이상 재배해야 하며 나무의 굵기와 모양 등을 심사하는 데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 2016년 3월 현재 84호가 인정되었다.

치바현에서 추진하는 수목진흥정책에는 재배 규모를 늘리는 것과 풀베기, 관수 튜브 자동화 등 기계화 추진이 있다. 기계화하려면 단위 포장의 규모가 증대되어야 한다. 보통 10~30ar 정도 규모의 포장(圃場)에서 재배하는데, 재배면적을 3ha로 늘리고자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한다. 수출장려를 위해 해외 전시회 출품할 때 물류비(교통비, 운임비, 임대료 등)의 50% 보조를 해주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 사업도 있는데 TPP 대응책의 일부로서 수행하는 수출 지원사업이 있다. 치바현 농업시험장은 수목(조경수와 분재) 수출 지원을 위해 수입국의 검역 대응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토양 선충처리 약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럽으로 수출하는 주목과 회양목에서 네마바스타를 사용하였을 때 수송과정에 고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치바현의 수목 수출액은 45억 엔에서 35억 엔으로 줄었지만 주요 수목 수출대상국은 아시아, 유럽, 주동, 러시아이다. 미국, 호주, 이태리에 품종 등록을 하였으며 이를 행정 지원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새롭게 품종개발한 나무를 보냈을 때 복제 가능성이 높고 육성자 권리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신품종 나무를 보내지 않는다.

한편, 일본 군마현은 2년 전부터 중국에 안테나숍을 열어서 일본 나무들을 보여주고, 소비자 반응도 살펴보고 있다. 오엽송, 나한송, 배롱나무, 동백나무, 주목, 철쭉, 단풍, 은행 등이다.

### 1.3.3. 사이타마현 오오미야분재 브랜드화 사업<sup>27</sup>

오오미야(大宮) 분재촌은 사이타마시의 주요 관광자원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택지가 되면서 지가가 상승하여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였고 분재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국내 시장의 축소로 장래의 발전과 존속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sup>27</sup> [http://www.stib.jp/pdf/prpdf24/pr24\\_005\\_bonsai.pdf](http://www.stib.jp/pdf/prpdf24/pr24_005_bonsai.pdf)

이에 사이타마현은 오오미야 분재의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한다. 분재는 국내외 다수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또, 긴 역사와 풍토에서 육성된 문화예술이기도 하다. 다음 세대에 이어갈 필요가 있으며 활성화 시책이 시급하다. 오오미야 분재를 세계적 브랜드로 확립하여 해외 관광객과 해외 판로 확대를 도모하여 오오미야 분재촌을 중심으로 분재산업 전체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오오미야 분재의 JAPAN 브랜드화 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오미야 분재 컨셉을 예술성 높은 분재의 최상급 브랜드로 하며, EU의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다. EU에 대해서는 이미 식물검역 대응체제가 정비되어 있고 일본산 분재의 수출실적도 있으며 오오미야 분재촌과의 인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8회 세계분재대회(사이타마) 개최를 계기로 해외 바이어를 초빙하여 상담회를 개최하여 판로를 확대하고 국내 시장을 재활성화한다.

## 1.4. 조경수 수출업체 조사

### 1.4.1. 카와시게엔(川繁園)

카와시게엔(有限會社 川繁園)은 치바현 소사시에 위치하며 1925년 창업하여 현재 川口和繁 대표가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2005년부터 중국에 나한송 수출업무를 하고 있는데, 매출에서 수출의 비중이 90% 이상이다. 자체 생산하는 수목들도 있지만 다른 생산자로부터 또는 일반 수목 소유자로부터 수목을 사들여 키우고 다듬어 상품화하는데, 둘레 120cm의 대형목을 사들인다. 폐업 생산자 또는 폐농가 정원의 나무들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입한 나무들을 상품화하는 데 5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대형 대목에 작은 접종묘를 접목하여 짧은 시간에 수형 좋은 대형목을 생산할 수 있다. 카와시게엔은 붉은 싹이 나는 나한송 품종을 육성하였는데, 앞으로 국내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여 해외에도 품종등록하고 있다.

수목 수출 초기에는 경기부진과 조경수 생산자의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잉여 수목들을 저렴하게 넘기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중국 바이어들의 수가 많아져서 수출 수목들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옛날에는 중국 최종 소비자의 구매가격이 일본 생산자 판매가격의 10배가 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2~3배 정도이다.

그림 4-3. 조경수 수출 전문 생산자(일본 카와시게엔)



주: 좌하단 사진은 업체가 보유한 명목의 하나인데, 수령이 250년임.

과거에는 홍콩 또는 대만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수출했지만 지금은 중국 검역당국 기준을 따르고, 1년에 2회 중국 검역원이 와서 포장 검사를 하여 수목을 수출한다. CCIC (중국검험인증,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Co. Ltd)라는 중국의 검사대행기관이 일본에 있는데, 이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나무를 검사하고 나무마다 라벨을 붙인다. CCIC 직원의 1회 출장수당은 6만 엔이다. 중국 검사관이 올 때는 5명 정도 오는데 수출업체에서 70만 엔씩 분담하게 된다. 이렇게 확인한 수목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최소한의 흙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피트모스로 포장하여 보내면 통관할 수 있다.<sup>28</sup>

<sup>28</sup> 중국 출장조사에서 청취한 바에 따르면 일본 나한송에 대해서 약간의 흙을 허용한다는 공문이 있다고 함. 이는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협조사항인데 예비검역을 받아야 함.

카와시게엔의 중국 바이어는 20~30명 정도이며, 중국 바이어들이 수출통관회사를 통해 일본에 와서 조경수 생산지를 둘러보고 가격을 협상한다. 계약이 되면 카와시게엔은 나무를 굴취·포장하여 컨테이너에 실어 항구(토쿄 항 또는 요코하마 항)에 보내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수출업체가 통관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 조경수 시장을 전망해볼 때, 현재 조경수 생산자 감소로 조경수 공급이 줄어 가격이 다소 오를 수도 있겠지만 도시개발 감소로 수요가 줄어 위기라고 인식한다. 특히 일본 전통주택들이 서양풍으로 바뀌면서 수목 선호도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벌레가 적고, 관리가 쉬우며, 잎이 잘 떨어지지 않아 청소가 쉬운 나무들을 원한다.

한편, 해외 조경수 시장을 살펴보면 중국을 포함해서 동남아 수출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경제도 옛날 같지 않고, 과거 나한송 취급이 다수였던 중국이 유럽에서 올리브와 같은 다양한 나무들도 수입하고 있어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중국은 과거 품종에 전혀 관심 없고, 단순히 나무 굵기와 높이, 모양에 관심 있었지만 지금은 취향이 다양해져서 특이한 품종의 나무를 원하는 추세이다. 중국에서 최근 부정부패 금지정책 때문에 큰 나무를 구매하면 경찰들이 조사를 나오기도 하여 조경수를 수입할 때 나무 굵기를 제한하기도 한다.

중국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데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우 나무를 굴취하기 전에 대금을 받으며, 뚜껑이 없는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큰 나무도 수출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에 수출할 때는 나무를 실은 배가 유럽 항구에 도착하여야 대금을 받는다. 수송 도중에 나무가 고사하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다. 또, 컨테이너의 뚜껑을 닫아야 하므로 나무의 크기에 제한을 받는다. 유럽의 식물검역조건에 대응하여 수출식물은 지면에서 50cm 위의 단상에서 최소 2년을 격리재배 해야 한다.

#### 1.4.2. KAKUTA-GREEN

카쿠타그린은 치바현 소사시에 위치하며 노지 5ha, 시설 2ha 생산포장에서 수목을 생산한다. 조경수와 분재를 생산하여 내수 판매와 수출을 진행하는데, 중국으로는 나한송, 단풍나무, 배롱나무, 애기동백, 철쭉 등을, 유럽으로는 오엽송, 주목, 향나무 등을 주로 수출한다.

유럽의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은 상당히 까다롭다. 유럽에 수출하는 분재는 지면에서 50cm 위에 띄워진 단상에서 최소 2년 격리재배를 해야 한다. 유럽 검역기관에서 각 나무마다 등록표시 태그를 달고, 추적 조사한다. 이렇게 재배한 분재는 흙을 부착하여 수

그림 4-4. 카쿠타 그린의 대형 분재 생산지



출할 수 있다.

수출할 때는 포트에서 나무를 뽑아 그물로 싸며 선충제거 약제를 처리한다. 냉장 컨테이너에 담아 5℃를 유지하도록 하며, 유럽에 도착하는 데 약 30~40일 소요된다. 또한 선충이 있거나 과거에 선충제거약을 친 경험이 있으면 유럽에 도착해서도 약 6개월간 격리재배를 하게 된다. 포트에서 격리재배를 하는데, 포트가 검은색이라 여름에 햇빛을 받으면 내부 온도가 44도까지 올라 나무가 죽는 경우도 발생한다.

## 1.5. 조경수·분재 수출에 필요한 기술

### 1.5.1. 수출 수목의 전처리 작업<sup>29</sup>

피트모스, 살선충제, 소석회, 부직포 자루(흙차단용)를 준비한다<그림 4-5>. 피트모스는 산성이므로 소석회로 pH를 조정한다. pH 4.5~5.5에서 식물특성에 따라 조정한다.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뿌리를 씻어 토양을 제거한다. ②부직포 자루에 나무를 담는다. ③새로운 배토(피트모스)에 혼합할 살선충제를 준비한다. ④피트모스와 살선충제, 소석회를 혼합한다. ⑤지면에 구덩이를 파고 부직포 자루째 나무를 넣고 배토를 채워 입

그림 4-5. 수출 수목의 전처리 방법



자료: 日本産花き輸出マニュアル (2008)

<sup>29</sup> 日本産花き輸出マニュアル (2008)

그림 4-6. 수출 수목의 적재 방법



자료: 日本産花き輸出マニュアル (2008)

구를 묶는다. ⑥출하할 때 나무를 굴취하여 바깥의 배토를 털어낸다. ⑦부직포자루 바닥에 앞(④)에서 만든 피트모스를 깎는다. ⑧나무를 자루에 담고 피토모스를 채워 넣는다. ⑨뿌리 포장을 한다.

부직포를 지면에 묻으면 급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지만 뿌리가 활착하기까지 관수를 하는 편이 좋다. 식물상태에 따라 3개월 정도면 새로운 뿌리가 나온다. 피트모스가 변성하면 수입국에서 토양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출하할 때 표면의 배토를 털어내는 것은 부직포대에 선충이 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뿌리 처리에 이용하는 배토에도 살선충제를 사용한다.

### 1.5.2. 수출 수목의 적재 방법<sup>30</sup>

수목을 항구로 보내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그림 4-6>. ①큰 통에 살선충제(란네트 800배 희석액 등)를 준비한다. ②약제에 수목의 뿌리 부분을 담가 살균한다. 식물검역을 받은 다음 ③컨테이너를 수목 적재장소로 가져온다. ④컨테이너에

<sup>30</sup> 日本産花き輸出マニュアル (2008)

수목을 적재하고 ⑤그 위에 살충제를 살포한다. 배달 도중에 알이 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⑥컨테이너를 닫고 출하 항구로 보낸다. 온도 설정에도 주의해야 한다. 주목이나 팡팡나무류는 2℃ 정도, 나한송은 5℃ 정도가 적당하다. 중국으로 수출할 때는 오픈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다.

### 1.5.3. 수출 수목의 양생기술<sup>31</sup>

수목을 안전하게 수출하기 위해 팡팡나무, 나한송, 주목, 오염송의 뿌리 세척과 이식 적기는 각각 4~7월, 3~7월, 3~5월, 3월이다. 뿌리를 씻고 피트모스에 이식한 다음, 차광을 60% 정도의 환경에서 2~3개월 양생한다. 뿌리를 세척하고 이식한 다음 차광에 더해 폴리시트로 지상부를 덮어주면 가을 이후 새로 발생하는 잔뿌리가 증가하여 품질이 향상된다.

수목의 뿌리 세척은 수도보다 약간 높은 압력(2.5kgf/cm<sup>2</sup>)의 유수로 한다. 공압 세척은 뿌리를 다치게 하므로 피한다. 피복한 폴리시트는 피복 1~2개월 지나면 조금씩 구멍을 내어 서서히 환경에 적응시킨다. 피트모스는 보수성이 좋으므로 과잉 관수를 하지 않는다. 반년 재배하면 뿌리가 완전히 재생하여 장기 수송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된다.

### 1.5.4. 수목, 분재류의 수출촉진을 위한 선충대책 및 생산수송기술<sup>32</sup>

#### 가. 토양선충의 실태해명과 방제

분재의 70%의 분에서 선충이 검출되고 부위에 관계없이 다양한 선충이 서식하고 있다. 검역에서 엄격한 조치를 받는 바늘선충류는 오염송, 향나무, 영산홍, 단풍 등에서 주로 검출되며, 향나무에서도 50%를 넘는다.

수출 전 약제 침적처리에서 호스티아제트 액제는 바늘선충류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웨니트로티온 유제는 효과가 있다. 호스티아제트 액제에서는 2주 후, 웨니트로티온 유제에서는 3일 후 효과가 나타난다. 호스티아제트 액제 처리는 오염송과 단풍에서, 웨니트로티온 유제는 단풍에서 약해가 발생한다. 특히 고온기 처리는 약해가 발생하기 쉽

<sup>31</sup> <https://www.pref.chiba.lg.jp/ninaite/shikenkenkyuu/documents/h2430.pdf>

<sup>32</sup> <https://www.pref.saitama.lg.jp/b0909/documents/596022.pdf>

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약제 침적처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해머타격+물씻기+동력분무기에 의한 뿌리 씻기’가 유효하다. 토양의 99%가 제거되고 선충류를 저감할 수 있으며 새로운 용토에 바뀌심어 약액의 토양 침수가 용이해진다.

#### 나. 취목에 의한 분재 재생

취목이 곤란한 오염송의 발근율을 보면, 3월 취목 처리하였을 때 九重 품종에서 10~20%, 銀八房 품종에서 대부분 미발근이었다. 0.5%의 오키시베론(발근촉진제) 분제를 박피 상부에 도포하여도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다. 6월 취목은 말라죽는 것이 많아 피해야 한다. 발근율을 높이기 위해 ①고손(枯損)시키지 않을 것(뿌리가 빈약한 모수는 사용하지 않음), ②박피부 취목 부위 형성층의 썩음을 방지할 것(박피부는 비닐테이프 감기로 썩지 않음), ③발근 기대 부위의 조피를 잘라내는 것 등이 중요하다. 또, 말라죽지 않으면 동일 개체의 동일 개소에서 여러 회 취목 처리할 수 있고 발근을 기대할 수 있다. 취목으로 육성한 분재는 1~6년 후에도 바늘선충류가 검출되지 않으며 그 외의 선충도 저감할 수 있다.

#### 다. 안전한 장기수송법

수송에 사용하는 리퍼컨테이너 내부는 기온  $4.7 \pm 0.5^{\circ}\text{C}$ , 습도  $98.0 \pm 0.5\%$ 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한다. 잎의 황화와 낙엽 등의 품질저하의 원인은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생각된다. 조밀하게 적재하고 나무 전체를 폴리필름으로 싸는 것이 효과적이다.

## 1.6. 시사점

일본은 중국과 EU 등으로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한 경험이 많다. 이 사례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좋은 수목이 있다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수출하는 나무들은 오랜 시간 키우고 다듬은 나무들인데 이에 대한 외국(중국)의 선호는 매우 높다. 일본은 우수한 수예 기술로 수목과 분재를 생산·수출하는 고급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치바현의 ‘수예사 양성’과 ‘명목 인증’ 제도, 오오미야 분재의 브랜드화 전략은 참고할 만하다. 또,

수출한 나무들의 활착과 관리를 지원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도 조경수(또는 분재) 생산의 역사가 짧지 않기 때문에 수출가능한 자원들이 다수 있다. 따라서 수목 수출의 장애요인을 극복함으로써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둘째, 수목 수출에는 다양한 조직의 참여가 필요하다. 일본의 수목 수출을 지원하는 데는 중앙정부, 지자체와 Jetro, 연구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참여한다. 마케팅 지원을 포함하여 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원한다. 수목 수출을 하려면 해외 바이어 상담, 박람회 참석 지원, 검역 대응 기술지원,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수목 수출에 필요한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를 참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목 수출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수목 수출의 경험이 부족하여 수출에 필요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수출 전 수목의 세척 및 양생, 포장·적재, 수송과정 등에 대한 세밀한 노하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노하우들을 익힘으로써 수목 수출의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넷째, 수목 검역협상의 필요이다. 대형 수목의 수출에서 흙을 완전 제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흙의 부착이 불가피하다. 일본은 중국과 검역 협상을 통해 흙의 부착을 인정받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흙의 부착을 인정받는 대신 중국 검사기관의 추가 검사를 받는다. 우리나라도 대형 수목의 수출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수출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검역에 대응한 조치를 취하고 흙의 부착을 인정받는 검역협상이 필요하다.

다섯째, 홍보 활동이다. 수목 수출을 하려면 바이어와 만나야 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박람회장이다. 박람회 참석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국제 수준과 경쟁하며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일본의 수목 수출을 위한 박람회 참가 활동을 참고해야 한다.

여섯째, 수목 수출에는 식물과 정원문화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의 수목 수출이 가능한 것은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고 외국 구매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목조형 기술이 높은 것도 일본이 오랜 세월 구축한 정원과 분재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간의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

## 〈참고〉 치바현 수목진흥계획<sup>33</sup>

### 1. 치바현 수목의 현황과 과제

#### 가. 생산

치바현 수목생산은 나한송과 소나무 그리고 회양목과 주목 등의 조형물이 중심인데 공공과 민간 녹화목, 가정용 화분식물, 옥상과 벽면녹화 식물 등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여 생산된다. 2013년 출하액은 74억 엔으로 전국 1위, 재배면적은 638ha로 전국 13%에 해당한다.

비교적 온난한 해안가 지역에서는 나한송과 소나무류를 비롯한 상록수를 주로 생산하며 인바군 등 내륙에서는 침엽수류를 비롯한 상록수부터 낙엽수까지 폭넓은 수종을 생산한다. 그러나 후계자가 부족하여 생산·경영의 노하우와 고도의 수예(樹藝)기술을 차세대로 계승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지 유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또,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생산안정을 위해 포장(圃場)의 집약화와 관수설비 등 시설화·기계화에 의한 생산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특히, 주력상품인 나한송에 피해를 끼치는 해충의 서식지 확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형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종합적인 방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수목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1994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와 EU로 조형수 수출이 개시되어 치바현 농림수산 수출을 리드하는 품목이 되었다. 수출 확대 및 안정을 위해 수출상대국의 검역체제에 대응한 선충방제기술 확립과 소비수요에 따라 지속적·효율적 증산이 가능한 생산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치바현 수목의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국내외 폭넓은 니즈에 따른 신품종 육성과 우량계통의 선발·보존, 안정된 판로의 확보 등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된 지원도 필요하다.

<sup>33</sup> 치바현 『千葉縣花植木振興計畫』에서 수목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 나. 유통·판매

수목류 국내유통에서 경매와 예약거래 외에 시장을 거치지 않고 조원업자 직접거래와 직매 등이 행해진다. 또, 수송방법으로 최종 소비지에 자사 트럭과 임대교통편으로 수송하거나 가정용 화분식물처럼 생산포장(圃場)에서 판매점포로 택배편으로 유통되는 등 다양한 유통형태가 있다. 수출은 상대국에 따라 다르지만 바이어 직접 구매와 수출업자를 낀 거래가 있으며, 온도관리가 가능한 컨테이너로 선편수송한 후 육로로 수송하는 형태가 주류이다.

치바현 수목을 유리하게 판매하기 위해 국내외 유통을 합리화해야 하고 계획적 판매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정비하며 그룹화하여 물건확보와 판매단위의 확대, 정보처리의 IT화로 시의적절한 정보 발신이 중요하다. 수출에서 EU는 물론이고 수출실적이 적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동유럽과 중동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대상국의 검역체제 대응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 다. 소비

민간부문을 보면 주택양식이 개별 주택에서 아파트와 맨션 등 집합주택으로 변화하여 수목류 식재공간이 감소하고 수목관리비용의 부담 때문에 수목식재를 꺼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공공수요의 공사 감소와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식재수목의 크기가 감소하고 도매단가가 저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하는 환경정비와 수목류 식재 니즈가 기대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창조하기 위해 생산자와 실수요자(조원사업자, 주택업자)가 연대한 수목의 수요확대가 바람직하다. 또, 치바현 수목생산의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 예부터 치바현에서 조형되거나 식재되는 나한송 및 소나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수목을 ‘명목(銘木) 100選’으로 인정하는 등 장래까지 전통 수예(樹藝)기술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주요 대책

### 가. 생산진흥대책

#### 1) 고품질 안정생산의 추진

- ① 생산기지의 강화: 수출용 수목에는 식물검역에 대응한 격리재배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도록 시설화와 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함
- ② 고품질, 안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규모 확대 등에 따라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생력화 기술을 보급함. 방제가 어려운 병충해의 방제기술을 개발·보급함.
- ③ 마켓수요에 대응하여 강한 산지 만들기: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여 치바현 품목을 육성하고 동시에 생산자의 육종과 육성품종을 유지·증식하는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2) 인력육성

- 치바현 꽃나무 원예조합연합회와 치바현 식목생산조합연합회 등 생산자조직의 생산기술 연찬을 위한 연수회와 소비확대 노력을 지원함.

### 나. 유통판매대책

#### 1) 시대에 대응한 유통판매체제의 강화

- 물류의 효율화: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회사와 연대 등 물류를 효율화하는 집하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함.

#### 2) 치바현 수목의 수출촉진

- 수목을 중심으로 치바현 꽃나무 수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생산자의 수출노력을 지원함

#### 구체적인 노력

##### ① 수출촉진을 위한 노력

- 해외 바이어가 많이 모이는 상담회에서 주요 수출품목인 수목을 중심으로 치바현 꽃나무를 적극 PR하고 국가와 관계자 연대를 도모하여 생산자단체 등이 판로를 개척하는 노력을 지원함

-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해외 실수요자와 산지의 매칭, 해외바이어가 많이 모이는 상담회 참가를 지원함
  - 꽃나무류 수출을 시야에 넣고 해외 전시회 등에 시험 출품함으로써 생산자의 해외 절화 니즈 파악을 지원함.
- ② 마켓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지 체제의 강화
- 장거리 수송에 대응하도록 최적 환경의 설정 등 품질보존 기술 확립을 지원함
  -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생산자 가 행하는 생산·유통체제의 정비를 지원함.
  - 생산자의 수송비용 절감과 수송시간 단축 노력을 지원함
  - 수목수출에 계속 노력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수출대상국의 니즈에 맞추는 수종의 생산 등 새로운 판로를 응시하는 계획생산을 지원함
  - 해외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을 막기 위해 생산자의 수출국 상표등록 취득을 지원하고 생산자 육종에서 잘못된 권리침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환기에 노력함. 또, 국가와 관계단체와 연대하여 수출에 노력하는 단체 등에 정보제공, 외국에서 치바현 브랜드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상표 등의 출원 방지에 노력함.

#### 다. 수요확대대책

##### 1) 치바현 수목의 수요확대

- ① 새로운 수요 창조: 수목에는 생산자와 실수요자(조원사업자, 주택업자)가 연대한 소비확대 노력을 지원함
- ② 치바현 꽃나무의 매력 발신: 2020년 동경올림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름에 강한 꽃나무 생산을 지원하고 치바현 꽃나무 이용을 추진함.

##### 2) 꽃·수목의 문화 계승과 보급

- ① 꽃꽂이 등 일본 전통문화의 보급개발: 2020년 동경올림픽에 대응하여 해외 방문객의 나리타국제공항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치바현 꽃나무를 활용한 꽃꽂이 등을 전시하여 일본 전통문화를 PR함.
- ② 식목전통수예기술의 계승과 보급: 치바현 조형기술을 유지계승하기 위해 식목전통수예사 및 명목 인정에 의해 인지도를 향상하고 동시에 그 매력을 발신함.
- ③ 공공시설에서 꽃·수목의 활용추진: 사람을 치유하는 등 꽃·수목이 가진 각종 효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꽃·수목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동시에 공공시설의 꽃·수목 활용을 추진함.

## 치바현 수목진흥계획(요약)

대상	진 흥 방 향
수출	<p>[고품질·안정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적으로 수목수출에 노력하여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수출국의 니즈에 맞춘 수종의 생산 등 새로운 판로를 겨냥한 계획생산을 지원함</li> <li>• 작업효율의 향상과 규모확대를 위해 농지의 이용집적을 추진함</li> <li>•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에 대응한 생산, 유통체제의 정비를 지원함</li> <li>• 주력품목인 나한송을 해충에서 지키기 위해 방제대책을 추진함</li> <li>• 조형기술의 유지·계승을 위해 식목전통수예사 및 명목 인증을 추진함</li> </ul> <p>[판매·유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동남아시아, 러시아권, 중동 등 폭넓은 해외 바이어 등과 상담을 추진함</li> </ul>
국내	<p>[고품질·안정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망수종의 도입 등 계획적인 수목생산체제의 확립을 도모함.</li> <li>• 생력기계와 관수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농지이용집적을 도모함</li> <li>• 기술의 유지계승을 위해 폭넓은 수종도 명목의 인정을 추진함</li> </ul> <p>[판매·유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수요의 창조를 위해 생산자와 실수요자(조경업자, 주택업자 등)가 연대한 수목의 수요확대를 지원함</li> <li>• 쓰나미 피해 등 재해복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녹화용 니즈에 대응한 신수종 도입을 추진함.</li> </ul>

자료: 치바현수목진흥계획

## 2. 네덜란드의 수목 수출입과 지원제도<sup>34</sup>

### 2.1. 조경수·분재 수출입과 수출지원

네덜란드의 국토면적은 4.1만 km<sup>2</sup> 우리나라의 40%에 불과하며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다. 국민들 스스로 풍차를 세워 물을 펴내고 간척지를 만들어 국토를 확장하였다. 일조시간은 여름에 약 17시간이지만 겨울에는 약 8시간으로 짧고 흐린 날이 많다. 기온도 여름에 평균 17℃, 겨울에 약 3℃이다. 식물 재배에 결코 유리한 환경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네덜란드는 꽃과 나무(수목과 다년생 식물) 등 원예 생산과 유통에서 강국으로 알려져 있다. 원예제품 물류에서도 역할이 큰데, 수입 과일의 70% 이상, 수입 화훼와 채소의 80% 이상이 재수출된다. 네덜란드는 산 나무(living trees)와 식물의 주요 수출입국의 하나이기도 하다.

네덜란드는 조경수 생산에서도 오랜 역사와 발전된 기술력을 자랑한다. 조경수 유통에서도 온라인 판매가 활발하고, 수십여 나라에 수출하면서 수목 수송과 포장 등 유통 전반에서 기술력과 관리능력이 발달하였다.

EU에서 조경수(산림수) 수출입은 활발하지만 역내 무역의 비중이 크다. 2015년 기준 EU의 산림수 수출액은 1억 1,007만 유로, 수입액은 6,218만 유로에 이르지만, 수출액의 91.7%, 수입액의 99.5%를 역내 교역이 차지한다. 수입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네덜란드이고, 수출액이 많은 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다. 네덜란드가 수입하는 수목들은 대부분 다른 EU국가로 재수출된다. 수출입 통계를 보아도 EU의 수목류 수출입에서 네덜란드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 수 있다.

<표 4-7>은 EU의 수목 수출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역외 수출입에서 남미와 동남아 등 여러 나라와 교역하고 있지만 동북아 국가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EU 수출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주로 분재가 포함된다. 유럽에는 동양 문화에 관심 높은 사람들도 많고 동양 분재에 대한 붐도 있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sup>34</sup> 이 절의 내용은 『세계농업』 196호(2016.12)에도 게재하였음.

표 4-4. EU의 수목 수출입

구분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톤)	(천유로)	(톤)	(천유로)	(톤)	(천유로)	(톤)	(천유로)
수 출	역 내	91,042	118,415	67,650	101,697	71,501	111,706	67,765	100,929
	독일	16,386	35,021	13,612	28,830	13,414	30,982	10,316	22,315
	영국	31,793	20,577	19,265	18,901	22,366	19,513	8,666	21,955
	프랑스	14,937	25,528	11,480	22,200	11,294	21,403	11,434	20,890
	네덜란드	3,024	3,952	2,416	2,784	2,145	2,948	2,945	3,078
	역 외	4,133	10,553	3,287	7,512	2,865	8,539	4,087	9,145
	일본	1	14	-	4	-	-	-	-
	중국	3	21	-	-	1	19	1	1
수 입	한국	-	-	-	-	-	-	1	8
	역 내	58,736	80,534	44,905	66,659	62,276	63,973	66,527	61,875
	네덜란드	29,058	37,638	26,433	32,664	26,247	31,473	20,515	34,882
	독일	3,452	8,969	3,414	7,857	3,689	8,239	3,456	7,119
	이태리	9,130	7,611	4,611	6,809	3,293	4,677	3,589	4,726
	역 외	77	433	111	527	121	227	47	311
	일본	15	1	-	6	20	38	7	87
중국	-	-	3	34	3	51	6	79	

주: HSCode 0602.9041(forest trees)

자료: 한국무역협회

분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유럽에서 고가 분재는 일본산, 저가 분재는 중국산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는 식물과 식물제품 수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식물과 식물제품 수출에서 가지는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에서 부딪히는 장벽의 제거를 정부와 기업의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구조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농업·식품·자연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LNV)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해외에 식물과 식물제품을 판매하려는 네덜란드 수출업자들은 상대국의 식물검역조건, 재배자 권리, 관세, 그리고 무역장벽 등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장애들은 수출기업의 유망시장 진입을 방해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관련 기업부문과 협의하여 식물과 식물제품 수출에서 부딪히는 무역장벽 극복에 노력한다. 우선은 러시아와 중국에 집중하기로 하였다(1997). 이 프로그램은 1999년에 인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고, 2003년에는 일본, 그리고 2004년에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터키 등을 포함하였다. 현재는 극동의 다른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요한 수출국에서 무역장벽이 억제되거나 줄어들고 있다.

## 2.2. 조경수·분재 판촉·홍보 지원

### 2.2.1. PPH(Plant Publicity Holland)

PPH(네덜란드 식물홍보협회)는 PT(Productscchap Tuinbouw, 원예생산관리이사회)에 속하며 수목과 다년초의 판촉과 홍보를 담당한다. PPH의 활동은 Green City 캠페인과 Color your life 캠페인 2가지로 나뉜다. 이 캠페인은 네덜란드 식물을 앞세워 마케팅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 그 자체를 홍보함으로써 전체 식물의 수요 증진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설계에 녹지공간 조성을 반영하기 위해 녹지가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홍보하거나 녹지공간 조성에 필요한 식물재배 기술과 지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일반 소비자에는 식물에 관한 기본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수요증진을 도모한다.

중점국은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4개국이고 기타 중점국은 다른 EU 국가와 미국, 캐나다이다. 앞으로 기대하는 나라로서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등이다. 이들 중점국은 수목 수출량과 시장분석 그리고 장래 가능성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이 국가들 외에도 15-20개 나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타이,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에서도 활동하는데, 강연회와 세미나, 학술활동 등을 기획하는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활동한다. 도시녹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파하고, 조경설계에서 어떻게 녹지를 설계할 것인가, 도시의 수원함양을 높이기 위한 녹화의 필요성 그리고 녹지의 대기정화 기능 등을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나아가 녹지공간이 시민 건강과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과 관련하여 녹지환경이 좋은 병원에서 환자 치유율이 높은 이유 등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PPH는 2008년 ‘이 달의 식물(PLANT VAN DE MAAND)’ 캠페인을 수행하였는데 유럽 가든센터의 80-90%가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 50%의 가든센터에서 매출이 상승하였다고 한다.

## 2.2.2. TUINTRENDS

이는 가드닝 유행에 관한 동향정보이다. PPH는 매년 가드닝의 트렌드를 발표한다. 이 트렌드는 가든센터와 조경업계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개발한다. 조경수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참고한다. 트렌드 결과는 약 6개월 전에 발표한다. 우선 각 업계에 알리고 그 후 언론에 공표한다. ‘Tuintrends voor 2017’은 5가지 가드닝 트렌드를 제시하였는데, ①내부는 외부처럼 그리고 외부는 내부처럼, ②순수재료, ③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논다 ④거칠지만 직접 관리한다, ⑤현재를 즐긴다 등이다.

## 2.2.3. 구체적인 활동

### 가. Green City

Green City 캠페인은 시민, 행정, 주택공단, 건축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녹지공간(자연생태계)을 어떻게 사용하여 사회경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이 좋으면 폭력행위 또는 범죄 발생률이 적다는 것, 녹지가 풍부한 환경에 위치한 주택은 경제가치가 높다는 것 등 이러한 연구들을 제시한다. 이 내용은 Color your life 캠페인에서 일반 소비자에게도 전달한다. 소비자 의견은 Green City 프로젝트에 반영되기도 한다.

Green City 프로젝트는 PPH가 주체이며 예산의 50%는 EU 보조금에서 받는다. Green City 프로젝트는 2002년에 시작되었으며 도시녹화의 효용과 중요성을 알려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 그린도시를 선정하는 대회를 개최하는데 유럽의 여러 도시가 참가한다. 국제원예가협회(AIPH)가 Green City 조직을 설립하여 콘퍼런스를 비롯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세계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참가하며 이 조직의 운영을 PPH가 주도한다.

도시설계 담당자와 조경전문가에게 도시계획 설계에 녹지공간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언한다. 식물과 녹지공간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생산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핵심요소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환경에 따라 생육에 적합한 수종을 제시하는 등 기술 조언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 공공녹화의 경제적 중요성을 재평

가하는 연구도 수행한다. 프로젝트 내용은 도시에서 녹지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이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네덜란드산 수목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PPH는 본다.

#### 나. Colour your life 캠페인

Color your life 캠페인은 일반 소비자에게 정원수목과 꽃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그 효용과 가치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다. 웹사이트, 포스터, 팸플릿, 잡지, DVD, 방송 등을 활용한다. 이는 판매점의 판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식물의 개화기, 식재적지, 재배방법을 기초내용으로 제공하면서 식물이 주는 효용과 가치에 대한 정보도 다룬다. 예를 들면 나무가 정원에 있으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새들이 집을 짓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또, 나무가 많으면 공기를 정화하고 건강에 유효한 성분을 배출한다. 도시에 나무가 많으면 여름에 그늘을 만들고 에어컨 사용을 줄여 화석연료 사용 억제에 기여한다.

#### 다. PlantScope(<http://www.plantscope.nl/>)

PlantScope는 네덜란드 조경수와 과수식물 업계를 위해 구축된 식물 데이터베이스 포털이다. 재배자, 육종가, 무역업자, 소매업자 등을 주요 이용자로 한다. 수천 여 개의 수목 상품 이미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수종과 품종의 정확한 명칭과 사용방법 설명도 제시되어 있다. 이용자는 이 자료를 자기 제품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회원제로 운영하며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유료이다.

### 2.2.4. 원예·정원 박람회

원예 및 정원 박람회는 조경과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네덜란드의 박람회는 세계 원예·조경업 종사자의 주목을 끈다. 이는 관련 산업의 진흥에 기여한다. 대표적인 원예 및 정원 박람회를 간단히 소개한다.

플로리아드(Floriade)는 10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네덜란드의 대표 정원박람회이다. 가장 최근의 2012년 Venlo 플로리아드는 6회째이었다. Venlo 플로리아드는 66ha에 환경, 녹색에너지, 휴식과 치유, 교육과 혁신, 세계무대 5가지를 테마로 구성하였다. 이 박람회는 정원박람회를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것이다. 박람회 개최를 위해 조성하는

공원, 도로, 교통 등이 그대로 지역개발의 인프라가 되며 투자도 박람회 수익에서 회수한다.

Keukenhof flower festival은 네덜란드 화훼 분야의 국제 쇼케이스이다. 8주간 진행되는데 7백만 개의 봄철 개화 구근류가 중심이다. 100여 업체들이 살아있는 상품 카탈로그라고 할 수 있다. 30개 화훼 쇼에서 500여 화훼 재배자들이 많은 양의 절화와 분재를 제시한다. 매년 봄 가든 디자이너는 내년도 행사를 구상하며 보다 잘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식물배치를 계획한다. 5월에 내년도 공원의 설계에 착수하며 다양한 컬러의 조합과 구근류 화훼가 오래 지속되도록 계획한다. 30명의 가드너 팀이 9월 중순에 7백만 개의 구근을 수작업으로 식재하는데 3개월이 소요된다. 공원 폐장기에 모든 구근을 파내어 폐기한다. 매년 세계 100여국에서 8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다.

### 2.3. 시사점

네덜란드 화훼와 수목 산업은 내수 시장이 작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찌감치 국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수출에 특화하여 발전하였다. 수출을 전제로 하면서 이에 대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언제든 어디든 안정된 품질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은 기후에서 보광을 위한 첨단 재배기술을 개발하였다.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규모와 기계화를 추진하였고 생산자들도 노동력 절감과 매출 증진에 노력하였다.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은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조경수·분재 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수출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수출을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수목 생산의 생산성 향상과 유통 현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우리나라가 가진 고유 식물자원 뿐만 아니라 외국의 식물자원도 상품화하기 위한 품종 개발 및 개량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성공에는 농업기술개발에 대한 인프라와 투자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 내수 시장을 더욱 키우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자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수목을 세계인도 좋아하기 때문이다. 식물 관련 박람회와 정원문화 구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생산자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식물과 식물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장벽 해월에 노력한다.

## 제 5 장

#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 전략과 실천과제

### 1. 조경수·분재 수출의 여건분석(SWOT)

대중국 조경수·분재 수출의 여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1>. 우리나라 조경수·분재 수출 여건을 기회와 위협,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하고 대응과제를 탐색하였다.

#### 1.1. 기회

중국의 조경수·분재 수요 증가와 다양화는 우리나라 조경수·분재를 수출하는 데 기회 요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에는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공원과 가로수, 주택단지를 녹화하는 데 필요한 조경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 부유층 그룹이 증가하면서 부(富)를 과시하고 자신의 주택을 꾸미기 위한 정원수 수요가 늘고 있다. 호텔이나 빌딩 등 민간건물에서도 정원을 잘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부문에서는 멋진 정원 조성을 위해 보다 특색있는 수종 또는 수형의 나무를 선호한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는 우리나라 조경수 생산업계에 분명한 기회요인이다.

중국의 분재시장이 성장하는 것도 분명하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여유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예술 활동이나 식물 감상으로 나타난다. 중국에도 분재가 많지만 보다 수준높고 개성있는 작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이처럼 중국 분재 시장의 성장은 우리나라

표 5-1.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의 여건(SWOT 분석)

내부환경 외부환경	<강 점(S)>	<약 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가능 자원 보유</li> <li>• 재배기술 축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유통 기반 미흡</li> <li>• 중국 바이어의 인식 부족</li> <li>• 검역대응 기술부족</li> </ul>
<기 회(O)>	<우선 수행과제>	<우선 보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li> <li>• 중국 바이어의 방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가능 자원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유통 체제 정비</li> <li>◆ 홍보강화/국제박람회 참석</li> <li>◆ 검역대응 기술개발</li> <li>◆ 수출특화단지 지정</li> </ul>
<위 협(T)>	<위험 해결과제>	<장기 보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과의 경쟁</li> <li>• 중국 조경수·분재업 성장</li> <li>• 내수시장의 저성장 기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시장 개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문화 확산과 교류</li> <li>◆ 신품종 육성</li> </ul>

분재업계에도 기회요인이 된다.

최근 중국 조경수 바이어와 분재 바이어가 방한한 것은 수출을 위한 기회요인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한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수목을 홍보할 기회도 적었다. 중국으로 수목을 수출하려면 수입자가 정부의 수입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이어 관리의 필수 요소이다. 중국의 판시 문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바이어 관리가 중요하다.

## 1.2. 위협

첫째,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조경수·분재 생산업체의 성장이다. 도시녹화 수목 수요 증가에 힘입어 중국 조경수 업체들도 크게 성장하였다. 다수의 업체들이 대규모 재배면적을 갖추고 수목을 재배하고 있다. 수목의 생산과 관리기술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재생산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분재생산자들은 이미 유럽을 비롯하여 대량의 분재를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의 업체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품질만으로 경쟁하기는 어렵다. 중국이 따라 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고유의 수종 또는 특

성이 반영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또 다른 위협은 경쟁국의 조경수·분재 수출확대 정책이다. 일본은 이미 중국 시장을 안정권으로 보고 있으며 조경수와 분재를 중요 수출품목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다. 기술 수준이 높고 이미 수출 경험이 많은 일본 업체들과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본산 나한송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조경수·분재 업계도 고령화에 따라 생산이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1.3. 강점

우리나라 조경수·분재 생산업계가 가지는 강점은 수출가능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바이어가 원하는 조경수 수종은 단풍나무, 배롱나무 등의 대형 특수목이다. 중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나무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소량이라도 대형 특수목을 재배하는 조경수 생산자이 다수 있다. 전국에 산재한 개별 조경수 생산자들이 보유한 대형 특수목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출을 계기로 국내 조경수 생산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분재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개성과 기술이 반영된 분재 작품은 다수 있다고 보인다. 이들 자원을 원활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 1.4. 약점

조경수와 분재 수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수출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고 여러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조경수·분재 수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약점은 홍보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중국 바이어들은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 업계가 내수 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일부 분재업체가 해외 수출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그만큼 홍보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들이 찾는 조경수가 있다는 것, 고품격 분재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둘째, 검역대응 기술의 부족이다. 조경수와 분재는 식물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검역 절

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중국은 흙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흙 없이 식물을 수송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식물이 오랜 수송기간을 견디고 현지에서 원활히 활착하지 않는다면 수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동안 식물 수출의 경험이 많지 않아 관련 기술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약점이다. 수송기간에 식물이 흙 없이 양생하도록 처리하는 기술, 적절한 재배매질, 해충과 선충을 제거하는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생산체제의 미흡이다. 중국에서 원하는 나무는 수형 좋은 대형 특수목이다. 소나무를 제외하면 대형 특수목이 많지 않은 것은 국내 조경수 재배업의 재배규모가 영세하여 장기간 조경수를 다듬어 고급 조경수를 생산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계화 수준이 미흡하여 생산성도 낮다. 분재의 경우도 비슷하다. 대부분의 분재 생산자들이 영세한 재배규모에서 장기간 공들여 예술성 높은 분재를 생산하지 못하였다. 또, 외국의 식물검역조건에 대응하여 생산 시설을 갖춘 분재생산자도 거의 없다. 조경수와 분재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생산체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

넷째, 낮은 가격경쟁력이다. 중국에서 일본 나한송을 많이 수입하는 것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수출하는 나한송은 농촌주택이나 폐가옥 정원의 나무를 중간 수집상들이 엮가로 구매하기 때문에 크기와 수령에 비하여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이에 비하여 국내 생산자들이 대형 특수목을 대량 재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낮은 값에 사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 시세와 비교했을 때 조경수 수출의 가격경쟁력은 높지 않다. 분재 생산도 영세한 규모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중국의 분재업체들이 이미 대규모 재배면적을 가지고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높은 값이 아니라면 번거로운 검역절차를 거치면서 수출해야 할 유인이 없다. 이 때문에 가격보다 고급분재의 상품성으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 전략

### 2.1. 비전과 목표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조경수·분재 산업이 정체·쇠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조경수·분재 산업을 선진화하여 해당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재고상품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수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토면적은 작지만 수목 유통과 신상품 육성의 중심이 된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우리나라 조경수·분재 산업이 동아시아 수목 시장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중 수출전략의 비전은 “조경수·분재 산업의 성장 및 수출산업화”로 설정하였다.

전략의 당면 목표는 “조경수·분재의 중국 수출”이어야 한다. 수출의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수출의 기반을 닦는 과정에 조경수·분재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수출 경험이 미미한 상태에서 수출목표액을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출 경험을 축적하고 조경수·분재 상품을 홍보하면서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된다.

### 2.2. 기본 방향

대중국 조경수 수출에서 타깃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부유층 정원 또는 민간건물(호텔 등) 정원에 쓰이는 정원수가 될 것이다. 수형이 좋은 대형 특수목 시장이다. 또, 분재 수출에서는 전문 분재애호가 그룹이 대상이 될 것이다. 분재 애호가는 젊은층보다 고학력 중장년층 이상의 부유층이 될 것이다. 조경수·분재 수출에서 품질의 고급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품개발과 마케팅, 생산체제 정비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조경수 산업과 분재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수출산업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누었는데 생산·유통체제 정비, 홍보, 기술개발, 문화구축이다. 각 부문의 세부 실천과제들을 <표 5-2>에 제시하였다.

표 5-2.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략과제(안)

<b>비전</b>	<b>“조경수·분재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수출산업화”</b>	
<b>목표</b>	<b>“조경수·분재의 중국 수출”</b>	
<b>부문별 과제</b>	생산·유통체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 생산체제 확립</li> <li>• 수출특화단지 조성</li> <li>• 유통구조 개선</li> <li>• 검역대응체제 구축</li> </ul>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수·분재 수출가능자원 조사</li> <li>•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바이어 관리</li> <li>• 국제박람회 참석</li> <li>• 신규시장 개척</li> </ul>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목 수출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연수</li> <li>• 수출식물의 무균 인공토양 개발</li> <li>• 수출식물의 세척, 포장·적재 기술 개발</li> <li>• 살충제 개발</li> <li>• 수목병해충 해석에 관한 기초연구</li> <li>• 고유 수종의 분재소재 개발</li> </ul>
	문화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분재 홍보</li> <li>• 공항주변 수목 식재, 국제행사 분재전시</li> <li>• 정원문화 교류</li> </ul>

### 2.3. 주체별 역할 구분

조경수·분재의 대중국 수출을 추진하는 데 생산자와 수출자 뿐만 아니라 다수 관계자들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부(산림청), 생산자단체, 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aT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검역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수목과 정원문화 구축에서 국립수목원, 바이어 관리에서 임업진흥원과 a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참여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표 5-3>에 제시하였다.

표 5-3. 조경수·분재 수출을 위한 주체별 역할

	주체별 역할
생산자 수출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상품 조사, 상품 개발, 신상품 육성</li> <li>수출협의체 구성</li> <li>조경수·분재 수출특화단지 운영</li> <li>마케팅 활동, 수출시장 개척</li> <li>국제 원예박람회, 분재엑스포 적극 참가</li> </ul>
조경수협회 분재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희망 조경수·분재 자원조사와 DB화</li> <li>한국 분재의 홍보(해외 기고)</li> <li>국제행사 주관, 전문가 교류</li> <li>수형기술자 양성, 기술컨설팅,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li> </ul>
임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경수·분재 홍보 카탈로그 제작, 해외 배포</li> <li>수출특화단지 관리</li> <li>바이어 관리</li> </ul>
국립산림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역대응 기술개발</li> <li>수출 수목의 전처리 기술, 수송 생육환경조절기술 개발</li> <li>무균 인공토양, 살충약제, 포장재 개발</li> <li>수목병해충 연구</li> <li>신상품 육성</li> </ul>
국립수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정원문화 해외 홍보</li> <li>한국 수목 홍보</li> </ul>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경수·분재 수출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li> <li>수출대상국의 검역문제 및 무역장벽 대응</li> <li>홍보활동 지원</li> <li>기술개발 지원</li> </ul>
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정보, 박람회 정보 제공</li> <li>바이어 물색 및 연결</li> <li>안테나숍 운영</li> </ul>

### 3.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 전략의 실천과제

#### 3.1 생산·유통 체제 정비

##### 3.1.1. 안정 생산체제 확립

조경수와 분재 수출이 지속가능하려면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인 정지 전정으로 고급 조경수와 분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출을 하려면 외국의 검역조건에 대응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격리재배지를 갖추고 선충·해충 관리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컨테이너 재배 기술도 그다지 보급되어 있지 않다. 컨테이너 재배는 단기간에 고품질 수목을 대량생산할 수 있으면서 수목 활착과 생육상황이 좋은 장점이 있다. 조경수 수출을 위해서도 컨테이너 재배 기술 등 선진 조경수 생산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 조경수·분재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생산체제의 규모화와 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 3.1.2. 수출특화단지 조성

수출을 하려면 여타 품목과 마찬가지로 수출물량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조경수 또는 분재의 생산규모가 영세하여 일정한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바이어의 주문이 있을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품을 모으는 곳이 필요하다. 또, 바이어가 소규모 재배자의 농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구매하기는 어려우므로 바이어 요구에 맞출 수 있는 나무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장소가 필요하다.

더구나 수목을 수출하려면 뿌리를 세척하고 살충제를 뿌리고 피트모스로 포장하여 나

무 잔뿌리가 발생할 때까지 유지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수출식물에 토양선충이나 병해충이 붙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농장에서 수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수출용 식물을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단지가 필요하다. 조경수 수출을 전문으로 수행하려는 업체가 있다면 산림청 수출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조경수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분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출에 대응하여 상대국 검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격리 재배지를 갖추거나 방역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수출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재배단계부터 흙이 아닌 수태 또는 인공토양으로 재배할 수 있어야 하며 지면 60cm 이상 높이의 콘크리트 단상을 갖추어야 한다.

조경수·분재 수출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재배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수출에 필요한 물량 확보, 해외 홍보, 관련 기술 연수, 검역과 수송 관리 대응 등에서도 유리하다.

### 3.1.3. 유통구조 개선

조경수 유통구조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듣는데, 중간상인들이 유통정보를 독점하여 생산자에게 적정 이윤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조경수 수출에서도 바이어와 생산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유통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조경수의 시장 유통을 유도하여 공정거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분재 유통도 애호가 중심이 아니라 대중들도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유통구조가 투명하여야 바이어의 접근이 용이하고 생산자들도 안심하고 수출에 참여할 수 있다. 조경수와 분재가 거래되는 공영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1.4. 검역대응체제 구축

중국으로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의 수입허가증을 받고 수목의 흙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어린 묘목 또는 소분재라면 몰라도 대형목이 흙 없이 수송기간을 견뎌내고 옮겨져 살아남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대형 특수목을 수출하려면 결국 중국 정부와 검역 협상을 통해 흙의 부착을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sup>35</sup> 흙의 부착을 인정받으려면 조경수 또는 분재의 수출특화단지를 지정·관리하여 중국 검역당국이 규제하는 병해충이 없음을 중국 검역관과 합동검역하여 수출식물검역 합

표 5-4. 조경수·분재 수출을 위한 과제

단 기	중 기	장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가능 조경수 수집</li> <li>홍보자료 제작</li> <li>국제 박람회 참여</li> <li>바이어 초청 상담</li> <li>베트남, 대만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역대응 기술개발</li> <li>식물 포장기술</li> <li>조경수 재배의 생산성 향상</li> <li>수목조형기술자 양성</li> <li>수목 통관업체 육성</li> <li>해외정보 수집</li> <li>수출특화단지 검역협상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원문화 확산</li> <li>신품종 육성</li> <li>소나무류 통관 협상</li> <li>수목병해충 해석에 관한 기초연구</li> </ul>

격증명서에 부기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검역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들이 재배지의 토양선충 관리와 해충방제에 노력해야 하고 중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단기과제로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소나무는 중국에서 수입금지 수종이다. 그러나 별도의 격리재배지에서 재배하고 엄격한 해충방제 노력을 한 다음 중국 검역당국과 검역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다.

## 3.2. 홍보

### 3.2.1. 조경수 및 분재 수출가능 자원 조사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대형 조경수에는 소나무가 많다. 그러나 소나무는 중국으로 수출가능하지 않다. 중국으로 수출가능한 수종은 단풍나무, 배롱나무, 향나무, 주목, 무궁화, 철쭉 등 다수가 있으며, 바이어들은 20점 이상의 대형목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러한 나무들을 대량 재배하는 생산자는 없는 듯 하며 일부 생산자들이 소량 재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먼저 수출가능한 수목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며 어디에

<sup>35</sup> 일본의 나한송 수출 사례를 보면 흙의 부착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비 검역을 받게 되는데 CCIC Japan의 수시 검사와 중국 검역관의 방문 검역을 받음. 예비 검역에서 합격한 업체들의 리스트를 중국 검역당국이 가지고 있음.

소개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대형목을 소유하고 수출할 의사가 있는 생산자들이 자신의 상품정보를 조경수협회에 제공하면 협회가 그 자료를 정리하여 DB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외 마케팅을 희망하는 생산자들이 보유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면 분재조합에서 DB화하고 카탈로그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분재조합은 바이어의 요구사항 또는 해외 시장동향을 생산자에게 전달한다.

### 3.2.2. 소개 자료 제작 및 배포

중국의 조경업체 또는 원예업체들을 비롯하여 바이어들은 한국에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상품을 수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분재 유통업체들도 한국 분재를 수입하거나 교류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에 어떤 분재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출가능한 조경수와 분재를 해외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소개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해야 한다. 중국에서 원하는 대형 특수목이나 특이한 분재들의 사진 자료를 모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을 진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확보한 중국의 조경업체 또는 분재 수입업체들에게 홍보 카탈로그를 발송하면 한국 조경수와 분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다. PDF 포맷으로 만들어 바이어에게 이메일로 주기적으로 전달하면 큰 비용없이 홍보를 지속할 수 있다.

### 3.2.3. 국제박람회 참여로 홍보 및 바이어 탐색

조경수와 분재 수출을 하려면 우선 바이어와 접촉해야 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제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국제원예박람회 등에 상품견본이나 카다로그를 제시하면 해외 바이어와 접촉할 수 있고 해외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다. 좋은 나무와 분재를 국제무대에 선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과 예술 수준을 과시하는 계기가 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꽃박람회 또는 원예박람회에도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도 좋다. aT가 운영하는 해외 안테나숍에도 분재 제품을 진열하면 소비자와 접촉을 늘리고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1. 분재에 관심높은 지역



자료: Google Trends(2016.11.24.)

### 3.2.4. 바이어 관리

중국에 조경수 및 분재를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의 수입허가증 취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수입업체가 해 주어야 한다. 상품을 들고 가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바이어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판시 문화를 중시하므로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임업진흥원 수출팀이나 aT에서 기존 관계를 형성한 바이어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 3.2.5. 신규시장 개척

조경수와 분재 수출에서 중국이 큰 시장이기는 하지만 중국 시장도 충분히 성숙하여 성장의 한계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시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개척하여야 한다. 조경수 수출도 홍콩이나 베트남, 대만을 통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대 수종이라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도 검토해 볼만 하다.

분재도 동남아와 유럽, 미국 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선진국 시장은 검역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구글 트렌드 검색(bonsai)에서 분재의 관심도는 푸에르토리코,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스페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그림 5-1>. 이 나라에서 분재를 검색하는 인구가 많다는 뜻이고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뜻이다. 이들 나라에 한국 분재의 홍보 자료를 보내고 접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3.3. 기술개발

#### 3.3.1. 기술지도와 연수

조경수·분재의 품질 향상과 상대국 검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기술을 지도하고 컨설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sup>36</sup> 조경수·분재 재배 기술은 확립되어 있지만 검역에 대응하는 재배지 관리, 수출 수목의 포장·적재 방법, 관련 서류 작성 등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조경수협회 또는 분재조합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지도하는 방법도 있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지도하는 방법도 있다. 조경수와 분재 수출에 관심있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경수와 분재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지도하거나 당장에 전문가가 부족하면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수회를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는 조경수와 분재의 중국 수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 전문가 초빙 연수가 필요하다.

또, 수출 수목이 외국 현지에서 잘 뿌리내리고 살아가도록 사후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sup>37</sup>

#### 3.3.2. 수출식물의 무균 인공토양 개발

중국으로 조경수를 수출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흙을 제거하고 나무를 보내어 안정되게 활착시키는 것이다. 큰 나무를 수출하는데 흙 없이 수송하여 현지에 활착시키기

<sup>36</sup> 일본 사이타마는 분재 수출이 많은 지역인데, ‘사이타마 꽃과 綠의 진흥센터’에서 수출 분재의 관리와 검역 대응 기술 상담을 하고 있음. 또, 나한송 수출이 많은 치바현에는 농림총합연구센터에서 수목의 해충방제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sup>37</sup> 일본 조경수 수출자들은 중국에 가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음.

어렵기 때문이다. 활착률이 낮다면 조경수 수출이 일회성에 그치고 지속되기 어렵다. 흙과 함께 수출할 수 있다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흙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토양 개발은 핵심 사항이다. 현재 피트모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입품이고 여기에도 비용이 소요된다. 또, 큰 나무를 포장하여 수송하는 데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를 대체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 2.3.3. 수출식물의 뿌리세척과 포장, 적재 기술 개발

살아있는 식물을 수출하였을 때 현지에서 안전하게 활착하여야 수출이 지속될 수 있다. 일반 상품처럼 다루어서는 식물이 살아남지 못한다. 식물 수출 과정에 뿌리를 세척하고 인공무균토로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는데 뿌리가 상하기도 하고 유해 병해충이 붙기도 한다. 수목 수출의 경험이 많지 않아 이 과정의 노하우가 매우 부족하다. 식물 뿌리의 세척과 양생 방법, 포장자재(재배매질) 개발, 컨테이너 적재방법, 살충방법, 수송 과정의 환경조절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 2.3.4. 살충제 개발

수출식물을 소독하는 데 쓰이는 살충제 개발이 필요하다.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도 많지만 수종이나 해충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독성이 너무 강하여 나무를 해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 2.3.5. 수목병해충 해석에 관한 기초 연구

새로운 수종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수목의 병해충해석에 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위험도 분석을 담당하는 중국 임업부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는 민간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연구기관에서 국내 수목의 예상가능한 병충해 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 2.3.6. 한국 고유 수종을 분재소재로 개발

분재는 대량생산되는 상품이 아니며 상품마다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국에서 중국산 또는 일본산 분재와 경쟁하는 것보다 한국 고유 수종을 분재소재로 개발한다면 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잣나무(*Pinus koraiensis*), 구상나무(*Abies koreana*), 눈측백(*Thuja koraiensis*), 털갈매나무(*Rhamnus koraiensis*)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수종들을 중국으로 수출하였을 때 육성자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2.4. 수목과 분재 문화 구축

### 2.4.1. 한국산 분재의 우수성(작품성) 홍보

분재를 수출하려면 다른 나라 제품과 동일하게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한국산 분재의 독특함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분재의 철학 또는 미학을 홍보해야 한다. 한국 분재는 중국이나 일본 분재와는 다른 특징을 구축하고 있지만 한국산 분재의 주산지, 품종, 특성, 미(美) 등을 이해하는 바이어는 많지 않다. 국내외 전시회 등에 중국을 비롯한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한국산 분재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 등지에 분재공원(제주도 분재예술원)을 조성하여 한국산 분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중국에도 분재 잡지가 다수 발간되므로 중국(또는 우리나라)의 분재 전문가를 초빙하여 한국산 분재의 특징과 미학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한다면 좋을 것이다. 여행잡지 또는 항공사 잡지 등에 우리나라 분재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한다면 분재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분재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예술과 문화상품으로 다루어야 한다.

### 2.4.2. 공항 주변 수목 식재와 국제행사에 분재 이용

중국인들이 한국 조경수와 분재를 접할 수 있는 곳은 도시조경과 공원이다. 잘 가꾸어진 공원의 나무들은 우리나라 조경수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다. 공항 주변에 중국인들이 좋아할만한 나무들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항 인테리어에 분재를 이용한다면 조경수·분재 수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정치·경제 국제행사에서 한국의 고급 분재를

진열하여 한국 분재의 예술성을 과시하는 것도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 2.4.3. 정원문화의 구축과 교류

조경수 수출은 나무 수출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수예(樹藝)와 정원문화 수준을 수출하는 것이다. 조경수와 분재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에서 꽃과 원예, 정원 등에 관련된 박람회 개최가 활발하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 나무를 외국에 수출하려면 고도의 기술과 관리, 독특함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홍보해야 한다. 또, 분재는 단순히 식물이라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 또는 문화이며, 정원의 축소판이다. 정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분재와 조경수 수요로 이어진다. 한국 정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한국산 조경수와 분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중국에 한국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한국 수목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하기에 앞서 국내에서 수목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종과 수형의 나무들을 세계인도 좋아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일부 애호가에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특히 젊은층)이 꽃과 나무를 즐기고 이해하는 분위기(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수가 뒷받침되어야 수출도 활발해진다.

##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수요가 부진하여 조경수 생산도 함께 위축되고 있다. 분재 역시 수요 부진에 더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수요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중국) 수출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조경수와 분재는 관리에 따라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되며, 문화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출이 가지는 효과가 매우 크다. 중국은 조경수와 분재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목 수입이 많은 나라이다.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 산업이 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의 조경수와 분재 시장의 현황과 여건을 조사하여 수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국은 도시개발에 따른 녹화, 국제행사 개최, 대기오염 정화의 필요성 등에 따라 조경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리조트와 호텔 개발, 부유층 정원 조성 등 조경수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에서 선호하는 것은 꽃이 화려하고(붉은 색 또는 노란색) 크고 수형이 멋진 나무, 중국에 없는 수종, 뛰어난 기술로 잘 다듬은 나무들이다. 한편,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삶의 여유를 추구하게 되고 분재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건물 안팎을 장식하는 대형 분재, 실내 인테리어에 쓰는 소형 분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 나한송, 스페인 올리브 등 외국에서 다양한 수목을 수입하고 있다. 옛날에는 큰 나무를 선호하였지만 최근에는 다양하고 특이한 품종의 나무를 원하는 추세이다. 최근 부정부패 방지 정책 때문에 큰 나무 구입이 용이하지 않은 분위기도 있지만 외국산 조경수와 분재 수요는 여전히 매우 크다.

조경수 또는 분재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먼저 중국 정부(중국 입업국)의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수입실적이 없는 수종은 병해충위험도 해석이 필요하다. CITES 해당 수종이라면 관련 당국의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까다로운 검역조건이다. 우선 소나무, 흙, 모래, 점토 및 피트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수목을 수출할 때 뿌리를 감싸는 재배매질(피트모스, 마사, 수태 등)을 미리 중국 검역국에 보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수출하기 전에 흙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데 수송하여 이식하였을 때 고사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수목 수출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는 참고가 된다. 일본은 나한송을 비롯하여 조경수와 분재 수출이 많은 나라이다. 잘 다듬어 수형 좋은 나무들이 인기가 높다. 농림수산성의 “농림수산물 수출확대방안”에서도 수목을 중요 품목으로 다루며, 중국을 안정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치바현은 나한송 수출이 활발한 지역인데, 폐업하는 생산자의 조경수 또는 농가주택의 정원수 등을 구입하여 수출 상품으로 가꾸어 수출한다. 이렇게 수출하는 나한송은 100~200년 이상의 나한송이다. 일본에서 수출하는 나한송은 흙의 부착을 인정받는데 예비검역에서 합격해야 한다. 수출 전에 CCIC Japan(중국검험인증)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포장(圃場) 검사를 하며, 때때로 중국 검역당국의 담당자가 방문하기도 한다. 일본은 분재 수출도 많다. 정교하게 잘 다듬은 분재들이 애호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일본산 분재의 평가는 높지만 일본의 분재 공급여건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러한 틈새를 한국산 분재가 파고들 수 있다.

네덜란드는 꽃과 수목의 생산과 유통에서 선진화된 나라이다. 수목 생산을 규모화·기계화하여 생산성이 높다. 마케팅에서 네덜란드산 식물을 앞에 세우기보다 식물의 가치와 효용을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정부는 식물과 식물제품 수출에서 부딪히는 무역장벽 해결에 나선다. 수목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와 대학의 연구개발 노력이 활발한 것도 특징이다.

조경수와 분재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여건 분석을 위해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의 조경수·분재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 산업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회 요인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산업의 성쇠가 달려있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중국의 조경수·분재 생산업계의 성장, 일본산과의 경쟁 등은 위협 요인이다. 차별화하여 경쟁을 회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의 수출 잠재력은 적지 않다. 중국 바이어들은 우리나라 배롱나무, 단풍나무, 주목 대형 특수목에 관심을 보인다. 분재에서는 모과나무, 배롱나무, 피라칸사, 낙상홍 등에 관심이 높다. 이러한 규격의 수종이 대량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생산자들이 수출가능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는 데 장애요인도 있다. 국내 생산기반이 영세하다는 점, 해외 홍보가 미흡하여 중국 바이어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점, 까다로운 검

역 조건에 대응하는 기술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은 약점이다.

여건 분석에 기초하여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략은 “조경수와 분재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수출산업화”를 비전으로 하고 “조경수·분재의 중국 수출”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생산·유통체제 정비, 홍보, 기술개발, 문화구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생산·유통 체제 정비이다. 안정 생산체제 확립, 수출특화단지 조성, 유통구조 개선, 검역대응체제 구축이 과제이다. 수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투자해야 하며 중국의 검역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수 생산자들이 보유한 수출가능 자원을 모으고 검역에 공동 대응하는 수목 수출특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홍보 강화이다. 중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수종과 규격에 부합하는 자원을 조사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홍보와 바이어 접촉을 위해 국제박람회에 참여하고, 바이어 초청 사업도 필요하다. 기존 바이어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의 분재 잡지 또는 여행 잡지에 한국 수목(분재)의 매력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한다면 홍보효과가 크다. 중국이 매우 큰 시장이지만 홍콩, 베트남, 대만, 동남아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지속적인 탐색도 필요하다. 셋째, 기술개발이다. 중국의 검역조건에 대응하면서 원활히 수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노하우 개발이 중요하다. 수출식물의 재배매질, 수출식물의 뿌리세척과 포장·적재 기술, 살충제, 뿌리 양생 등 다양한 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고유 수종을 조경수 또는 분재 수출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차별화하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넷째, 문화 구축이다. 한국 조경수·분재의 미(美)를 알리는 공원을 조성하고 한국의 정원문화를 홍보해야 한다. 외국인과의 접촉이 높은 공항 주변에 중국인이 좋아하는 조경수를 심고 공항 내부 또는 국제행사장에 고급 분재를 진열하는 것이 방안이다. 중국에 한국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다. 국내에서 꽃과 나무를 즐기고 이해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수가 뒷받침되어야 수출도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 부 록 1

#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 매뉴얼

### 1. 수출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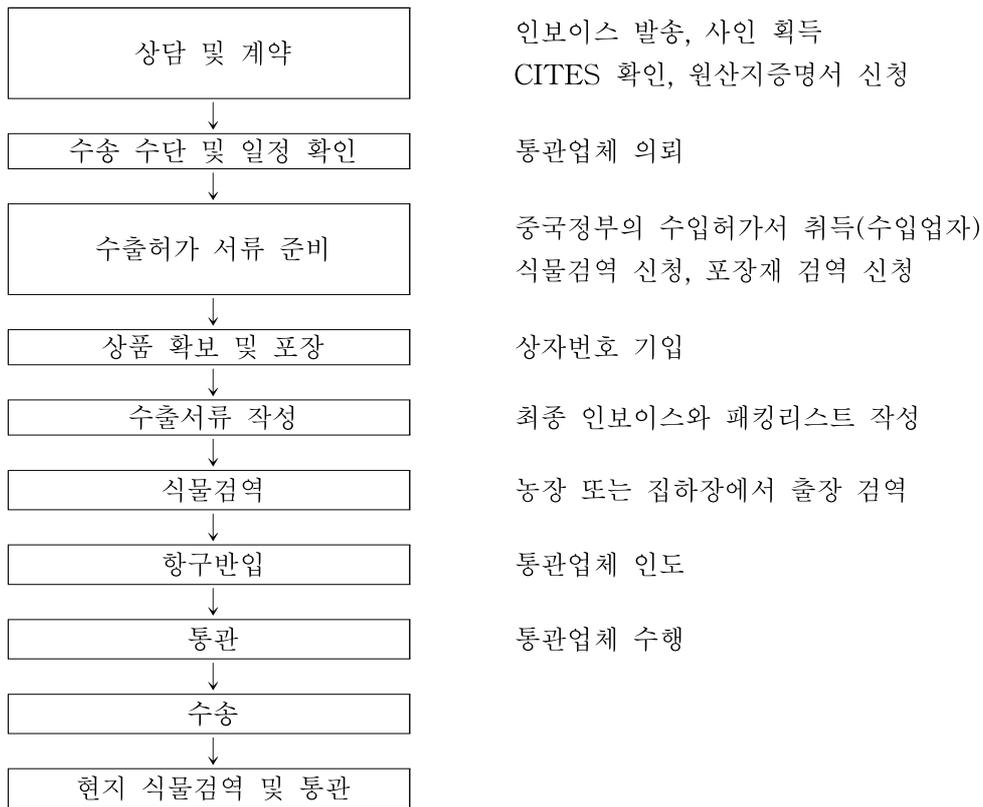
#### 가. 상담

- 상담할 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 제안하는 상품 목록과 단가, 목적지까지 운임견적과 적재율을 미리 산정해 두어야 바이어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수출가능한가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단계에서 운임을 산정하는 것도 어렵다. 상담할 때 바이어 반응을 보려면 Ex-Works 조건(상품 본체의 가격만)을 제시하는 것이 무난하다. 이 조건에서 바이어가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면 수출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 중국에 식물을 수출하려면 먼저 중국 정부의 수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수입허가증 취득은 수입업자가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없이 중국에 가져오면 팔아주겠다는 말은 믿어서 안 된다. 중국 국경에 들어갈 수 없다.

#### 나. 계약성립

- 가격을 제시하고 비용과 지불조건을 협의한다. 중국에 수목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가 수출항 운송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 이 경우 조경수 수출가격은 ‘목대가격+굴취포장비+농장에서 항구까지 운송비+선적비용+수출관련 서류 대행료’로 구성된다.

부도 1-1. 수목 수출의 단계



- 컨테이너 적재율도 생각해 두어야 하는데, 40피트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수량은 30점 기준으로 5~7개이다.
- 대금지불 방식은 계약금 30% 지급하고 수입자가 컨테이너 선적 해운사 B/L을 확인한 후 잔금 70%를 지급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납기일이다. 상품의 수집과 세척·소독, 뿌리 양생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소분재 또는 어린 묘목이라면 상품을 확보하여 소독작업 후 바로 보낼 수 있지만 대형 조경수는 적어도 3개월 정도의 뿌리 양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 구두로 계약이 성립되면 우선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바이어에게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서명을 받아둔다. 특히 CITES 수출규제가 있는 수종이라면 수출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매매계약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부표 1-1. 조경수와 분재 수출입 허가 사항

항목	한국	중국	적용품목	비고
온실허가	검역본부	-	심비디움, 동양란	
수출자 허가	검역본부	-	심비디움, 동양란	
수입자 허가	-	임업국	전품목	생산, 경영허가증
재배매질 사전검역	2kg 송부	검험	전품목	3개월 소요
CITES	지방환경청	멸종위기종수출입관리국	난류, 주목	
원산지증명서	관세청,상공회의소			
수출입검역	검역본부	검험	전품목	수출입통관시
품목수입허가	-	임업국	전품목	6개월 소요

자료: 건국대학교(2016)

#### 다. 수송수단과 일정 확인 및 예약

○계약이 성립되면 바이어가 희망하는 현지도착일을 확인한다. 납기에 맞추도록 운송수단의 출발일을 선택하여 식물검역에 소요되는 날짜에 따라 항구 반입일을 정하고 통관업체에 수송수단 수배를 의뢰한다.

#### 라. CITES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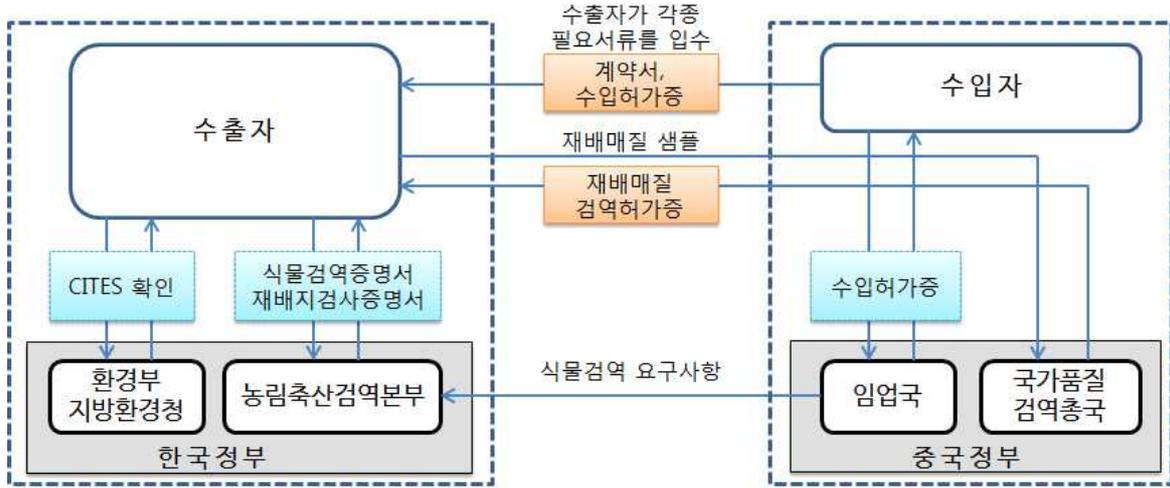
○수종(樹種)에 따라 CITES 수출규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워싱턴조약 수출제한품의 수출허가 취득을 의무화하는 CITES와 관세청(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발행의 원산지증명서 등은 당일 발급이 어려우므로 상담할 때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특히, 심비디움 등 양란류는 반드시 CITES 취득이 필요하므로 상담이 성약되면 즉시 신청해 둔다.
- 한국에서 발급받은 CITES 원본을 중국 수입업체에 전달하면 수입업체는 그 원본을 근거로 중국에서 CITES 수입허가서 신청에 착수한다.

#### 마. 재배매질 사전검역

○ 바이어와 협의하여 수목 포장에 사용되는 재배매질 등을 보내 미리 검역을 받고 그 매질만 포장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중국으로 수출용 재배매질 1.5~5kg을 샘플로 보내

부도 1-2. 조경수·분재 수출의 서류 준비 절차



<수출의 사전준비>	<수출절차>	<수입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자와 계약</li> <li>CITES 확인</li> <li>수입허가증 취득</li> <li>재배지검사증명서 취득</li> <li>원산지증명서 취득</li> <li>식물포장 재배매질 송부 및 재배매질 검역허가증 취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보이스 작성</li> <li>패킹리스트 작성</li> <li>식물수출검사증명서 취득</li> <li>수송의 문제 대책</li> <li>수출통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허가증</li> <li>재배매질(배지) 검사</li> <li>식물검역검사</li> <li>수입통관</li> <li>수입자에 인도</li> </ul>

현지 재배 적합여부와 병해충 여부 등을 검사받아야 하며 적합판정이 되면 성급 검역국이 배지검역증(검역허가증)을 발급한다.

- 중국으로 조경수를 수출할 때는 피트모스 또는 수태로 싸서 보습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재의 경우에는 마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분재의 경우는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이용하기도 한다. 피트모스나 수태, 마사 등에 아무 병해충이 없다는 것을 검사받아 승인받아야 그 재배매질로 수목을 포장해서 수출할 수 있다.
- 이 과정은 바이어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지만 재배매질(피트모스)를 살균하여 수출대행사 명의로 중국 검역소에 송부한다.

**바. 수출허가관련 서류의 준비**

- 정부 발행의 식물검역검사합격증명서가 필요한 나라에 수출할 때 수출 전에 식물검역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홍콩, 대만, 미국에 수출하려는 경우 식물검역검사요구

사항에 현지 바이어의 수입허가증(혹은 수입검역허가서)이 필요하다.

- 수목과 분재류는 식물검역소의 출장검역을 요청할 수 있는데 예약해야 한다. 검사의 예약에는 일반적으로 2주 정도의 유예를 두는 것이 무난하다.
  - 전화로 예약할 수 있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검역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는 것이 좋다.
- 식물검역검사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수량과 품목이 변경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변경된 시점에 수정한 식물검역검사신청서를 다시 식물검역소에 보낸다. 식물검역검사신청서 원본은 검사 당일 검역관에게 제출한다.
  - 식물검역검사를 통관업체에 의뢰한 경우는 통관업체가 신청서 작성을 대리해 준다. 다만, 검사를 예약할 때 상품의 명세가 필요하므로 통관업체에 수출상품 명세를 미리 보내야 한다.

#### 사. 상품확보 및 포장

- 수출상품을 조달할 때 납품처(생산자와 시장)에 상품규격과 수, 상자크기 등을 주문대로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생산자의 포장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 상자 크기와 포장수가 바뀌면 운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같은 본수임에도 상자 수가 늘어나면 운임이 증가하여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 팩킹리스트에 기재한 대로 상자에 번호를 기입한다. 상자번호만 있으면 수출절차에서 문제는 없지만 식물검역검사를 받을 때 상품을 명확히 하고 현지의 수입절차와 바이어의 상품처리를 위해 상자번호에 상품명, 규격 등을 기재한 라벨을 붙이면 좋다.

#### 아. 수출서류의 작성

- 수출하는 상품이 입하하여 수량이 확정되면 최종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를 작성한다.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는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이게 없으면 수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보통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를 별도 작성하지만 Invoice & Packing List 1매로 작성해도 된다.

### 자. 식물검역

- 조경수·분재와 같이 선편으로 대량 수송하는 경우는 농장 또는 집하장에서 검역본부의 출장검역검사를 받는 것이 편리하다. 실험실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은 검사에 합격하면 현장에서 식물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검역검사에 합격한 후 농장 또는 집하장에서 직접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다. 이는 항구 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 포장업자에 의뢰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물검역검사 신청은 수출자가 된다.

### 차. 항구반입

- 상품의 포장과 서류작성이 끝나면 수출하는 항구로 상품을 반입한다. 반입에는 자사 트럭 혹은 임대 트럭을 이용한다. 반입처는 통관업체가 지정하는 항구 근처 설비이므로 통관업체의 도움을 받는다. 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상품 확보 후에 집하장에서 수출자가 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통관업체에 식물검역검사 업무를 맡길 수도 있다.

### 카. 통관

- 식물검역검사에 합격하여 수출조건이 정리된 후에 통관을 신청한다. 이는 보통 통관업체가 대행하므로 수출자가 하지 않아도 된다. CITES 품목은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지만 보통 수 시간에 절차가 완료된다.

### 타. 수송

- 수목은 신선품으로 취급하므로 통관신청 과정에 보통 냉장 보세창고에 보관된다. 통관이 완료되면 반입시간에 선박회사로 인도되며 팔레트 혹은 컨테이너에 실려 선박에 적재된다. 수출하는 모든 화물의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열처리(56℃ 30분 이상) 또는 메틸브로마이드(MB, 최저 10℃ 이상 24시간)로 훈증 소독한 후 소독처리 마크를 부착하여 수출할 수 있다.
- 중국에는 수입 수목의 신고가 가능한 해관과 항구가 지정되어 있음을 알아 두자. B/L

과 식물검역증명서 등의 서류를 출항 후에 즉시 송부하고 바이어에게 선편명과 도착 예정일을 통지한다.

**파. 현지의 식물검역 및 통관**

- 현지에 도착하면 식물검역검사를 실시하여야 통관할 수 있으며 이후 수입자가 상품을 인수할 수 있다. 현지 통관 업무는 수입자가 담당한다.
  - 다만 수출관련 서류(Invoice & B/L)에 현지 통관업체 정보의 기재도 필요하다. 기재를 빠뜨려 지정 통관업체에 상품이 인도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2. 기타**

**가. CITES**

-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국제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동식물의 멸종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CITES 협약 부속서에는 2016년 10월 현재 5,660종의 동물과 29,910여 종의 식물이 등재되어 보호받는다(환경부 홈페이지). CITES 해당 식물종은 <부록 4>에 제시하였음.

부표 1-2. CITES 기준과 규제사항

	기준	규제사항
부속서 I (식물 978종)	멸종위기에 처한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목적의 국제거래 금지</li> <li>• 학술연구목적의 거래는 가능(수입국의 수입허가서 필요)</li> <li>• 수출국 관리기관의 수출허가서 필요</li> </ul>
부속서 II (식물 29,592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목적 거래 가능</li> <li>• 수출국 관리기관의 수출허가서 필요</li> </ul>
부속서 III (식물 13종)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목적 거래 가능</li> <li>• 수출국 관리기관의 수출허가서와 원산지증명서 필요</li> </ul>

자료: 환경부(2009)

부도 1-3. CITES 수출허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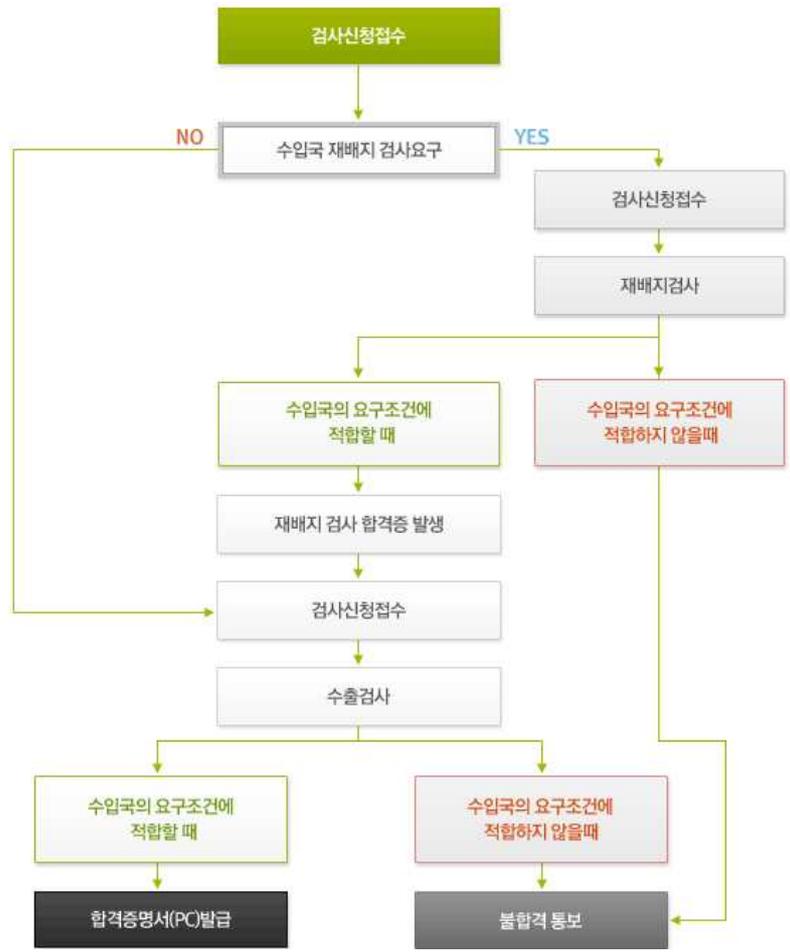
자료: 환경부(<http://www.me.go.kr>)

- 각 종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 정도와 적용되는 규제 정도에 따라 부속서 I, II, III로 구분되어 있다<부표 1-2>.
-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조인되었고 1975년 발효되었음.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120번째 국가로 가입함.
- 식물을 수출할 때는 해당 품종이 CITES 목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해야 한다. CITES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국(한국) 허가와 수입국(중국) 허가가 모두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 허가 신청이 진행된다.
- 인공 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 신청과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한다.
  - ①당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사육·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증식증명서 사본), ②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부속서 I에 한함), ③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cm, 세로 10.1cm 이상 크기의 사진, ④수송계획서 등이다.
  -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에는 ①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②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③인공증식의 방법, ④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에만 해당)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 나. 수출식물검역

- 세계 각국은 외래 병해충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수입 식물에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수출 식물에 대해서도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을 통하여 병해충이 없는 식물을 수출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의 국제 신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농업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일이다.
-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 검사 인력을 가동할 수 있고 검사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출자가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검사결과 수입국의 검역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합격증(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발급받는다. 검사 신청은 인터넷, 우편, 모사전송(FAX), 방문접수, 전화(수출검사합격증명서 작성에 지장이 없을 경우)등으로 가능하다.
  - 검사신청서에는 품목의 영명 또는 학명, 수량, 검사일시와 장소, 연락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검사신청서를 팩스로 보낼 때는 팩스 송부 사실을 전화로 통지하고 송장(Invoice)와 화물명세서(Packing List)를 함께 보낸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상대국의 금지품 해당 여부나 검역병해충 부착 여부 등을 검역하고, 상대국 검역 요구조건에 부합하면 ‘수출식물검역합격증’을 발급한다.
  - 수출자가 희망하면 공휴일과 일과시간 외에도 검역업무를 실시하며, 연휴기간에도 검역을 지원한다.
- 검사는 품목별로 검사 롯트를 구성하고 각 롯트에서 정해진 검사 수량을 무작위로 꺼내어 검사한다.
  - 피트모스, 이끼, 신문지 등 보습제에 해충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뿌리에 흙, 암종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 묘목을 하나씩 들고 부위별로 병징과 변색, 부패, 해충, 벌레먹은 구멍, 알을 낳은 흔적, 벌레똥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특히, 잎 뒷면과 눈에 미소해충 또는 알의 부착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부도 1-4. 수출식물 검역 절차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트를 깔고 그 위에서 묘목을 털어 떨어지는 협잡물을 검사한다.
  - 필요할 경우 선충분리검사, 배양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상대국과 수출허용 요건으로 협상이 타결된 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화물이 특정 병해충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거나, 전문 수출단지(미국, 캐나다, 호주 수출 배 등)를 지정·관리하여 상대국에서 규제하는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우리 검역본부 단독 또는 상대국 검역관과 합동 검역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수출식물검역 합격증명서에 부기함으로써 수출이 가능하다.

#### 다. 수출 수목의 전처리 작업

- 수목을 수출할 때 일정기간 재배지 검사를 받으면 흙이 붙은 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EU)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국가들은 흙과 병해충의 반입을 금지한다. 따라서 합법으로 수목을 수출하려면 토양을 제거하고 피트모스 등 인공 무균토에 바꿔 심고 살충제를 살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수입금지 판정을 받으면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반송되는데 어느 경우이든 손해가 크고 우리나라 수출식물검역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 중국으로 조경수를 수출하는 과정에 흙 때문에 반송된 사례도 있다.
- 뿌리에서 흙을 떨어내기 위해 물로 세척하게 되는데 이 때 뿌리가 훼손되므로 곧바로 수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뿌리 손상으로 이식 후 활착률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 인공 무균토(피트모스)에 바꾸어 심고 새로운 뿌리발생을 유도한 다음 수출해야 현지 활착률을 높일 수 있다. 새로운 뿌리가 생기는 데 상당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 뿌리를 세척할 때 지하수를 사용하면 알 수 없는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하면 수돗물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 수출 수목을 포장하고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과정에 해충이 붙지 않도록 살충제를 수시 살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오랜 동안 철저하게 선충대책을 실시한 농장에서 수출함과 동시에 수출 전에 검사 기관에서 선충이 있는지 검사한 다음 수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부 록 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sup>38</sup>

##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이하 검역법이라 약칭함)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아래의 물품은 검역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1. 수입·수출·통과하는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
2. 동식물 혹은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담은 용기, 포장 재료
3. 동식물 전염 지역에서 온 운송 도구
4. 입국 후 해체한 폐기 선박
5.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국제 조약의 규정 또는 무역 계약 약정에 의거하여 마땅히 수출입 동식물 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기타 화물이나 물품

제3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 업무를 주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 검역국(이하 검역국으로 약칭함)은 전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 업무에 관해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국내외 중대 동식물 전염병 정보를 수집하여 국제간 수출입 동식물 검역의 협력과 교류를 책임진다. 검역국은 대외 개방된 연안과 수출입 동식물 검역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설립된 연안 동식물 검역 기관에서 검역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식물 검역을 실시한다.

제4조 국외에서 발생된 중대한 동식물 전염 상황이 중국에 전파 가능할 때는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긴급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up>38</sup> 1996년12월2일 국무원령 제206호 공포, 1997년1월1일 시행  
자료: 중국한국상의([www.korcham-china.net](http://www.korcham-china.net))

1. 국무원은 해당 국경 지역에 대하여 통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동식물 전염 지역에서 온 운송 장비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관련 해안을 봉쇄한다.
2.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동식물 전염병이 유행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과한 동식물 혹은 동식물 제품, 기타 검역 물품의 목록을 공시하여 입국을 금할 수 있다.
3. 관련된 해안 동식물 검역 기관은 병충해로 오염된 본 조례 제2조에 기재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긴급 검역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동식물 전염 상황 위험 정보를 접수한 지역의 지방 인민정부는 즉시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상급 인민정부와 국가동식물검역국에 보고한다. 통신, 운송부서는 중대한 동식물 전염 보고와 검역 자료에 대해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전달이 되도록 한다.

제5조 외교 및 영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는 외국 기구의 인원이 공적 혹은 사적으로 동식물, 동식물 제품, 기타 검역 물품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법과 본 조례에 의거 검역을 실시한다. 해안의 동식물 검역 기관이 조사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세관은 법에 의거 해안 동식물 검역 기관에 협조하며, 수출입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해 감독 관리를 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와 해관총서가 함께 제정한다.

제7조 검역법에서 언급하는 동식물 검역 지역 및 동식물 전염병 유행 국가와 지역 목록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의 확정을 거쳐 공포한다.

제8조 검역법과 본 조례의 완벽한 집행을 위해 현저한 성적을 나타낸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 포상한다.

## 제2장 검역 심사

제9조 동물·동물 제품의 수입과 수출입동식물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입금지 품의 검역 심사는 국가 동식물 검역국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의 검역 심사는 식물검역조례에 규정된 기구에서 책임진다.

제10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입 검역 심사 수속이 가능하다.

1. 수출 국가 혹은 지구에 중대한 동식물 전염이 없는 경우
2. 중국 관련 동식물 검역 법률·법규·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부합하는 경우
3. 중국과 수출 국가 혹은 지역이 합의한 관련 쌍방 검역 협정(검역 협의, 비망록 등

도 해당)에 부합하는 경우

제11조 검역 심사 수속은 무역 계약 혹은 협의서 합의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제12조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식물 종자 혹은 종묘 및 기타 번식 재료의 수입 시에는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하여 검역 심사 수속을 거쳐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사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휴대인이나 발송인이 해안에서 보충 검역 심사 수속을 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검역 합격 후 입국이 가능하다.

제13조 동물의 중국 통과 시 화주 혹은 대리인은 반드시 사전에 국가 동식물 검역국에 서면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국 혹은 지역 정부의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동시에 수입국 혹은 지역 정부의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동식물 입국 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통과 노선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국가동식물 검역국은 심사 동의 후 《동물 통과 허가증》을 발행한다.

제14조 과학 연구 등의 특수한 수요에 의해, 검역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한 금지수입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금지 수입품 특수 허가 검역 심사 수속을 하여야 한다. 화주·소유주 혹은 대리인은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수량·용도·수입 후 방역 조치를 설명하여야 한다. 동시에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이 서명한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5조 수입 검역 심사 수속 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주·소유주·대리인은 반드시 재차 검역 심사 수속을 신청 처리해야 한다.

1. 수입 물품의 품종이나 수량의 변경시
2. 수출국 혹은 지역의 변경시
3. 수입 해안의 변경시
4. 검역 심사 유효기간을 넘겼을 경우

### 제3장 수입 검역

제16조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제12조에서 언급한 중국 법정 검역 요구는 중국 법률·행정법규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하는 동식물 검역 요구를 가리킨다.

제17조 국가가 중국에 수출하는 동식물 제품의 국외 생산·가공·보관 단위에 대해서는 등록등기 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제정한다.

제18조 동식물·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의 수입 시 화주 혹은 대리인은 수입 전 혹은 수입과 동시에 수입하는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검사를 보고한다. 세관 검사 관리국 검역의 변경이나 도착 지점 지정 시에는 화주 혹은 대리인은 관련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 이전 화물에 대해서는 화주 혹은 대리인은 수입 시 수

입되는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보고하며, 지정 운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지정 운수 지점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검사를 보고한다. 가축 가금류 및 해당 정액·알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 30일 전에 검사를 보고하며, 기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15일 전에 검사를 보고한다. 종자·종묘 및 기타 번식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입국 7일 전에 검사를 보고한다. 동식물성 포장물·포장 재료의 입국 수속 시는 화주 혹은 대리인이 즉시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고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동식물성 포장물, 포장 재료는 직접 포장물이나 깔개 재료로 쓴 동식물 제품과 식물·식물 제품을 가리킨다.

제19조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검사를 보고할 경우, 검사 보고서를 자세히 기록하고, 수출국 혹은 해당 지역 정부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서·원산지증명·무역계약·신용장·선하증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법에 의거 검역 심사 수속을 행하여야 하며, 검역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수출국 혹은 해당 지역 정부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검역증서가 없거나, 합법적으로 검역 심사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항구 동식물 검역기관이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화물 반납이나 폐기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수입된 동식물·동식물 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해안에 도착할 경우 검역 인원은 운송수단에 진입하여 화물 현장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화물과 증명 서류의 상이 여부를 확인하며 동시에 규정에 의거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화물 운송자와 화주 혹은 대리인은 검역 인원에게 선적 리스트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적재한 동물의 운송 수단이 항구에 도착했을 경우, 하역한 운송 도구 혹은 동물에 접근한 인원은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이 실시하는 방역 소독에 응해야 한다. 동시에 기타 현장에 대한 예방 조치를 집행한다.

제22조 검역 인원은 아래의 규정에 의거 현장 검역을 실시한다.

1. 동물: 질병 여부에 따르는 임상 증상을 관찰한다. 의심되는 전염병 혹은 이미 사망한 동물이 발견될 경우, 화주 혹은 운송인의 협조 아래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즉시 처리한다. 동물이 깔고 있던 식물·잔여사료와 배설물 등은 화주 혹은 대리인이 검역 인원의 감독 아래 위험물을 제거한다.
2. 동물제품: 부패 변질 상태를 조사하며, 용기·포장의 파손 여부를 검사한다. 규정에 적합한 경우는 하역을 허가한다. 포장이 풀렸거나 용기의 파손이 발견된 경우에는 화주나 대리인의 책임 아래 완벽히 원상 복구한 후 하역을 허가한다. 상황에 따라 운반수단의 해당 부분과 동물제품을 적재했던 용기, 외부 포장물, 깔개재료, 감염 장소 등에 대해 소독 처리를 실시한다. 실험실 검역이 필요할 경우는 규정에 따라 샘플을 채취한다. 해충이 번식하기 쉬운 식물 혹은 잡초의 종자가 섞여 있는 동물

제품에 대해서는 식물 검역을 동시에 실시한다.

3. 식물·식물 제품: 화물과 포장물의 병충해 유무를 검사한다. 규정에 의거 샘플을 채취한다. 병충해를 발견하고 동시에 확산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해당 화물이나 운송 수단과 하역 현장에 대해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한다. 화물이 동물 전염병 지역에서 왔거나, 동물 전염병 전염 혹은 기생충 병원체의 전염이 용이하거나 동물 사료로 사용 가능한 식물 제품에 대해서는 동물 검역을 동시에 실시한다.
4. 동식물성 포장물·갈래 재료: 병충해의 보유 여부·잡초 종자·오염된 토양에 대해 검사하며, 규정에 따라 샘플 채취를 한다.
5. 기타 검역물: 포장의 파손 여부와 병충해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파손을 발견하거나 병충해 오염을 발견할 경우는 위험물을 제거한다.

제23조 선박·기차로 운반되는 대형(벌크)동식물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분리 검사를 실시한다. 항구나 기차역의 제한적인 보관 조건으로 인해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의 동의 아래 하역과 동시에 부분 운송을 할 수 있다. 운송된 동식물 제품은 지정된 지점에 보관한다. 하역 과정 중 진행된 검역에서 전염병이 발견될 경우는 그 하역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화주 혹은 대리인에 의해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미 하역되었거나 미 하역된 화물에 대해 위해(危害)제거 처리를 한다. 전염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병충해 오염에 노출된 하역 도구와 장소는 반드시 위해 제거 처리를 한다.

제24조 품종이 많은 가축을 수입하는 경우는 국가 동식물 검역국이 설립한 동물 격리 검역 장소에서 45일 격리 검역을 실시한다. 기타 동물의 수입은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이 지정한 동물 격리 검역장에서 30일 격리 검역을 실시한다. 동물 격리 검역 장소 관리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제정한다.

제25조 입국하는 동일한 동식물 제품의 각기 다른 항구에서의 하역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본 항구의 하역화물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한다. 앞선 하역항의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은 검역 및 처리상황을 즉시 기타 하역하는 항구의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 통지한다. 대외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역이 완결된 항구의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검역증서를 발급한다. 하역항 검사 중에 전염병을 발견하고 반드시 선박에서 훈증, 소독해야 하는 경우 당해 하역항의 항구 동식물 검역기관에서 통일적으로 검역증서를 발급하고 적시에 기타 하역항의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26조 수입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은 중국 국가표준과 업계표준에 의거 국가 동식물검역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제27조 수입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은 검역 합격후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수입허가서에 인장을 날인하거나 <검역완결 통지서>를 발행한다. 수입항구의 변경이 있어 해안 세관 감독관리구 검역이 필요한 경우는 수입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해안 변경검역통지서>를 발행한다. 화주 혹은 대리인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수입허가서에 인장을 날인하거나 발행한 <검역완결통지서>, <해안 변경 검역통지서>를 근거로 세관보고·운반수속을 진행한다. 세관은 수입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에 대해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세관보고서에 날인한 인장이나 발행한 <검역완결통지서><해안 변경 검역통지서>를 근거로 검사를 생략한다. 운수·체신부문은 위 서류를 근거로 운송을 행하며, 운송기간 국내 기타 검역기관은 재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28조 수입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검역 불합격 판정이 난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검역처리통지서>를 발행하여, 화주 혹은 대리인이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감독과 기술지도 아래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통지한다. 대외클레임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9조 국가 동식물검역국은 검역의 필요에 따라 동식물·동식물제품 수출국가 혹은 지역의 정부 관련기관의 동의를 거쳐 검역인원을 파견하여 사전검역과 포장감독 및 원산지 감염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세관·국경수비 등 부문은 압수한 불법 수입된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에 대해서 즉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 제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 제4장 수출검역

제31조 화주 혹은 대리인은 법에 의거,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출국보고 수속시 무역계약과 협의서를 제공한다.

제32조 수입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생산·가공·보관 단위의 등록등기를 요구할 경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등록등기를 실시하고 동시에 국가 동식물검역국에 이를 보고한다.

제33조 동물 수출시 출국 전에 격리 검역이 필요한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하는 격리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식물·동식물제품 기타 검역물의 수출시 창고 혹은 화물소재지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필요에 의해 생산·가공 과정중 검역을 실시할 수도 있다. 검역에 제공되는 수출용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수량·포장·적재·마크 표기가 완벽한 상태이어야 한다.

제34조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수출검역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1. 수입국가 혹은 지역과 중국 관련 동식물검역규정
2. 쌍방 검역 협정
3. 무역계약에 명시된 검역 요구

제35조 운반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친 합격 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은 출국 해안으로의 운반시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동물은 수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임상 검역 혹은 재검을 거친다.
2. 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이 최초 운반지에서 운반수단으로 옮겨져 출국될 경우 출국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증명서를 검사하고 허락한다. 운반수단이 바뀌어 출국할 경우는 증명서를 바꾸어 허가한다.
3. 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이 일괄포장으로 수출 해안에 도달한 후, 수입국이나 지구의 변경으로 인해 각기 다른 검역요구가 있을 경우, 혹은 규정된 검역 유효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제36조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수출할 경우, 최초 운반지에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합격을 득한 후 수출해안에 도착한 화물에 대해서는 운수·체신부문은 최초 운반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에 의거 운반하여야 하며, 국내 기타 검역기관은 재검역을 하지 않는다.

## 제5장 국경 통과 검역

제37조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국경통과(화물이전도 포함)시는 운반인 혹은 피운반인은 선하증권과 수출국가 혹은 지방정부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입국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사보고를 한다. 동물의 국경통과 시는 동식물검역국이 발행한 <동물 국경통과 허가증> 을 동시에 제출한다.

제38조 국경통과 동물이 입국 해안에 도달할 경우, 입국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운반수단·용기의 외관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며 동물에 대해 임상검역을 진행한다. 검역 합격 판정후 국경통과를 허락한다. 입국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검역인원을 파견하여 출국해안을 감독할 수 있으며, 출국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재검역하지 않는다.

제39조 국경통과 식물·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의 운반수단과 포장물·적재 용기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사를 거친 후 운반수단 혹은 포장물·적재 용기가 운반도중 누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운반인 혹은 피운반인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요구에 의거 밀봉조치를 취해야 한다. 밀봉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국경통과를 허락하지 않는다.

## 제6장 휴대 및 우편물의 검역

제40조 휴대·우편물을 이용한 종자·종묘 및 기타 번식 재료의 입국시 법에 따라 검역심사수속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이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한다. 우편물의 반송처리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우편물과 발송장에 반송원인을 명기한다. 우편물 폐기처분시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통지서를 발급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한다.

제41조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세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제시된 보고서나 또는 조사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즉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 제출하여 검역을 받도록 한다.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물품은 휴대 입국을 불허한다.

제42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항구·공항·기차역의 승객통로나 수화물 인수처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휴대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의 물품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 가방이나 수화물을 개봉하여 검사한다. 여행객의 수출입 검사현장에는 반드시 동식물검역 데스크 위치와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43조 동물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수출국 국가 혹은 지역 정부의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서를 지참해야 하며, 검역 합격후 입국을 허락한다.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휴대 입국할 때는 면역접종증서를 지참해야 하고, 검역증서나 면역증서가 없는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기한내 반송시키거나 몰수 폐기 처리한다. 기한내 반송시키는 경우 휴대인은 규정된 시간에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억류허가증을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출국할 때 이를 반납하고 동물을 휴대 출국한다. 정해진 기한내 동물을 휴대하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동물을 자동 폐기 처리한다. 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현장 검역 합격후 입국을 허가한다. 실험실 검역이나 격리 검역이 필요한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억류증명서를 발급한다. 억류 검역후 합격한 경우 휴대인은 억류증명서를 제시하고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물품을 돌려받는다. 정해진 기간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처리한다. 휴대·우편물 입국이 금지된 물품은 검역법 제29조 규정의 목록에 열거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에 따른다.

제44조 우편으로 발송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국제우편물교환국(국제 특급우편 택배회사와 기타 국제 우편물 경영단위를 포함하며,

이하 우체국으로 약칭함)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우체국은 필요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현장 검역 합격 제품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허가인장을 날인하며, 우체국에 인계한다. 실험실 검역이나 격리 검역이 필요한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우체국에 인수 수속을 밟는다. 검역 합격품은 허가증 도장을 날인하여 우체국에 인계한다.

제45조 휴대·우편물로 입국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이 검역을 거쳐 불합격판정을 받거나 유효한 방법으로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는 반송이나 폐기 조치한다. 동시에 <검역처리 통지서>를 휴대인이나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 제7장 운송수단의 검역

제46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동식물 검역지구에서 온 선박·비행기·기차에 대하여서는 운송수단에 진입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관련 운송수단 책임자는 검역인원의 조사를 받아들여야 하며 조사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운행 일자와 탑재 화물의 명세를 제공하며, 창고와 객실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전항의 운송수단에 병충해가 잠복할 가능성이 있는 식당차·조리차·주방·저장실·식품창고 등과 동식물제품 보존 및 사용장소·배수구·동식물성 폐기물의 보존 장소·컨테이너 본체 등의 구역 혹은 일부분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는 방역 소독처리를 한다.

제47조 동식물검역지구에서 온 선박·비행기·기차에서 검역법 제18조에 규정한 병충해를 발견했을 경우 훈증 소독 혹은 위해 제거 처리를 한다. 입국이 금지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의 입국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밀봉 억류 처리하거나 폐기 처리한다. 밀봉억류 처리품에 대해서는 중국 국경 내에서 체류 혹은 운행하는 동안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허가 없이는 밀봉상태를 해제할 수 없다. 운송도구 상의 배수구·동식물성 폐기물 및 그 보관장소·용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감독에 따라 위해 제거 처리한다.

제48조 동식물 검역지구에서 온 입국 차량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방역 소독 처리한다.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탑재한 차량이 검역을 통해 병충해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적재화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위해 제거 처리를 한다. 홍콩·마카오 지구에 공급하는 동물을 적재했다가 운송 완료후 빈 차량으로 돌아오는 경우 전체 차량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제49조 해체를 위해 입국되는 폐선박에 대해서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검역을 실시한다. 병충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 감독에 따라 위해 제거 처리

를 한다. 입국이 금지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 감독에 따라 폐기 처리한다.

제50조 동식물 검역지구에서 입국되는 운송도구가 검역 혹은 소독처리 합격후 운송도구 책임자 혹은 대리인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에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운송도구 검역증서> 혹은 <운송도구 소독증서>를 발행한다.

제51조 입국·국경 통과하는 운송도구가 중국 국경 내에서 체류할 경우 운송인원과 기타 인원들은 탑재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운송도구에서 이탈시켜서는 안 된다. 이탈이 필요할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역을 신고한다.

제52조 탑재된 동물을 출국하는 운송도구에 대해서는 탑재 전에 해안 동식물검역기관 감독하에 소독처리를 한다. 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탑재하고 출국하는 운송도구는 국가 관련 동식물 방역 및 검역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위해성 병충해 혹은 규정 표준을 초과하는 일반성 세균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위해요소를 제거한 후에야 운송할 수 있다.

## 제8장 검역 감독

제53조 국가 동식물검역국과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수출입되는 식물·동식물제품의 생산·가공·보존과정에 대해 검역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 행정주관부문이 제정한다.

제54조 수출입 되는 동물 및 식물의 종자·종묘 및 기타 번식 재료는 격리 사육·격리 재배가 필요하며 격리기간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수출입 동식물 검역 훈증 및 소독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인원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합격을 받아야 한다.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훈증·소독 업무에 대한 감독 지도를 하고 동시에 훈증·소독을 책임지는 증서를 발행한다.

제56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항·항구·역·창고·가공공장·농장 등에서 생산·가공·보관하는 수출입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에 대해 현장에서 동식물검역과 감독측정을 실시한다. 이에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설치한 동식물 검역상황 측정기기를 이동하거나 파손할 수 있다.

제57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필요에 따라, 수출입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운반도구와 적재 용기에 동식물 검역밀봉표지 혹은 표식을 설치할 수 있다.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이 밀봉표지를 뜯거나 파손할 수 없다. 이

표지는 국가동식물 검역국이 통일 제정 발행한다.

제58조 입국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과 적재된 상기 적재용기·포장물이 보세구(보세공장, 보세창고 등을 포함)로 향할 경우 입국 해안에서는 법에 의거 검역을 실시한다.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은 구체상황에 따라 검역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가공 후 다시 출국시킬 경우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과 본 조례의 관련 출국 검역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9장 법률 책임

제59조 아래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검역을 미보고하거나 법에 의거 검역 심사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검역심사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경우
2. 검역 신고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과 실지 제품이 다를 경우 상기 제2항의 위법행위로 취득한 검역증서는 취소 처리한다.

제60조 아래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3천 위안이상 3만 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국·국경 통과를 하거나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운송도구에서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2. 독자적으로 목적지 항을 조정하거나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한 격리 장소에서 검역중인 동식물을 처리하는 경우
3. 독자적으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포장을 뜯거나 동식물 검역 밀봉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4. 독자적으로 국경 통과 동물의 시체·배설물·갈래 재료 혹은 기타 폐기물을 버리거나, 운반수단 상의 하수·동식물성 폐기물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처리한 경우

제61조 본 법 제17조, 제32조에 규정한 등록등기가 되어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생산·가공·보관하는 단위가 수출입하는 상기 물품의 검역 불합격되어 본 법 관련 규정에 의거 반송하거나 폐기 혹은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등록등기를 취소한다.

제62조 아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범죄성격이 현저히 경미하여 법에 의거 형벌처벌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2만 위안이상 5만 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중대한 동식물 전염행위를 야기시킨 경우
2. 동식물 검역증서·인장·표지·밀봉표식을 위조·변조한 경우

제63조 수출입 동식물 검역 훈증·소독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나 인원이 규정에 의거하여 훈증이나 소독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그 위법상황을 살피 업무자격을 취소한다.

## 제10장 부칙

제64조 검역법과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아래 용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종자와 종묘 기타 번식 재료라 함은, 재배 혹은 야생에서 번식할 수 있는 식물 전체 혹은 그 부분품이다. 이는 가지·묘목(시험용 관목을 포함)·과실·종자·접목·접수·접지·잎·발아체·뿌리·줄기·껍질·구경·화분·세포배양 재료 등을 가리킨다.
2. 적재 용기라 함은,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위해에 오염되기 쉬우며 수출입 화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용기, 즉 광주리·상자·통·케이스 등을 가리킨다.
3. 기타 유해 생물이라 함은, 동물 전염병·기생충과 식물 위험성 병·벌레·오염된 풀 이외의 각종 위해한 동식물의 생물유기체·병원 미생물 및 연체류·설치류·진드기류·다족충류 동물과 위험성 세균의 중간 기생주·매개체 생물 등을 가리킨다.
4. 검역증서라 함은,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건강 혹은 위생 상태에 관한 법률로 유효한 문서이다. 즉, <동물검역증서>, <식물검역증서>, <동물건강증서>, <수의위생증서>, <훈증/소독증서> 등이 있다.

제65조 수출입 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검역 혹은 규정에 의한 훈증·소독·반송·폐기 등의 처리로 소요된 비용 혹은 이로 인해 야기된 손실은 화주·소유자 혹은 대리인 부담이다.

제66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규정에 의거 검역 실시를 위해 샘플을 채취할 경우에는 채취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실험 잔여품은 화주·소유자 혹은 대리인이 규정된 기한에 수취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것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7조 무역성 동물제품의 출국 검역기관은 국무원이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제68조 본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록 3

## 입경재배매개물검역관리방법<sup>39</sup>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제13호)

《입경 재배 매개물 검역 관리 방법》을 이에 공포하며,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이장강(李長江)

1999년 12월 9일

### 제1장 총칙

제1조 식물 위험성 유해 생물이 재배 매개물을 통해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 조례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입경되는 토양 이외의, 모든 1종 또는 여러 종이 혼합된 양분 저장, 수분 유지, 통풍 및 식물 고정 등 역할을 하는 인공 또는 천연 고정 물질로 구성된 재배 매개물에 적용된다.

제3조 국가 출입경검험검역국(이하 ‘국가검험검역국’)이 전국 입경 재배 매개물의 검역 심사 비준 업무를 일괄 담당한다. 국가검험검역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경 검험검역기구(이하 ‘검험검역기구’)는 관할 지역의 입경 재배 매개물 검역 및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 제2장 검역 심사 비준

<sup>39</sup>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main.jsp>)

제4조 재배 매개물을 사용하는 단위(單位, 직장, 기관, 회사, 부서 등 사업장을 의미)는 무역 합동(合同, 계약) 또는 협의 체결 전 검역 심사 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제5조 재배 매개물 심사 비준 수속은 이하 요건에 부합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 (一) 재배 매개물 수출국 또는 지역에 중대 식물 질병이 발생하지 않음
- (二) 재배 매개물은 반드시 신규 합성 또는 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공장 출고에서 중국 경내 운송까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三) 입경 재배 매개물에 토양이 섞여있으면 안됨

제6조 입경 재배 매개물을 사용하는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검험검역국입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신청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재배 매개물의 성분 검험(檢驗, 검사), 가공 공정 절차, 유해 생물 및 토양 감염 방지 대책, 유해 생물 검역 보고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최초 수입되는 재배 매개물의 경우, 수입 단위는 심사 비준 신청 시 특별 심사 비준을 거쳐 수입된 샘플 1.5-5kg을 국가검험검역국이 지정한 실험실에 보내 검험하고, 관련 검험 결과 및 위해 평가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심사 합격 후, 국가검험검역국이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검험검역국입경동식물검역허가증》을 발급하며, 입경 검역 요건에 서명하고 입경 구안(口岸, 개방한 출입경 공항, 항구, 육지통로 등)을 지정하며, 그 사용 범위와 시간을 한정한다.

### 제3장 입경 검역

제8조 수입 재배 매개물의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입경 전 검역 심사 비준서를 입경 구안 검험검역기구에 검험 보고하고, 수출국 정부 식물 검역 증서, 무역 합동, 신용증 및 송장 등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증서 상에는 반드시 재배 매개물이 검역을 거쳐 중국 검역 요건에 부합되었음이 명기되어야 한다.

제9조 재배 매개물 입경 시, 검험검역기구는 재배 매개물 및 그 포장과 충전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일부 샘플을 채취하여 국가검험검역국이 지정한 관련 실험실에 보내고, 심사 비준시 보낸 샘플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역을 거쳐 병원진균, 세균 및 선충, 연체동물 및 기타 유해 생물이 발견되지 않은 재배 매개물은 통관 허용한다.

제10조 기타 위험성 유해 생물이 섞인 재배 매개물은 효과적인 제거 처리를 거쳐 검역 합격 후 통관이 허용된다.

제11조 이하 재배 매개물은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한다:

- (一) 규정에 따라 검역 심사 비준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 (二) 토양이 섞인 경우
- (三) 중국 입경 식물 검역 1,2류 위험성 유해 생물 또는 중국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타 위험성 유해 생물이 섞였고, 효과적 제거 처리방법이 없는 경우
- (四) 입경 재배 매개물과 심사 비준 품종이 불일치하는 경우

## 제4장 검역 관리 감독

제12조 국가검험검역국은 중국 수출 무역성 재배 매개물의 국외 생산, 가공, 보관 단위에 대해 주책(注册, 등록), 등기 제도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수출국 관련 부처의 동의를 거쳐 검역 인원을 생산지에 파견하여 사전 검사, 포장 감독 또는 생산지 질병 상황 조사 등을 진행한다.

제13조 입경 재배 매개물을 사용하는 단위는, 반드시 구안 검험검역기구에 주책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검험검역기구는 입경된 재배 매개물의 사용 과정, 격리 시설 및 위생 여건 등 지표에 대해 심사 검수하고, 합격 후 주책 등기증을 발급한다.

제14조 검험검역기구는 재배 매개물의 입경 후 사용 범위 및 사용 과정에 대해 정기 검역 관리 감독과 질병 상황 검측을 진행하고, 질병 상황 및 문제 발견 시 즉시 그에 상응하는 처리 대책을 취하며, 관련 상황을 국가검험검역국에 보고해야 한다. 식물 재배에 직접 사용되는 매개물의 경우, 관리 감독 시간은 최소한 재배 식물의 1개 생장 주기여야 한다.

제15조 재배 매개물이 포함된 입경 전시 분재 식물은 반드시 엄격한 격리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입경 시 재배 매개물을 교체하고 식물의 뿌리 세척 처리를 해야 하며, 살아있는 상태 유지를 위해 재배 매개물 교체 처리를 할 수 없는 분재 식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검역국에 수입 재배 매개물 심사 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단, 사전에 샘플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제16조 재배 매개물이 포함된 입경 전시 식물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간에 참여 전시 지역의 검험검역기구는 검역 관리 감독을 진행한다. 전시 완료 후 국내 판매가 필요한 경우, 관련 무역성 입경 재배 매개물 검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5장 부칙

제17조 본 방법을 위반한 관련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 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본 방법은 국가검험검역국이 그 해석을 담당한다.

제19조 본 방법은 2000년 1월 1일부로 집행된다.

첨부: 재배 매개물의 중문 및 영문 명칭

재배 매개물에는 pottingsubstratum, pottingsoil, pottingmedium 등이 포함된다. 모래 sand, 재calcined, 광재acoria, 비석zeolite, 하소점토calcinedclay, 세람사이트claypellets, 질석vermiculite, 진주암perlite, 석면rockwool, 유리솜glasswool, 부석pumide, 편암, 화산암volcanicrock, 폴리스티렌polystyrene,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플라스틱 입자plasticparticle, 합성 스펀지synthetic sponge 등 무기 재배 매개물 및 유기 물질에서 기인해 고온, 고압 멸균 처리를 거친 토탄peat, 물이끼sphagnum, 이끼moos, 수피barks, 코코넛 껍질cocossubstrate, 코르크cork, 톱밥sawdust, 벼 껍데기ricehulls, 땅콩 껍질peanuthulls, 버가스bagasse, 목화씨 껍질cottonhulls 등도 포함된다.

## 부 록 4

국제적 멸종위기종(식물) 목록<sup>40</sup>

1. 본 목록에 포함된 종은 학명에 의해 적용되거나, 상위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 또는 지정된 일부분에 의해 적용된다.
2.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3. 본 목록상의 정보 제공 및 분류를 위해 종 이상의 분류군에 별도의 설명을 제시하였다. 과의 학명에 부기한 일반명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목록의 종들을 과별로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경우, 본 목록에서 과내 전체의 종을 지정하지 않았다.
4. 본 목록상의 다음의 약어는 종보다 하위의 분류단계에 있는 식물 분류군에 쓰인다.
  - 가. “ssp.”는 아종을 의미한다.
  - 나. “var(s).”는 변종을 의미한다.
5. 부속서 I 에 포함된 식물의 종 또는 상위 분류군의 교잡종은 CITES 협약문 제3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상기 종 또는 분류군의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부터 인공증식된 교잡종은 인공증식증명서를 통하여 거래될 수 있으며, 이 교잡종의 종자와 화분(화분과 포함), 절화 또는 무균상태 기내배지(고체 또는 액체)에서 배양한 유묘와 배양조직은 CITES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6. 부속서 III의 증명에 부기된 괄호안의 국가명은 해당종을 부속서에 포함시킨 당사국이다.
7. 부속서에 포함된 종은 별도 주석이 없는 한 그 종의 모든 부분물 또는 파생물을 포함한다. 부속서 II, III에 포함된 종 또는 상위 분류군의 이름 옆에 표기된 기호 #은 협약문 I조 b)항 iii)세항에 따라 지정된 부분 또는 그 파생물을 표시하는 각주를 나타낸다.
  - ※단 CITES 종이면서 인공증식된 국내멸종위기종 및 국외반출승인대상종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sup>40</sup>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_환경부고시 제2015-173호

## □ 식물 FLORA (PLANTS)

구 분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용설란과 AGAVACEAE	아가베 과비플로라 <i>Agave parviflora</i>	빅토리아여왕용설란 <i>Agave victoriae-reginae</i> #4	
		놀리나 인테라타 <i>Nolina interrata</i>	
		<i>Yucca queretaroensis</i>	
수선화과 AMARYLLIDACEAE		갈란투스속 전종 <i>Galanthus</i> spp. #4	
		스테른베르기아속 전종 <i>Sternbergia</i> spp. #4	
옷나무과 ANACARDIACEAE		오페르쿨리카리아 하이페 노이테스 <i>Operculicarya hyphaenoides</i>	
		오페르쿨리카리아 파키푸스 <i>Operculicarya pachypus</i>	
		<i>Operculicarya decaryi</i>	
협죽도과 APOCYNACEAE	파키펀디움 암봉엔스 <i>Pachypodium ambongense</i>	후디아속 전종 <i>Hoodia</i> spp. #9	
	파키펀디움 바로니 <i>Pachypodium baronii</i>	파키펀디움속 전종 <i>Pachypodium</i> spp. #4 (부 속서 I에 해당되는 종 제외)	
	파키펀디움 테카리이 <i>Pachypodium decaryi</i>	라우볼피아 서펜티나(인도사목) <i>Rauvolfia serpentina</i> #2	
두릅나무과 ARALIACEAE		인삼 <i>Panax ginseng</i> #3 (러시아공화국 개체군만 해당) (주해개정)	
		오염인삼 <i>Panax quinquefolius</i> #3	
남양소나무과 ARAUCARIACEAE	칠레소나무 <i>Araucaria araucana</i>		
매자나무과 BERBERIDACEAE		포도필름 핵산드름 <i>Podophyllum hexandrum</i> #2	
파인애플과 BROMELIACEAE		틸란드시아 카미 <i>Tillandsia kammii</i> #4	
		틸란드시아 마우리아나 <i>Tillandsia mauriana</i> #4	
		틸란드시아 크세로그라피카 <i>Tillandsia xerographica</i> #4	
선인장과 CACTACEAE	아리오카푸스속 전종 <i>Ariocarpus</i> spp.	선인장과 전종 CACTACEAE spp. #6, #4 [부속서 I에 해당되는 종과 목기린선인장속 전종 ( <i>Pereskia</i> spp.), 퀴아벤티아속 전종 ( <i>Quiabentia</i> spp.), 페레스키옵시스속 전종	

구 분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 <i>Pereskopsis</i> spp.) 제외]	
	아스트로하이툼 아스테리아스 <i>Astrophytum asterias</i>		
	아즈텍키움 리테리 <i>Aztekium ritteri</i>		
	코리판타 웨르더만니이 <i>Coryphantha werdermannii</i>		
	디스코카투스속 전종 <i>Discocactus</i> spp.		
	에치노세레우스 페레이리 아누스 린드사이 <i>Echinocereus ferreirianus</i> ssp. <i>lindsayi</i>		
	에치노세레우스 슈몰리 <i>Echinocereus schmollii</i>		
	에스코바리아 미니마 <i>Escobaria minima</i>		
	에스코바리아 스니디 <i>Escobaria sneedii</i>		
	마밀라리아 펙티니페라 <i>Mammillaria pectinifera</i>		
	마밀라리아 솔리시오이데스 <i>Mammillaria solisioides</i>		
	멜로카투스 코노이테우스 <i>Melocactus conoideus</i>		
	멜로카투스 데이나칸투스 <i>Melocactus deinacanthus</i>		
	멜로카투스 글라우세센스 <i>Melocactus glaucescens</i>		
	멜로카투스 파우시스피누스 <i>Melocactus paucispinus</i>		
	오브레고니아 데네그리 <i>Obregonia denegrii</i>		
	파키세레우스 밀리타리스 <i>Pachycereus militaris</i>		
	페디오카투스 브라디 <i>Pediocactus bradyi</i>		
	페디오카투스 노울토니이 <i>Pediocactus knowltonii</i>		
	페디오카투스 파라디네이 <i>Pediocactus paradinei</i>		
	페디오카투스 페블레시아누스 <i>Pediocactus peeblesianus</i>		
	페디오카투스 실레리 <i>Pediocactus sileri</i>		
	펠레키포라속 전종		

구 분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i>Pelecyphora</i> spp.		
	스클레로카투스 브레비하 마투스 <i>Sclerocactus brevihamatus</i> ssp. <i>tobuschii</i>		
	스클레로카투스 에렉토센 트루스 <i>Sclerocactus erectocentrus</i>		
	스클레로카투스 글라우쿠스 <i>Sclerocactus glaucus</i>		
	스클레로카투스 마리포센시스 <i>Sclerocactus mariposensis</i>		
	스클레로카투스 메세베르테 <i>Sclerocactus mesae- verdae</i>		
	스클레로카투스 넨시스 <i>Sclerocactus nyensis</i>		
	스클레로카투스 파피라칸투스 <i>Sclerocactus papyracanthus</i>		
	스클레로카투스 푸비스피누스 <i>Sclerocactus pubispinus</i>		
	스클레로카투스 라이티에 <i>Sclerocactus wrightiae</i>		
	스트롬보캐터스속 전종 <i>Strombocactus</i> spp.		
	투르비니카푸스속 전종 <i>Turbinicarpus</i> spp.		
	웨벨마니아속 전종 <i>Uebelmannia</i> spp.		
카리오카라과 CARYOCARACEAE		카리오카르 코스타리센스 <i>Caryocar costaricense</i> <sup>#4</sup>	
국화과 COMPOSITAE	사우스레아 코스투스(목향) <i>Saussurea costus</i>		
박과 CUCURBITACEAE		자이코시씨오스 푸브센스 <i>Zygosicyos pubescens</i>	
		자이코시씨오스 트리파티투스 <i>Zygosicyos tripatitus</i>	
측백나무과 CUPRESSACEAE	피츠로야 쿠프레소이데스 <i>Fitzroya cupressoides</i>		
	필제로텐드론 우비페룸 <i>Pilgerodendron uviferum</i>		
목성양치과 CYATHEACEAE		키아데아속 전종 <i>Cyathea</i> spp. <sup>#4</sup>	
소철과 CYCADACEAE	키카스 베도메이 <i>Cycas beddomei</i>	소철과 전종 CYCADACEAE spp. <sup>#4</sup> (부속서 I에 해당되는 종 제외)	
딕소니아과		시보티움 바로매트(구척)	

구 분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DICKSONIACEAE		<i>Cibotium barometz</i> #4 딕소니아속 전종 <i>Dicksonia</i> spp. #4 (미국 개체군만 해당)	
디디에레아과 DIDIEREACEAE		디디에레아과 전종 DIDIEREACEAE spp. #4	
마과 DIOSCOREACEAE		디오스코레아 델토이데아 <i>Dioscorea deltoidea</i> #4	
끈끈이귀개과 DROSERACEAE		파리지옥풀 <i>Dionaea muscipula</i> #4	
EBENACEAE		<i>Diospyros</i> spp. #4 (마다가스카르 개체군)	
대극과 EUPHORBIACEAE	유포르비아 암보롬벤시스 <i>Euphorbia ambovombensis</i>	대극속 전종 <i>Euphorbia</i> spp. #4 (부속서I에 해당되는 종과 <i>Euphorbia misera</i> 를 제외한 다 육성 종에 한함. 단, <i>Euphorbia trigona</i> 재배종의 인공증식된 표본, 인공증식된 <i>Euphorbia ner- iiifolia</i> 의 뿌리에 접붙임된 <i>Euphorbia lactea</i> 의 초승달형, 부채형 혹은 색상돌연변이체, 100개체 이상 단위로 인공증식된 표본임이 쉽게 식별되게 교역 되는 <i>Euphorbia 'Mili'</i> 재 배종의 경우는 CITES 협약의 규 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유포르비아 캡사인테마리 엔시스 <i>Euphorbia capsaintemariensis</i>		
	유포르비아 크레머시 <i>Euphorbia cremersii</i> (forma <i>viridifilsa</i> 및 var. <i>rakotozafyi</i> 포함)		
	유포르비아 실린드리폴리아 <i>Euphorbia cylindrifolia</i> (ssp. <i>tuberifera</i> 포함)		
	유포르비아 데카리 <i>Euphorbia decaryi</i> (vars. <i>ampanihyensis</i> , <i>robinsonii</i> 및 <i>spirostida</i> 포함)		
	유포르비아 프란코이시이 <i>Euphorbia francoisii</i>		
	유포르비아 모라티이 <i>Euphorbia moratii</i> (vars. <i>antsingiensis</i> , <i>be- marahensis</i> 및 <i>multiflora</i> 포		

구 분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함)		
	유포르비아 파르비시아토포라 <i>Euphorbia parvicathophora</i>		
	유포르비아 콰르치티콜라 <i>Euphorbia quartziticola</i>		
	유포르비아 툴레아렌시스 <i>Euphorbia tulearensis</i>		
관봉목과 FOUQUIERIACEAE	포우키에리아 파스시쿨라타 <i>Fouquieria fasciculata</i>	포우키에리아 콜롬나리스 <i>Fouquieria columnaris</i> #4	
	포우키에리아 퍼어푸시 <i>Fouquieria purpusii</i>		
마황과 GNETACEAE			<i>Gnetum montanum</i> <sup>#1</sup> (네팔)
가래나무과 JUGLANDACEAE		오레오무네아 프테로카르파 <i>Oreomunnea pterocarpa</i> #4	
녹나무과 LAURACEAE		브라질장미나무 <i>Aniba rosaeodora</i> #12 (주해개정)	
콩과 LEGUMINOSAE	달베르기아 니그라 <i>Dalbergia nigra</i>	브라질나무 <i>Caesalpinia echinata</i> <sup>#10</sup>	<i>Dalbergia darienensis</i> <sup>#2</sup> (파나마 개체군)
		페리콕시스 엘라타 <i>Pericopsis elata</i> #5	<i>Dalbergia louvelii</i> <sup>#5</sup> (마다카스카르)
		플라티미시움 플레이오 스타키움 <i>Platymiscium pleiostachyum</i> #4	<i>Dalbergia monticola</i> <sup>#5</sup> (마다카스카르)
		테로카르푸스 산타라누스 (자단향) <i>Pterocarpus santalinus</i> #7	<i>Dalbergia normandii</i> <sup>#5</sup> (마다카스카르)
		<i>Dalbergia cochinchinensis</i> <sup>#5</sup>	<i>Dalbergia purpurascens</i> <sup>#5</sup> (마다카스카르)
		<i>Dalbergia granadillo</i> #6	<i>Dalbergia retusa</i> (과타말라개체군) <sup>#5</sup> (파나마 개체군) <sup>#2</sup>
	달베르기아 레투스 <i>Dalbergia retusa</i> (벨리즈) #6		달베르기아 스테벤소니 <i>Dalbergia stevensonii</i> #5 (과타말라개체군)
	달베르기아 스테벤소니 <i>Dalbergia stevensonii</i> (벨리즈) #6		<i>Dalbergia xerophila</i> <sup>#5</sup> (마다카스카르)
	달베르기아속 <i>Dalbergia</i> spp. (마다카스카르) <sup>#6</sup>		딤테릭스 파나멘시스 <i>Dipteryx panamensis</i>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i>Senna meridionalis</i>	
백합과 LILIACEAE	알로에 알비다 <i>Aloe albida</i>	알로에속 진중 <i>Aloe</i> spp. #4 (부속서I에 해당되는 종과 알로에 발바덴시스( <i>Aloe bar-</i>	

구 분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i>badensis</i> ) 로도 언급되는 알로에 베라( <i>Aloe vera</i> )는 제외)	
	알로에 알비플로라 <i>Aloe albiflora</i>		
	알로에 알프레디 <i>Aloe alfredii</i>		
	알로에 베이커리 <i>Aloe bakeri</i>		
	알로에 벨라툴라 <i>Aloe bellatula</i>		
	알로에 칼카이로필라 <i>Aloe calcairophila</i>		
	알로에 콤프레사 <i>Aloe compressa</i> (vars. <i>rugosquamosa</i> , <i>schistophila</i> 및 <i>paucituberculata</i> 포함)		
	알로에 델리넨시스 <i>Aloe delphinensis</i>		
	알로에 데스코잉스 <i>Aloe descoingsii</i>		
	알로에 프라질리스 <i>Aloe fragilis</i>		
	알로에 하워드시오이데스 <i>Aloe haworthioides</i> (var. <i>aurantiaca</i> 포함)		
	알로에 헬레나 <i>Aloe helenae</i>		
	알로에 라에타 <i>Aloe laeta</i> (var. <i>maniaensis</i> 포함)		
	알로에 파랄레리폴리아 <i>Aloe parallelifolia</i>		
	알로에 파르블라 <i>Aloe parvula</i>		
	알로에 필란시아 <i>Aloe pillansii</i>		
	알로에 폴리필라 <i>Aloe polyphylla</i>		
	알로에 라우히 <i>Aloe rauhii</i>		
	알로에 수잔나 <i>Aloe susanna</i>		
	알로에 베르시칼라 <i>Aloe versicolor</i>		
	알로에 보시이 <i>Aloe vossii</i>		

구 분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목련과 MAGNOLIACEAE			<i>Magnolia liliifera</i> var. <i>obovata</i> #1 (네팔)
멀구슬나무과 MELIACEAE		멕시코 마호가니 <i>Swietenia humilis</i> #4	<i>Cedrela odorata</i> #5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온두라스 마호가니 <i>Swietenia macrophylla</i> #6 (신열대구( <i>Neotropics</i> )개체군)	
		서인도 마호가니 <i>Swietenia mahagoni</i> #5	
벌레잡이통폴과 NEPENTHACEAE	네펜테스 카시아나 <i>Nepenthes khasiana</i>	네펜테스속 전종 <i>Nepenthes</i> spp. #4 (부속서 I에 해당되는 종은 제외)	
	네펜테스 라자 <i>Nepenthes rajah</i>		
난초과 ORCHIDACEAE	(부속서 I에 해당되는 난초과 전종의 실험 용기 내 또는 고형이나 액상 배지에서 채취되 어 무균컨테이너로 운반되는 묘목 또는 배양조직 중 CITES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인공증 식의 정의를 만족하는 표본의 경우에 한해서만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음)		
	애란기스 엘리시 <i>Aerangis ellisii</i>	난초과 전종 ORCHIDACEAE spp. #7, #4 (부속서 I에 해당되는 종 제외)	
	크레엔룸 석곡 <i>Dendrobium cruentum</i>		
	렐리아 종게아나 <i>Laelia jongheana</i>		
	렐리아 로바타 <i>Laelia lobata</i>		
	파피오펜디룸속 전종 <i>Paphiopedilum</i> spp.		
	페리스테리아 엘라타 <i>Peristeria elata</i>		
	프라그미페디움속 전종 <i>Phragmipedium</i> spp.		
	레난테라 임슈티아나 <i>Renanthera imschootiana</i>		
	열당과 OROBANCHACEAE		시스탄케 데셀티코라 (육종용) <i>Cistanche deserticola</i> #4
야자나무과 PALMAE	크리살리도카푸스 데시페이엔스 <i>Chrysalidocarpus decipiens</i>	비카리오포에니스 마다가스카 리엔시스 <i>Beccariophoenix mada- gascariensis</i> #4	

구 분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레무로포에니스 헬레우시 <i>Lemurophoenix halleuxii</i>	
		마로제자 다리아니 <i>Marojejya darianii</i>	
		네오딤시스 데카리 <i>Neodypsis decaryi</i> #4	
		라베내 로우베리 <i>Ravenea louvelii</i>	
		라베내 리부라리스 <i>Ravenea rivularis</i>	
		세트라나라 데수실베 <i>Satranala decussilvae</i>	
		보아니오아라 게랄디 <i>Voanioala gerardii</i>	
양귀비과 PAPAVERACEAE			<i>Meconopsis regia</i> #1 (네팔)
시계꽃과 PASSIFLORACEAE		아테니아 올라보엔시스 <i>Adenia olaboensis</i>	
		<i>Adenia firingalavensis</i>	
		<i>Adenia subsessifolia</i>	
PEDALIACEAE		<i>Uncarina grandidieri</i>	
		<i>Uncarina stellulifera</i>	
소나무과 PINACEAE	과테말라젓나무 <i>Abies guatemalensis</i>		
나한송과 PODOCARPACEAE	포도카푸스 파르라토레이 <i>Podocarpus parlatorei</i>		<i>Podocarpus neriifolius</i> #1 (네팔)
쇠비름과 PORTULACACEAE		아나캄프세로스속 전종 <i>Anacampseros</i> spp. #4	
		아보니아속 전종 <i>Avonia</i> spp. #4	
		레위시아 세라타 <i>Lewisia serrata</i> #4	
앵초과 PRIMULACEAE		시클라멘속 전종 <i>Cyclamen</i> spp. #8, #4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		붉은 복수초 <i>Adonis vernalis</i> #2	
		히드라스티스 캐나다시스 <i>Hydrastis canadensis</i> #8	
장미과 ROSACEAE		아프리카벳나무 <i>Prunus africana</i> #4	
꼭두서니과 RUBIACEAE	발메아 스토르미아에 <i>Balmea stormiae</i>		
SANTALACEAE		<i>Osyris lanceolata</i> #2 (부룬디,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개체군)	
사라세니아과 SARRACENIACEAE	사라세니아 오레오펠라 <i>Sarracenia oreophila</i>	사라세니아속 전종 <i>Sarracenia</i> spp. #4	

구 분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부속서 I에 해당되는 종은 제외)	
	사라세니아 루브라 알라바멘시스 <i>Sarracenia rubra</i> ssp. <i>alabamensis</i>		
	사라세니아 루브라 조네시 <i>Sarracenia rubra</i> ssp. <i>jonesii</i>		
현삼과 SCROPHULARIACEAE		피크로리자 쿠로아 <i>Picrorhiza kurrooa</i> #2 (피크로리자 스크로푸라 리 프로라( <i>Picrorhiza scro-</i> <i>phulariiflora</i> )는 제외)	
스탄제리아과 STANGERIACEAE	스탄제리아 에리오푸스 <i>Stangeria eriopus</i>	보웨니아속 전종 <i>Bowenia</i> spp. #4	
주목과 TAXACEAE		중국주목 <i>Taxus chinensis</i> (동 종의 하위분류군 모두 포함) #2	
		주목 <i>Taxus cuspidata</i> (동 종의 하위분류군 모두 포함) #2,9	
		후안주목 <i>Taxus fuana</i> (동 종의 하위분류군 모두 포함) #2	
		아시안주목 <i>Taxus sumatrana</i> (동 종의 하위분류군 모두 포함) #2	
		월리히주목 <i>Taxus wallichiana</i> #2	
팔꽃나무과 THYMELAEACEAE		침향속 전종 <i>Aquilaria</i> spp. #4	
		라민속 전종 <i>Gonystylus</i> spp. #4	
		기리놉스속 전종 <i>Gyrinops</i> spp. #4	
트로코덴드론과 TROCHODENDRACEAE			<i>Tetracentron sinense</i> #1 (네팔)
마타리과 VALERIANACEAE		큰꽃감송 <i>Nardostachys grandiflora</i> #2	
포도과 VITACEAE		싸이포스텨마 에레판토푸스 <i>Cyphostemma elephantopus</i>	
		싸이포스텨마 몬타그나씨 <i>Cyphostemma montagnacii</i>	
		<i>Cyphostemma laza</i>	
웰위치아과 WELWITSCHIACEAE		웰위치아 미라빌리스 <i>Welwitschia mirabilis</i> #4	
플로리다소철과 ZAMIACEAE	세라토자미아속 전종 <i>Ceratozamia</i> spp.	플로리다소철과 전종 ZAMIACEAE spp. #4 (부속서 I에 해당되는 종은 제외)	

구 분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치과속 전종 <i>Chigua</i> spp.		
	엔세팔라토스속 전종 <i>Encephalartos</i> spp.		
	마이크로키카스 칼로코마 <i>Microcycas calocoma</i>		
생강과 ZINGIBERACEAE		헤디치움 필리핀넨스 <i>Hedygium philippinense</i> #4	
남가새과 ZYGOPHYLLACEAE		유창목 <i>Bulnesia sarmientoi</i> #11	
		과야쿰속 전종 <i>Guaiacum</i> spp. #2	

### <주 석>

6. 선인장과 전종(CACTACEAE spp.)중 다음의 잡종 또는 재배종 중 인공 증식된 표본은 제외한다.

- *Hattoria x graeseri*
- *Schlumbergera x buckleyi*
- *Schlumbergera russelliana x Schlumbergera truncata*
- *Schlumbergera orssichiana x Schlumbergera truncata*
- *Schlumbergera opuntioides x Schlumbergera truncata*
- *Schlumbergera truncata* (재배종)
- 선인장과에 속하는 전 종 식물의 색상 돌연변이체 중 다음의 종을 대목으로 하여 접붙인 것 : *Harrisia 'Jusbertyi'*, *Hylocereus trigonus* 또는 *Hylocereus undatus*
- *Opuntia microdasys* (재배종)

7. 난초과 전종 ORCHIDACEAE spp. 중 *Cymbidium*(보춘화속), *Dendrobium*(석곡속), *Phalaenopsis* (팔레오놉시스속) 및 *Vanda* (반다속)의 인공증식된 교잡종은 다음의 a)항과 b)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CITES 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명백하게 다음의 면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식물은 CITES 협약에 따른 적절한 문서를 첨부하여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a) 표본이 인공증식된 표본으로 쉽게 인지되거나, 물리적인 손상, 채집의 결과로 인한 심한 탈수, 불규칙한 성장, 분류군 간 이종으로 보이는 크기와 모양, 선적의 흔적, 잎

에 부착된 조류나 착생식물, 곤충이나 기생충에 의한 손상 등 야생에서 채집된 어떠한 표시도 없을 경우

- b) i) 개화되지 않은 개체로, 동일한 교잡종이 20개체 또는 그 이상의 개체가 개별 용기 (관지상자, 상자, 나무 상자, CC-용기의 개별 선반)에 포장되어 선적된 화물로 이루어진 경우. 단, 각 개별용기 내의 식물의 형태가 고도로 유사하고, 건강한 상태여야 하며, 선적된 화물에는 각 교잡종 개체수가 명시되어 있는 송장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ii) 개화된 개체는 표본 1개당 최소 1개의 완전히 개화된 꽃이 달려 있어야 하며, 선적화물당 개체수에 제한은 없으나 식물명칭 및 최종 가공 국가명이 인쇄된 라벨이 포장용기에 부착되어 있거나 포장용기에 직접 인쇄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상업적 소매 판매를 위해 전문적으로 처리되어 있어야 함. 상기 표기는 눈에 쉽게 띄고, 조희가 용이하여야 한다.

※ 단 CITES 종이면서 인공증식된 국내멸종위기종(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국외반출 승인대상종(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8. 부속서 I 에 해당되는 식물의 종 또는 상위 분류군은 그 교잡종이 협약 제3조에 따라 처리된다는 취지의 주석이 없다. 이는 상기 종 또는 분류군의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부터 생산된 인공증식된 교잡종이 인공증식증명서를 통하여 거래될 수 있으며, 이 교잡종의 종자와 화분, 절화, 실험 용기 내 또는 고품이나 액상 배지에서 채취되어 무균컨테이너로 운반되는 묘목과 배양조직은 목록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9. 협약의 1조 (b)항 (iii)세항에 따라서 부속서 II, III에 포함된 종 또는 상위분류군 이름에 붙은 숫자 앞에 있는 기호 #는 협약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부분이나 파생물을 지정한다.

a) #1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분물과 파생물을 지정한다.

i) 종자(난초과의 종자꼬투리 포함), 포자와 화분(화분괴 포함).

ii) 실험 용기 내 또는 고품이나 액상 배지에서 채취되어 무균컨테이너로 운반되는 묘목과 배양조직

iii) 인공증식된 식물의 절화

iv) *Vanilla*속(난초과) 및 선인장과 식물의 이식 또는 인공증식된 개체의 열매, 부분물 및 파생물

- b) #2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분물과 파생물을 지정한다.
- i) 종자와 화분
  - ii) 소매 목적으로 만들어져 포장된 완제품
- c) #3에 “지정, 가루, 알약, 추출물, 강장제, 차, 과자류와 같은 가공품이나 파생물은 제외” 주해삽입
- d) #4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분물과 파생물을 지정한다.
- i) 종자들과 화분
  - ii) 묘목 또는 시험관에서 얻은 배양조직, 고체 또는 액체매체, 살균용기에 의한 이동
  - iii) 열매
  - iv) 잎
- e) #5은 원목, 제재목, 단판(單板)을 지정한다.
- f) #6은 원목, 제재목, 단판(單板), 합판을 지정한다.
- g) #7은 원목, 나무조각(wood-chip), 분말 및 추출물을 지정한다.
- h) #8은 뿌리나 근경과 같은 식물의 지하조직의 전체, 일부분 및 이를 재료로 한 분말을 지정한다.
- i) #9는 모든 부분물 및 파생물(단,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관리당 국간 협정에 의거하여 Hoodia속 식물에서 생산되었음을 표시하는 라벨이 부착된 경우는 제외)
- j) #10은 원목, 제재목, 단판(單板) 및 현악기의 활의 제작에 사용되는 미가공재료를 포함하여 지정한다.
- k) #11은 원목, 제재목, 단판(單板), 합판, 분말 및 추출물을 지정한다.
- l) #12은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합판 및 추출물 (단, 소매 목적으로 제조, 포장된 완제품은 제외)를 지정한다.

## 참고문헌

- 김세원. 2003. 『분재(빛깔있는 책들 71)』. 대원사.
- 건국대학교. 2016. 『대중국 난류 및 분재의 수출적용기술 모델개발』
- 민경택 등. 2014. 『야생화를 활용한 산업화 및 정원문화 활성화 기술개발 전략』. 국립수목원.
- 민경택 등. 2014. 『대중국 임산물 해외심층정보 조사』. 한국농식품유통공사.
- 민경택. 2016. “일본의 조경수산업 동향과 지원제도.” 『세계농업』 195: 57-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민경택. 2016. “네덜란드의 조경수산업 지원제도.” 『세계농업』 1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변승연. 2016. “중국의 조경수 시장동향.” 『세계농업』 195: 77-1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석현덕, 윤택승. 2013. “세계의 선진 조경수 기업양묘장을 찾아서: 일본의 오오시마녹지.” 『산림』 2013년 4월호. 88-93. 산림조합중앙회.
- 석현덕, 구자춘, 최준영. 2015. 『1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산림·임업)』. 산림청.
- 산림청. 2007. 『조경수·분재·야생화의 생산·유통실태 조사 및 정책대안』. 산림청.
- 산림청. 2016. 『2015년 임업경영실태조사』
- 한국조경수협회. 2007. 『합리적인 조경수 조성·관리 및 생산·유통 개선 방안』. 산림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조경산업 선진화를 위한 조경수 생산·유통시스템 개발 및 유통센터 구축 방안』. 산림청.
- 환경부. 2009. 『CITES GUIDEBOOK: 야생 동·식물과 우리 모두를 위한 작은 실천』.
- 李樹華. 2006. “中國盆景의文化史と技術史に關する研究”. 『日本造園學會賞受賞者業績要旨』 43-50.
- 農林水産省. 2015. 『平成27年度花きの輸出擴大方針』.
- 農林水産省. 2015. 『農林水産物·食品輸出環境課題レポート(2014/2015)』.
- 農林水産省. 2015. 『花木等生産狀況調査』.
- 千葉縣. 2016. 『千葉縣花植木振興計畫』.
- さいたま観光國際協會. 2011. 『大宮の盆栽 J A P A Nブランド化プロジェクト』.
- 矢野經濟研究所. 2016. “ガーデニング市場に關する調査を實施”. プレスリリース.
- 日本花普及センター. 2008. 『日本産花き輸出マニュアル』.
- 日本都市綠化機構(<https://urbangreen.or.jp/>)
- 日本綠化センタ(<http://www.jpgreen.or.jp/>)
- 日本植木協會(<http://www.ueki.or.jp/>)
- 川繁園(<http://www.kawashige.co.jp/>)
- KAKUTA-GREEN(<http://kakuta-green.com/>)
- 千葉縣匝瑳市(<http://www.city.sosa.lg.jp/>)
- 埼玉縣 花と綠の振興センタ(<https://www.pref.saitama.lg.jp/hana-midori/>)
- 埼玉園芸市場(<http://www.saien.co.jp/>)
- みんなの趣味の園芸(<https://www.shuminoengei.jp/>)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